

은유는  
왜 특별할까?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프로그램 총서  
KIAS Transdisciplinary Research Series

# 은유는 왜 특별할까?

언어, 문학, 철학, 심리, 뇌과학자가 바라본 은유의 풍경

고등과학원 감정연구단 엮음

박만규, 김태훈, 백은주, 이상욱, 이윤형, 정명교, 최원일 공저

예술

## 서문

인류가 지구상의 지배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인간의 은유 능력을 지목할 수 있다. 종교,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을 태동시킨 것이 은유이다. 사실 은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고 이로부터 은유를 파생시킨 존재라는 점은 단순히 욕망을 실현하려는 동물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은유가 어떤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에 언제나 확장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일컬어질 만큼 과학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요즘, 은유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가 은유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는 각기 학문적 배경과 연구 분야가 다른 7명의 학자가 각자의 연구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은유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은유의 사유방식’이라는 제목의 첫 장(章)에서는 은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천을 다룬다. 전통적으로 은유는 시(poem)나 수사(rhetoric)에 적용되는 장식적 언어 사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은유는 텍스트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주변적인 요소로 폄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의 인지주의 언어학에서는 은유를 인간의 핵심적 사유 방식의 하나로 격상시킨다. 예를 들어 ‘이론을 세우다’, ‘이론의 토대’, ‘탄탄한 이론적 기반’, ‘이론이 무너지다’, ‘이론을 뒷받침하다’ 등과 같은 표현들은 단순히 이론을 건물에 빗댄 표현들이 아니라 인간이 ‘이론’을 ‘건물’의 구조로 사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은유를 한 정신 영역을 다른 정신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사유 체계로 간주하기 시작한 인지 언어학은 나아가 은유가 수행하는 인지적 기능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적 은유 등이 그러하다.

이 장에서는 또한 은유의 구조, 즉 설명하려는 대상의 개념인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설명에 이용하는 개념인 ‘근원영역’(source domain)의 개념과 이 두 영역 사이의 대응인 ‘사상’(寫像, 매핑, mapping)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위의 예시에서 ‘이론’은 목표영역이고 ‘건물’은 근원영역이 된다. 이때 근원영역의 모든 요소들이 목표영역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어서 둘 사이에는 일종의 간극, 즉 매핑갭(mapping gap)이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과학 연구와 같이 엄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은유의 부분성은 어떤 측면을 부각하기도, 은폐하기도 하기에 인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함을 살펴본다.

둘째 장에서는 김태훈 교수가 ‘은유, 창의의 토대’라는 제목으로 은유의 창의성 문제를 다룬다. 은유는 흔히 새로운 것을 발명, 발견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은유가 창의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은유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달라 보이는 두 대상이나 개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찾아 정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하여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정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많은 연구자가 추상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추상화를 통해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와 다이슨의 혁신적인 청소기 등과 같은 수많은 창의적 발견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그 원리를 탐구한다.

3장 ‘은유, 체화된 인지’에서는 이윤형 교수가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가 우리의 두뇌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이해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컨대 관용표현과 시각 운동 표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실험 사례 등, 여러 심리학적 연구들과

신경과학 연구들을 살펴본다. 체화된 인지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한 감각이 인지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유를 이해할 때 궁극적인 의미, 즉 목표영역이 곧바로 활성화될까 아니면 근원영역에 해당하는 신체경험을 반드시 통해서 이해할까 하는 의문이 곧바로 제기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는 후자에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은유의 표현은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을 추상적 개념으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기능으로 우선 은유를 이해하면서 그 의미와 의도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된 연구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한 언명으로 정리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심층적 측면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4장에서 최원일 교수는 개념적 사상 이론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지지하는 언어심리학 및 뇌과학 분야의 경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뒤, 그 설명력과 한계를 실험심리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개념적 사상 이론에 따르면 은유는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의 연결, 즉 사상(매핑)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앞 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은유의 체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실험 연구들은 은유가 감각 운동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들은 인간의 감각 운동 경험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지식 표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극단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나아가, 최근에 수행된 뇌 영상 연구들도 체화된 인지와 은유의

개념적 사상 이론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은유 의미로 사용될 때도 실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뇌 영역을 사용함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개념적 사상 이론이 인간의 은유 이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임은 분명하지만, 맹목적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5장에서 이상욱 교수는 과학에서 은유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 하는 문제를 알아본다. 흔히 과학에서 은유는 내용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한다. 그러나 은유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의 개념을 활용하여 막혀 있던 연구에 돌파구를 열어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은유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특정 과학적 설명의 적절성을 '어림규칙'의 수준에서 인식론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은유는 과학 발전에 요긴하게 쓰이는 긍정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에서 은유 사용은 다양한 의미에서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은유는 본질적으로 부분성을 갖고 있어서 두 대상 사이에 비슷한 부분과 비슷하지 않은 부분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일치는 의도된 부분 이외에 있어서는 복수의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예상치 못

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6장 ‘은유하는 뇌’에서는 백은주 교수가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은유를 만들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은유를 이해하는 발달 과정은 어떠한가? 언제부터 아이는 은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그림 등과 같은 예술품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문자, 모습, 행동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상태를 이해하는 정신화(mentalization) 과정은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유를 만들고 이해하려면 뇌에 그동안의 경험과 학습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 쓰면서 작업을 이어가야 할 텐데, 이때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란 어떤 것들일까? 또한 우리는 어떤 표현이 은유임을 어떻게 알고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신경과학의 최근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알아본다.

7장 ‘문학에서의 은유, 제유 그리고 환유’에서 정명교 교수는 은유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이다. 억압된 욕망은 비유, 즉 은유와 환유를 통해 나타난다. 우선 은유는 사실에 바탕을 둔 현실의 지시가 아니라 상상적 착안에 기반한 하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욕망의 은유는 본래 대상을 내재적으로 자유롭게 변용한다. 반면에 환유는 욕망을 인접한 대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욕망을 ‘성찰’하게 만든다. 은유는 진정한 형상의 완성을 향한 의

지 속에서 움직이지만 환유는 그런 은유의 작동이 결코 우리를 초월  
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은유는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반면에 환유는 각성을 유도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는 것을, 매우 흥미로운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확  
인해 준다.

이 같은 정명교 교수의 분석은 은유가 어떻게 하여 우리의 사유  
와 삶을 창조하는지를 알게 해 줌으로써, 문학 작품에서 은유가 대  
상이나 현실을 단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살아있  
는 현실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즉 은유는 작가와 독자와 작품이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  
는 창의적 기재인 것이다.

학문은 언제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왔다. 우  
리가 직면한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은 단일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  
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학제 간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결합하여 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쓰느라 고생하신 우리 연구단의  
모든 연구원님들, 이 책의 출판을 가능하게 해 주신 초학제 연구 프  
로그램 기획위원장 박창범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 교열에 애써 주신 배공주 박사님과 과정을 뒤에서 지원해 주신 권오범 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이 은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1일

고등과학원 감정연구단 단장 박만규

# 차례

## 서문 4

- 1. 은유의 사유 방식 - 매핑과 부각/은폐** 15  
은유란 무엇인가? - 은유에 대한 시각의 변화(장식에서 사유방법)/세 가지 개념적 은유/  
은유의 발생 환경 - 언어인가 사고인가?/매핑갭(mapping gap) - 은유의 본질적 부분성/  
부각과 은폐(Highlighting and Hiding)  
**박만규 (아주대학교)**
- 2. 창의를 토대인 은유를 통한 지식의 확장 가능성** 51  
연결하는 은유/유추적 추론/정렬 가능한 차이와 정렬 불가능한 차이/구조적 정렬을 통한 연결/  
추상화/은유와 창의적 발견/축적된 경험의 중요성과 함정/지식의 확장  
**김태훈 (경남대학교)**
- 3. 개념 지식의 표상과 비유 언어** 75  
개념과 범주의 이해/우체국이 어딘지 아세요?/어떻게 비유 언어를 이해하는가?/  
체화된 인지와 은유의 이해/은유 이해의 생리적 기제  
**이윤형 (영남대학교)**
- 4. 실험언어심리학자가 본 개념적 사상 이론** 101  
개념적 사상 이론/개념적 사상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 과학적 연구 결과들/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실험언어심리학적 관점/짧은 여정을 마무리하며  
**최원일 (광주과학기술원)**

**5. 과학과 은유, 생산적 활용과 위험** 131

전문가의 난감함을 우회하는 도구로서의 은유/과학에서의 은유의 생산적 활용/  
과학에서의 은유의 위험한 활용/과학과 은유, 철학적 코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6. 은유하는 뇌** 167

은유를 만들고 이해하는 뇌/은유를 이해하는 뇌에 관한 연구/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뇌의 발달과정/은유를 생성하는 뇌/  
뇌는 교향곡을 연주해내는 오케스트라: 뇌의 connectome/은유에도 필요한 작업기억/  
은유에도 필요한 주의집중/은유가 이끌어 온 신경과학

**백은주 (아주대학교)**

**7. 문학에서의 은유, 제유 그리고 환유** 211

비유는 왜 필요한가?/은유/제유/다시 은유의 약속: 상상력의 기능/환유/글을 마치며

**정명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은유의 사유 방식 - 매핑과 부각/은폐

박만규  
(아주대학교)



# 은유의 사유 방식 - 매핑과 부각/은폐

박만규 (아주대학교)

## 1. 은유란 무엇인가? - 은유에 대한 시각의 변화 (장식에서 사유방법)

전통적으로 은유(metaphor)는 시(poem)나 수사(rhetoric)에 적용되는 장식적 언어 사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혹은 설득력 있게, 또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요소이다. 그러다 보니 은유는 텍스트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주변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처럼 은유가 장식적인 요소로 치부되다 보니,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정확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예컨대 시가와 수사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시가가 그 자체로 어떤 진리도 전달해 주지 못하며, 또한 감정을 교란하고 인간을 참된 진리로부터 눈멀게 한다고 시가를 그의 유토피아적 공화국에서 금지하기도 했다.

이후의 철학자들도 은유를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로크(Locke)는 은유는 심각한 논

의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참을 수 없는 언어 오용 현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홉스(T. Hobbes)는 은유가 불합리한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릇된 감정이라고까지 보았다.

은유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은 과학 분야에서는 더욱 심하다. 연금술사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매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까지 있었다고 겐트너와 제지오르스키(Gentner & Jeziorski)는 갈파했다.

물론 반대로 은유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은유는 언어의 오용이 아니며 과학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심지어 과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까지 한다. 예컨대 헤세(Hesse, 1966)는 은유를 과학의 개념구조를 개조할 때 새로운 질서를 그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론을 발전시키고 명확히 기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은유가 사실을 은폐하고 오염시킨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다.<sup>1</sup> 이처럼 은유를 단지 전달하는 메시지를 꾸며주는 언어의 장식적 사용이라고 보는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내려온 ‘대체이론’(substitution view of metaphor)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은유는 본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에 장식적인 요소만을 덧붙이는 것이므로, 은유적 용어는 본 관념을 대체하는 단어로 간주한다. 두 단어 모두 인지적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체해도 정보의 손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천사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착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를 대체하여 '철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장식적인 효과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은유가 포함하고 있는 많은 내용을 놓치게 만든다. 예컨대 '내 가슴에 꽃힌 시커먼 비수'<sup>2</sup>라는 은유 표현에서 '시커먼 비수'를 무엇의 장식이라고 할 것인가? 만일 이것을 '근심'이라고 간주하여 대치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대치된 '내 마음의 근심'이라는 표현이 과연 '내 가슴에 꽃힌 시커먼 비수'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본래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이고 '내 가슴에 꽃힌 시커먼 비수'가 여기에 약간의 장식만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 사실 '시커먼 비수'에서 우리는 단지 '근심'으로 환원할 수 없는 더 많은 다른 의미들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내 가슴에 꽃힌'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로 대치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단순한 장식효과 이상의 창조적인 인지적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은유적 표현의 그 어떤 단어도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순간, 그 창조적 의미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나아가 단어의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애송하고 있는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관념인 ‘내 마음’과 보조관념인 ‘호수’를 처음부터 등치해 놓고 이들 사이의 다양한 유추관계에 기반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서 ‘호수’를 ‘내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문학 분야가 아니라 일상어의 영역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한 예는 많다. 예컨대 우리말의 ‘산발치’의 경우 산의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발치’를 대체할 단어가 없는데, 이는 영어의 ‘the foot of the mountain’도 마찬가지이다. 강을 건너게 해 주는 ‘다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애초에 이를 대체할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은유를 창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은유란 기존의 단어가 있음에도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수단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은유는 현실을 약간의 장식을 붙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문학에서는 이처럼 은유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로 보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서의 정명교 교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처럼 대체이론과 같은 고전적 설명은 그 설명력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지과학이 은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은유는 단지 언어상의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심리적 기제라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 Lakoff)는 인간의 사고 과정 대부분이 은유로 이루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은유가 오히려 인간 사고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Lakoff & Johnson 1980: 25)<sup>3</sup>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 만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장을 방어하다[격파하다], 약점을 공격하다, 정곡(핵심)을 찌르다, 상대의 주장을 분쇄하다, 논쟁에서 이기다’와 같은 표현들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모두 우리가 ‘논쟁’을 하나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Argument is war.) 입증한다.

‘방어’나 ‘격파’, ‘공격’의 개념들, 그리고 ‘분쇄하다’, ‘이기다’와 개념들은 모두 승패를 다투는 전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심지어 영어에서는 논쟁에서 ‘어디 네가 생각하는 논거를 내게 던져 봐.’, ‘어디 나에게 한 번 덤벼 봐.’라는 말처럼 상대방을 자극할 때 ‘짜 봐’ 혹은 ‘덤벼 봐’에 해당하는 “Shoot!”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논쟁’이란 본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말로 다투는 행위인데, 이를 물리적으로 다투는 행위에,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매우 위태롭게 다투는 전쟁이라는 행위에 등치시킨 것이다. 이는 논쟁의 본질도 그만큼 격렬한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고, 논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욕망이 강하여 전쟁으로까지 나아간 것임을 나타낸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간은 돈’(Time is money) 은유이다. 시간을 ‘낭비하다(waste), 절약하다(save), 쓰다(spend), 투자하다(invest), 남겨 놓다(put aside), 유익하게 쓰다(use profitably), 빼앗기다(lose)’, 시간이 ‘남다(have ... left)’와 같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표현들은 ‘돈’에 쓰던 것들인데 ‘시간’에도 완벽하게 잘 어

울린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뿐 아니라 (괄호 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논쟁을 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시간을 돈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한 영역의 경험을 다른 영역의 경험으로 투사하는 것, 즉,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인지언어학에서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 한다.<sup>5</sup> 그래서 은유란 한 정신 영역을 다른 정신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인지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개념적 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칭하고, 목표영역을 인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개념적 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 칭한다. 우리는 대개 보다 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을 ‘목표영역’으로 설정하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을 ‘근원영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소한 추상적인 대상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대상들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때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대응을 흔히 ‘매핑’(mapp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현실세계의 대상을 지도에 나타내는 지도 제작(map)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개념화한 용어이다(이 역시 하나의 은유이다). 흔히 우리말로는 ‘사상’(寫像)이라고 번역한다. 사상(mapping)의 인지작용에 대해서는 본서의 최원일 교수의 글을 참

조하기 바란다.

## 2. 세 가지 개념적 은유

개념적 은유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까?

### 지향적 은유

우선 가장 간단한 방식은 공간적인 지향성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기분이 좋다고 할 때 “I’m feeling up”이라는 표현을 쓴다. 또 “너 아주 들떠 있구나.”라고 할 때 “You’re in high spirits.”라고 한다. 반대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라고 할 때 “I’m feeling down.”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분이 좋을 때는 ‘위’(up)의 방향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래’(down)라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분이 좋을 때는 ‘들떠 있다’고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가라앉아 있다’(또는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마음이 가볍다’와 ‘마음이 무겁다’의 대립도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방향성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이 근원영역에 공간적 지향성을 부여하는 은유를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라 한다. 여기에는 ‘위-아래’뿐 아니라, ‘안-밖, 앞-뒤, 접촉-분리, 깊음-얕음, 중심-주변’ 등과 같이 다양한

공간적인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지향적 은유는 인간의 공통적인 물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 문화권과 상관없이 나타나 는 보편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영어에서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낼 때 blow up(화가 폭발 하다), boil up(화가 끓어오르다), work up(화가 치밀어 오르다), stir up(화를 돋우다) 등의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통적 으로 위의 방향을 가리키는 ‘up’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반 대로 화가 풀리거나 진정될 때는 calm down, cool down, settle down, wind down(진정하다) 등에서 보듯이 아래 방향을 지시하는 ‘down’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When I heard the news, I just blew up.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그냥 화가 폭발하였다.)

Her anger boiled up inside.

(그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My anger started to work up.

(화가 점점 더 치솟기 시작했다.)

His speech stirred up a lot of anger in the crowd.

(그의 연설은 군중들의 화를 크게 돋우었다.)

I told my friend to calm down and take a few deep breaths.  
(친구에게 진정하고 깊게 숨을 쉬라고 말했다.)

I was able to cool down.  
(나는 더 진정할 수 있었다.)

Our team was able to settle down and execute our game plan.  
(우리 팀은 진정하고 게임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I like to wind down by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으며 진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어에서도 화가 날 때는 ‘화[분노, 부어]가 치밀다’라고 하고 그 반대는 ‘화가 가라앉다’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두 언어에서 모두 분노가 증가하는 방향은 위쪽이고, 완화하는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지향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같은 지향성은 우리의 시각적 경험에 기반한 경우도 있다.

The price of shares is going up.  
(주가가 오르고 있다.)

She got high scores in her exam.

(그녀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문장들에서 go up(오르다)과 high(높다)는 시각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인데, 이것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가치가 커지는 것'이다. 즉 목표영역에서의 가치의 양적 증가라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근원영역에서 수직적 상승이라는 시각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양의 증가는 수직 상승이다'라는 은유라 할 수 있다. 물건들을 계속 쌓을 경우 그 더미의 높이가 증가한다는 경험에 기초한 개념상의 전환이다.

### 존재론적 은유

개념적 은유는 많은 경우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체물로 빗대어 묘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추상적 현상을 다음에서와 같이 하나의 물리적 존재자처럼 제시하는 방식이다.

Inflation is lowering our standard of living.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We need to combat inflation.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한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으로, 또는 싸워야 할 상대로, 즉 의인화되는 대상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런 방식은 나아가 추상적 현상에 양적인 측면을 부여하기도 한다.

It will take a lot of patience to finish this book.

(이 책을 다 읽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You've got too much hostility in you.

(너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적개심을 담고 있다.)

때로는 마음을 하나의 기계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고장 나는 (break down) 대상이기도 하다.

He broke down.

(그는 아파 누웠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제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은유라 할 수 있다.

또 마음은 때로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되기도 한다.

He cracked up.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마음이 깨어진 물건에 비유되어 갈기갈기 찢긴 상태가 되면 사 랫미 미쳐서 거칠어지거나 폭력적이 되는 경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신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변 화들을 통해 분노를 ‘열’로(‘열받는다’), 또는 용기 속의 뜨거운 액체 나 불 등의 물질로(‘속이 부글부글 끓다’, ‘뚜껑이 열리다’) 개념화하 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나 물체로 개 념화하는 것을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라 한다.<sup>6</sup>

###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유처럼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 단순한 하나의 유사점 에 의해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대응되어 목표 영역이 근원영역 수준으로 구조화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 생은 여행이다’가 그러하다. 추상적인 개념인 ‘인생’을 우리가 경험 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행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은유이다.

우선 목표영역(인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생이 진행된다 이 근원영역(여행)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행이 진행된다. 인 생에는 출발점, 경로, 목적지가 있듯이, 여행에도 출발점, 경로, 목

적지가 있으며, 인생에서처럼 여행에도 다양한 도전과 장애물이 존재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하며 여기에 실패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듯이, 여행에서도 안 가본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으며 그때 길을 잃기도 한다. 또 인생과 여행 모두에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은유에서 목표영역인 ‘인생’과 근원영역인 ‘여행’은 여러 부문에 있어 구조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살면서 겪는 사건들이나 경험이 여행에서 겪는 사건들이나 경험의 구조로 조직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특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은유를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라고 말한다. 이런 구조적 은유의 예로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 ‘논쟁은 전쟁이다’, ‘노동은 자원이다’, ‘시간은 자원이다’ 등을 들 수 있으며, 구조적 은유는 단순한 지향적 은유나 존재론적 은유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은유를 탄생시킨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개념적 은유는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를 포함한다. 이들은 인간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현상을 개념화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경험적 기초(experiential basis)를 토대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신체적 체험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 3. 은유의 발생 환경 - 언어인가 사고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흔히 사전에 나오는 뜻풀이 혹은 정의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사전이라는 책 안에 수록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맥락과 무관하고 고정적이고 비연속적인 의미로 제시되는 것이다. 언어학에서는 각 이론 틀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매우 다양하게 접근하는데, 분명한 것은 어휘의 의미는 맥락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실체라는 점, 그리고 한 단어 내에 다양한 개별 의미(sense)가 있을 때 이 개별 의미들 상호 간의 경계도 연속적/불연속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 즉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인지주의 의미론(cognitive semantics)에 따르면 의미란 개념 혹은 개념적 구조를 말한다. 즉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단어의 의미란 바로 우리가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만든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념적 구조는 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은 그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상태와 우리가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추상적 상황을 전하고 있다.

He is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져 있다.)

We are out of trouble now.

(우리는 이제 곤란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각 상태는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과 out of를 매개로 하여 '상태는 그릇이다'라는 은유로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존슨(Johnson, 1987)은 이를 영상도식(image schema)이라 한다. 그가 사랑이라는 그릇 내부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곤란이라는 그릇에서 벗어나 있다는 개념적 구조를 통해 사랑에 빠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예로부터 왜 현대의 인지언어학에서 은유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사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n과 out of의 은유적 의미는 공간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은유의 동기는 언어적 층위가 아닌 개념적 층위에 있는 것이다.

### 공통된 근원영역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개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이 '목표영역'이 되고,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이 '근원영역'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추상적인 경험을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익숙한 경험들로, 즉 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로 어떠한 대상들이 근원영역이 되고 어떤 개념적

영역이 목표영역이 되는 것일까? 혹시 여기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 쾨베체스(Zoltan Kövecses, 2002)는 몸(신체 부위), 동물, 식물, 음식(요리), 힘과 관련된 영역이 가장 공통적인 근원영역이 된다고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ye of needle (바늘구멍)

the eye of the storm (폭풍의 눈)

앞의 예에서는 바늘의 실 꿰는 구멍을 눈(eye)이라는 신체 부위에 투사하고 있고, 뒤의 예에서는 폭풍의 중심을 역시 눈이라는 신체 부위에 투사하고 있다. 다음에서도 미술이나 음악의 재능을 신체 부위인 눈과 귀에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have a good eye for (paintings) ((그림)에 좋은 눈[재능]을 가지고 있다.)

have a good ear for music (음악에 좋은 귀[재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도 노력의 결과와 이야기의 구성을 음식과 요리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the fruit of her labor (그녀의 노력의 과실[결실])

He cooked up a story (그는 이야기를 요리했다[꾸며냈다])

다음에서의 근원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겪는 힘과 관련된 경험이다.

Don't push me! (나를 밀지[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 도덕성, 사고, 인간관계, 시간 등이 가장 공통된 목표영역이 된다고 하였다.

She was deeply moved. (그녀는 깊이 흔들렸다[감동을 받았다].)

She resisted the temptation. (그녀는 유혹에 저항했다.)

I see your point. (너의 의도를 알겠어.)

They built a strong marriage. (그들은 견고한 결혼 생활을 구축했다.)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또한 시간(목표영역)은 흔히 공간(근원영역)의 이동에 의해 개념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Christmas is coming.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We are approaching my favorite time of the year. (우리는 일

년 중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다가가고 있다.)

여기에서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시간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my favorite time)이 모두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대상처럼 묘사되고 있다.

물론 우리말에서도 ‘시간’은 마치 공간 속의 움직이는 물체처럼 다음과 같은 동사들과 함께 쓰인다.

‘시간이 흐르다/멈춘다/다가온다/지나간다’

cf. ‘물이 흐르다’,

‘버스가 멈춘다/다가온다/지나간다’

또 시간은 길이를 가진 구체물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쓰임이 그러하다.

‘시간이 길다/짧다’

cf. ‘이 끈이 길다/짧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밥 먹을 틈도 없다’와 ‘눈 깜짝할 사이에’의 ‘틈’과 ‘사이’라는 시간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들은 본래가, 다음에서 보듯이,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었다.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샌다.

서울과 수원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다.

#### 4. 매핑갭(mapping gap) – 은유의 본질적 부분성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이고 비감각적인 것을 ‘돈’이라는 친숙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이해를 보다 쉽게 해 주고 있다. ‘시간’이라는 ‘목표영역’의 요소들이, ‘돈’이라는 ‘근원영역’의 여러 요소가 잘 매핑됨을 볼 수 있다. ‘시간’이 ‘돈’처럼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 ‘시간’을 ‘돈’처럼 ‘낭비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때 근원영역의 모든 요소들이 목표영역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돈’은 ‘쌓아놓을’ 수도 있고 ‘예치’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은 건물이다’ 은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다음에서 보듯이, ‘이론’(목표영역)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건물’(근원영역)의 많은 요소들에 잘 매핑된다.

(이론의/건물의) 토대,

(이론이/건물이) 흔들린다, 붕괴한다, 무너진다, 단단하다

이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the foundation for the theory (이론의 토대)

The theory needs more support. (그 이론은 좀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

The argument (is shaky / collapsed). (그 논거가 (흔들린다/무너진다))

construct a (strong / solid) argument. ((강한/견고한) 논거를 구축하다.)

The theory will stand or fall. (이론이 지지되거나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핑은 모든 요소에 대해 작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건물의 ‘지붕, 방, 계단, 복도’ 등은 ‘이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임대인, 임차인, 임대료’ 등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럴까? ‘이론’은 ‘모형, 가정, 전제, 증거, 결론’에 기초를 두는 복합적인 추상개념, 즉 구조적 은유이다. 그러나 ‘이론’의 구조가 ‘건물’의 구조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건물에는 ‘가정, 전제, 증거, 결론’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개념의 구조화에 사용되는 건물의 부분은 기초와 외형에 국한된다. 이처럼 근원영역에 속하는 요소가 목표영역에 있는 요소에는 매핑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매핑 갭’(mapping gap)이 발생한다고 한다. 구조적 은유는 본질적으로 부분적인 매핑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핑갭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한국어에서 ‘머리’는 ‘기계’에 투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계’에 적용되는 동사들이 ‘머리’에 잘 적용된다.

머리를 (쓰다, 돌리다, 회전시키다, 굴리다, 식히다)

머리가 (돌다, 돌아가다, 회전하다, 녹슬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핑값이 발생한다.

\* 머리가 (비싸다, 싸다)

\* 머리를 (팔다, 사다)

\* 머리의 부품,

?? 머리가 고장 나다,

? 머리가 낡다

? 머리를 조이다

건물의 본체에 붙어 다른 방향으로 난 부분이나 부속건물을 흔히 ‘날개’(wing)라고 부르는데, 이는 몸통에서 뻗어 나온 모양이 새의 ‘날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선풍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도 ‘날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새의 날개와 모양이 전혀 닮지 않았다. 그렇다고 선풍기를 새처럼 날아오르도록 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지 이것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단 한 가지 이유이다. 프란디(Prandi,

1998)는 은유적 사용의 경우, 모델에 의해 승인된 대상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의미는 우리의 일관된 개념 구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7</sup> 이처럼 목표한 의미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은유의 기본 속성이다.

### 매핑갭으로 인한 오해

그런데 만일 근원영역의 요소들 중에서 목표영역에 대응되지 않아 버려야 할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버려질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는 분명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컨대 버려야 하는 사항들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경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언중들이 있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단의 명칭인 ‘붉은 악마’가 그러하다.<sup>8</sup>

‘악마(惡魔)’는 불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홀려 불도 수행을 방해하여 악의 길로 유혹하는 나쁜 신을 가리킨다. 흔히 ‘악마’로 번역되는 영어의 devil과 프랑스어의 diable은 ‘증상하는 사람’을 뜻하는 희랍어의 daimon, 라틴어 diabolus에서 온 단어로서,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악의 정신을 뜻한다. 불교의 관점이건 기독교의 관점이건 매우 부정적인 대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대상을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의 이름으로 채택한 것일까? 이는 ‘악마’의 개념 중에서 목표가 되는 나름의 좋은 의미를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 ‘악마’가 사람을 빠져들게 한다든가, 다이내믹한 힘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난공불락의 이미지, 다시 말해 결코 질 것 같지 않은 강인함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그것일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취하고 이와 관계없는 나머지 의미들, 즉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멸에 이끄는 악한 기운이라는 의미를 비롯하여 나머지 모든 부정적인 의미들은 버리는 것이 본래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은유의 본질적 작동원리라 할 수 있다.

다만 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강하여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언중들이 있을 때는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화권, 언어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뜻이다,

언어는 유기체와 같아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예를 들어 ‘엽기적’이라는 말도 그 같은 과정을 거쳤다. ‘엽기적’이라는 말은 본래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에 흥미를 느끼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어서 매우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한동안의 적응기를 거쳐 언제부터인가는 특히 ‘재미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영역을 확장해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붉은 악마’가 처음 나왔을 때 ‘악마’에서 은유의 목표에 관여적이지 않은 부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신경이 쓰여서 쉽게 버려지지 못했다. 사실 기독교의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은 이 명칭에 반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보다 기독교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유럽 국

가들에서도 ‘붉은 악마’라는 명칭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벨기에와 콩고의 국가대표 축구팀은 Diable rouge(붉은 악마)로 오래전부터 불리고 있으며,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도 팀의 별명으로 Red Devils(붉은 악마)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 특히 스포츠 단체에서 ‘붉은 악마’가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악마의 부정성이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었다. 다행히 한때의 분란을 뒤로하고 이후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는 완전한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마약 김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사회문제와 교육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이름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조례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식품들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명칭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심지어 마약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서 ‘마약’이란 실제 마약이 아니라 ‘김밥’, ‘국수’, ‘떡볶이’, ‘호떡’, ‘치킨’ 등의 음식을 가리키는 명사에 붙어, 중독될 정도로 맛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은유’적 표현이다. 은유 이론의 기본적인 매핑이

론에 따라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만 남고,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마약의 부정적 의미는 버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약’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왜냐하면 ‘악마’와 달리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유해성이 긍정성으로 탈바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붉은 악마’라는 표현은 아무리 사용해도 ‘악마’를 미화하지 않지만, ‘마약 김밥’은 자꾸 사용하게 되면 ‘마약’을 긍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박만규, 2024)

## 5. 부각과 은폐(Highlighting and Hiding)

매핑맵과 함께 은유의 본질적인 부분성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은유 개념은 어떤 개념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그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의미에 접근하는 것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논쟁은 전쟁이다’ 은유는 논쟁이 가지는 전투적 측면, 즉 어떻게 하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경쟁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논쟁의 궁극적 목적, 즉 서로에게 보다 나은 결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협력적 측면을 놓치게 한다. 즉 물리적 충돌 외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말로써 해결하려는, 즉 논쟁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전쟁’이 아무래도 살상 등을 포함한 격렬한 물리적 싸움

을 연상시키다 보니 이 같은 경쟁의 측면을 특별히 더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내게 되었다.

또 많은 언어에서 소통(communication) 행위를 도관(導管, 파이프)에 비유하는 은유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레디(M. Reddy)는 이를 ‘도관 은유’(conduit metaphor)로 명명한 바 있다. 다음 한국어의 예를 보자.

말이 통하다, 말을 주고받다,  
안부를 전하다, 인사를 드리다,  
언로가 트이다, 언로가 막히다,  
아이디어를 전달하다, 면박을 주다, 비난을 받다  
생각을 담다, 말에 담기 어렵다

이 같은 표현들은 생각이나 말을 물건처럼 그릇 안에 넣고 그것을 청자에게 도관을 통해 보내고, 청자는 그것을 받아서 꺼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관 은유는 소통을 매우 간략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소통 과정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소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 만다. 발신자를 떠난 메시지가 곧바로 도관에 들어가서 이를 통해 수신자로 이동하는 과정만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식의 이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맥락’(context)이 차지하는 커다란 영향력을 축소시키

거나 아예 은폐해 버린다. 그래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We need new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대체 자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말을 한 사람이 모빌 석유회사의 사장인지 혹은 반대로 비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하는 환경 단체 사람인지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만일 화자가 전자라면 이때의 대체 자원은 새로운 유전으로 해석될 것인 반면에, 화자가 후자라면 대체 자원은 비화석 대체 에너지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란 문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말하거나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문장이 발화된 사회적·정치적 상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맥락의 고려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도관 은유’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Lakoff & Johnson, 1980(『삶으로서의 은유』 p. 35))

이처럼 도관 은유는 맥락의 중요성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인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은유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단점일 수 있다. 예컨대 ‘노동력을 투입하다’, ‘값싼 노동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노동을 ‘자원’으로 간주하는 은유를 이용하는데, 이는 자본가의 시각을 부각하는 반면에 노동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나 만족 등과 같은 가치를 은폐할 수가 있다.

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와 같은 존재론적 은유는 단지 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패를 오직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간주하게 만듦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경쟁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고를 부추겼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은유를 창출해 낼 때 그 위험성은 엄청나게 커진다. 은유는 실재를 정의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은유는 특정한 관점이나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유도함으로써 특정한 생각을 과장하여 받아들이게 하거나, 반대로 특정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데, 전자를 흔히 ‘부각’(highlighting), 후자를 ‘은폐’(hiding)라고 한다. 이러한 부각과 은폐의 기능은 보통 정치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는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담화에서 어떤 기술이 국민의 생활이나 식품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위해가 없거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기술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을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때 인체에 위해가 되거나 안정성 입증에 불리한 실험적 데이터나 근거들은 언급을 회피하거나 나아가 은폐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데에는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뿐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관료들까지 폭넓게 참여한다.

또 생명윤리 관련 문제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를 설명할 때, 이를 ‘생명의 열쇠’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생명공학의 혁명’ 혹은 ‘생명의 신비’라고 표현하며 혁신성과 필요성을 절대화하고 신비화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잠재하고 있는 크리스퍼의 위험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적용된 농산물에 대해 ‘변형’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변형이 주는 부정적 시선을 차단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신 ‘편집’, ‘표적화(targeting)’, ‘교정(correction)’, ‘유전자 가위(gene scissors)’ 등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범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훈기, 2017: 59)

영어권에서 질병들을 흔히 전투(battle)나 싸움(fight)과 같은 것에 비유해 왔다. (Sontag, 1978; Reisfield and Wilson, 2004; Granger 2014)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외부의 적으로 표현하는 은유의 사용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을 긴급히 동원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한다. 전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래서 국민들을 이 같은 조치에 동참하는 일을 매우 수월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와 복지를 일시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Ross(1986)도 질병과 관련된 군사적 은유가 환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보다 쉽게 여기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철규, 2021:55)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바이러스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을 막기 위한 전투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방역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방역 협조에 따른 국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든 측면이 있다.

의료진의 희생을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의료 인력들에게도 요구되었으며, 전시상황에서 내려지는 국가총동원령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또한 거리 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당연시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는 것을 국가총력전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같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측면을 우리 사회가 잘 보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질병에 대한 전투 은유는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은유를 활용하여 질병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질병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은유

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질병 은유를 보다 다양화하여 다양한 측면들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질병에 대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스(2007, 11-12, 15-16)는 지식의 창조가 “자기 설득으로 시작해 다른 이의 설득으로 끝나는 일”이고 과학의 텍스트는 “언제나 설득을 위한 수단이며 과학자한테 어떤 특정 과학이 옳다는 신념을 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 지식의 산물이긴 하지만 웅변술처럼 설득에 중심을 둔 수사학적 기획이며, 수사학의 범주에서 과학 텍스트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훈기, 2017:57)

결론적으로 설득과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라는 점은 과학 담화도 다를 게 없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 책에 수록된 이상욱 교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 미주

- 1 과학과 은유에 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책에 수록된 이상욱 교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정희경(1994), pp. 24~25.
- 3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 개념체계의 대부분이 그 본성에 있어서 은유적이다. (노양주,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p. 22)
- 4 “The essence of metaphor is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one kind of thing in term of another.”(Lakoff & Johnson 1980: 5)
- 5 닮음에 기반한 은유(resemblance metaphor, Grady 1999)에는 개념적 은유 외에 ‘영상 은유’(image metaphor)도 있는데 이는 단지 물리적인 닮음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번개의 이미지와 비슷한 머리 모양을 일컫는 ‘번개 머리’가 그 예가 된다.
- 6 Lakoff & Johnson(1980), Chapter 6
- 7 As for metaphoric usage, all the implications approved by the model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target are blocked by our coherent conceptual structures. Prandi(1998: 39)
- 8 cf. 박만규, 2024

## 참고문헌

- 임지룡, 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20, 29-60.
- 김철규, 2021, 신문 사설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28권 2호.
- 김훈기, 2021,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수사학』 제40집, 29-61쪽
- 김훈기, 2017,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설득을 위한 은유 - 크리스퍼/카스9에 대한 대중적 표현에서의 부각과 은폐, 『수사학』 제29집
- 박만규, 2024, ‘붉은 악마’는 되는데 ‘마약 김밥’은 왜 안 돼?, 더칼럼니스트, 2024년 3월 12일,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2756>
- 정희경, 1994, 『마르그리프 뒤라스 소설의 은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논문.
- Granger, K., 2014, ‘Having Cancer is not a Fight or a Battle’. The Guardian 25 April.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4/apr/25/having-cancer-not-fight-or-battle>.
- Kövecses, Z., 2010, *Metaphor: A Practiccal Introduction* 2n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 · 나익주 옮김, 도서출판 박이정 2006)
- Lakoff(1994: 43) : “What is a Conceptual System?,” in Overton W. F. & S. P. David, (eds.) *The Nature and Ontogenesis of Meaning*. New Jersey: Lawrence Earlbaum, 41-90.
- Sontag, S., 1978, *Illness as Metaphor*. New York, NY: Farrar, Straus & Giroux.
- Sontag, S. 1989, *AIDS and Its Metaphors*.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창의의 토대인 은유를 통한  
지식의 확장 가능성

김태훈  
(경남대학교)



# 창의의 토대인 은유를 통한 지식의 확장 가능성

김태훈 (경남대학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은유를 접했던 기억이 난다. 이 시에서 내 마음은 호수고, 촛불이며, 나그네이기도 하고, 낙엽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라고 배웠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되고 촛불이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 무척 궁금해했던 기억이 난다. 아쉽게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 그저 은유는 이렇게 A는 B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설명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인지, 막연하게 은유는 나와는 거리가 먼,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은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에 스며든 표현법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시간은 돈이다, 물건값이 내렸다, 선거는 전쟁이다 등등과 같은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

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경험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선거와 전쟁을 은유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게 되면 선거를 전쟁의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선거에 임하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만약 선거가 전쟁이 아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한다면, 서로에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은유는 이렇게 그저 언어적 표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인지심리학을 전공하고 창의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고 진행하면서 은유에 관한 생각이 점점 바뀌기도 하였다. 은유는 흔히 알려진 문학적인 쓰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인간이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은유의 기능과 이를 창출하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추적 추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연결하는 은유

A는 B라는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A와 B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임에도 그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하면 A는 B라는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은유는 오히려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은 돈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시간과 돈은 겉보기에 분명 다르다. 그러나 시간과 돈을 은유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시간을 돈의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아끼거나 절약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시간을 구매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연결하는 대상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을 돈과 연결하지 않고 화살이나 강물과 연결하게 되면, 시간에 관한 생각에 연결한 대상의 특징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유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이 은유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연결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고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은유가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2개의 개념이나 대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점이 겉으로 드러

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면 은유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심리학과의 데드레 겐트너(Dedre Gentner) 교수가 제안한 방식을 확인해 보자. 은유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온 겐트너 교수는 그림 1에서처럼 은유를 속성 공유 정도와 구조 공유 정도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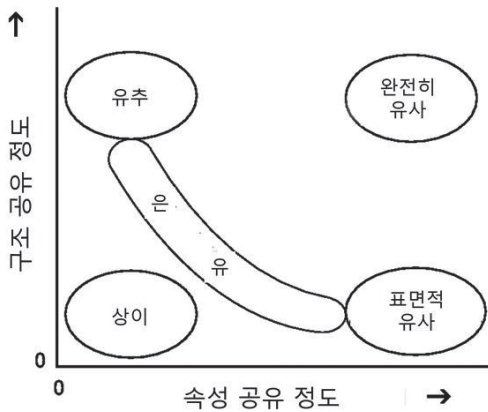


그림 1. 속성과 구조 공유 정도를 통해 표현한 유사성 공간(출처: Gentner, 1989)

그림 1에 의하면 속성 공유 정도가 매우 높을 때 표면적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뇌의 주름진 표면을 설명할 때 호두와 비교해서 알려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구조 공유 정도가 매우 높을 때 은유를 통해 유추를 하게 된다. 우리에게 유

레카 이야기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조를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속성을 공유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반면, 은유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겉보기에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리가 먼 개념이나 대상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개념/대상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상호 간 (구조적) 유사성을 찾는 유추적 추론(analogical reasoning)을 수행하게 된다.

## 유추적 추론

유추적 추론은 하나의 개념이나 대상을 비슷한 다른 개념이나 대상으로 전이하는 추론 과정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속성이 아닌 구조적 유사성이 핵심이다. 그림 2를 보면 개별적 유사성과 구조적 유사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림 2(a)의 가장 오른쪽 동그라미는 그림 2(b)의 가운데 동그라미와 개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그림 2(b)의 가장 오른쪽 동그라미와 일치한다. 이렇게 구조적 유사성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유추적 추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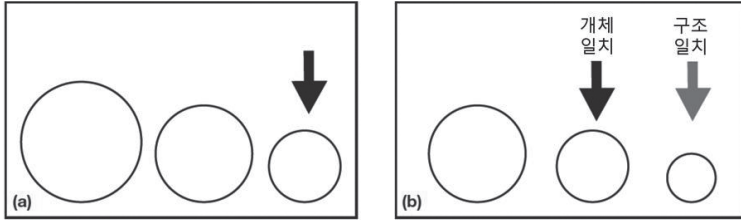


그림 2. 표면적 유사성과 구조적 유사성(출처: Gentner & Smith, 2012)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유사성은 공통점(commonality)과 비례하며 차이점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안전모-투구 쌍과 안전모-과일 껍질 쌍을 비교해 보자. 안전모-투구 쌍은 안전모-과일 껍질 쌍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차이점은 어떨까? 언뜻 보면 안전모-과일 껍질 쌍에서 더 많은 차이점을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전모와 과일 껍질을 언급한 이유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그런데 막상 차이점을 적어 보려고 하면 오히려 안전모-투구 쌍에서 차이점을 찾기가 훨씬 더 쉽다. 유사성이 차이점과 반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때 표면적 유사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안전모-투구 쌍은 표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찾기 쉽고 꺼내기도 쉽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을 비교하게 되면 공통점이 대부분 차이점이 된다. 반면 안전모-과일 껍질 쌍은

표면적으로 매우 다르다. 그러다 보니 분명 차이가 있으나 차이점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 정렬 가능한 차이와 정렬 불가능한 차이

공통점이 차이점과 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정렬 가능한 차이(alignable difference)와 정렬 불가능한 차이(non-alignable difference)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Goldstone, 1994; Markman & Gentner, 1993a, 1993b; Medin, Goldstone, & Gentner, 1993). 정렬 가능한 차이에서는 한 쌍이 연속적인 차원에서 서로 대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접 비교가 가능한 반면, 정렬 불가능한 차이에서는 서로 대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일치시킬 수 있는 특성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Markman & Gentner, 1996).

일치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두 개념/대상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용차와 트럭은 내연 기관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조가 유사하지만 운송 수단인 승용차와 가구인 소파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대상을 비교할 때 정렬 가능한 차이에 기반한 특징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겐트너 교수와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아트 마크먼(Arthur Markman)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Gentner & Markman, 1994). 이들은 연구 참가자에게 40쌍의 단어를 보여주었다. 이중 20쌍은 매우 유사한 반면 20쌍은 매우 달랐다. 이후 참가자에게 각 쌍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차이점을 열거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유사한 20쌍의 차이점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열거한 반면 매우 다른 20쌍의 차이점은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즉, 비슷한 점이 보이지 않으면 차이점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구조적 정렬을 통한 연결**

그렇다면 정렬 불가능한 차이를 정렬 가능한 차이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 그렇게 만든다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구조적 특징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일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겐트너 교수가 제안한 구조적 정렬(structural mapping)이다.

구조적 정렬은 기저영역의 익숙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추적 추론을 사용하여 목표영역의 생소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두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찾아 정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영역의 개별적 특성이 아닌 구조적 표상에 기반하여 연결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유추적 추론에 기반한 구조적 정렬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저영역과 목표영역 간에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찾고, 이에 근거하여 두 구조 간 유사성을 짚지은 다음 원래 목표영역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건전지(기저영역)와 저수지(목표영역)를 구조적으로 정렬해 보자. 두 영역 간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은 한정된 공간에 무언가를 담는 저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장소라는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저장, 보관, 추출 등의 방식에서 유사성을 찾게 되고 이후 해당 특징이 저수지를 설명하는 데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양, 크기, 색상, 물질 등 여러 가지 기본 특징이 다른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은유는 표면적으로 매우 달라 보이는 2개의 개념이나 대상을 유추적 추론을 통해 연결하는 과정이다. 연결 대상이 이질적이면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서 연결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정렬 가능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구조적 정렬을 적용하여 정렬 불가능한 차이를 정렬 가능한 차이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구조적 정렬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많은 연구자가 추상화를 제안하고 있다.

## 추상화

구조적 정렬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추상화를 들 수 있다. 개념이나 대상을 설명할 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기능이나 요인을 추출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Gentner & Hoyos, 2017). 이를 통해 연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추상화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카메라를 발명한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븐 새슨(Steven Sasson)을 들 수 있다. 알려진 일화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에게 코닥이 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필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추상화를 적용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필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이미지를 담은 저장소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나온 저장소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많이 사용하고 있던 카세트테이프와 연결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필름이 아닌 카세트테이프에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변환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던 구조적 정렬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정렬 가능한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유추적 추론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이다. 물과 공기는 액체와 기체로 무척 달라 보이지만 개별 특성을 넘어서서 특정 공간에 채우고 비우는 유입과 유출 과정으로 추상화해 보면 정렬 가능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물과 공기는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다. 게다가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환하게 되면 흐름과 관련된 돈과 같은 다른 대상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물, 공기, 돈이 연결되면서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추상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비교도 구조적 유사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일 것이다. 겐트너 교수는 비교 과정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표면적 특징에 기반한 비교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을 유도하는 비교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구조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유사한) 쌍을 이룬 속담의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구조적으로 유사한 속담

- You can't tell a book by its cover. &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 표면적으로 유사한 속담

-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it drink.

구조적으로 유사한 속담을 보면 구체적으로 유사한 개념은 없으

나, 추상적인 수준으로 보면 두 속담 모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표면적으로 유사한 속담에서는 말이라는 단어가 모두 등장하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속담을 평정했을 때 추상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과 연관된 새로운 속담의 연결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이후에 관련된 새로운 속담을 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게 했을 때 이전에 추출한 추상적 개념을 비교적 쉽게 연결할 수 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유사한 속담을 평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였다.

정리해 보면 추상화는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사용해 수많은 창의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은유는 창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 은유와 창의적 발견

‘은유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유일한 다리다.’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물리학과 과학사의 명예 교수인 제럴드 홀튼(Gerald Holton)이 은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실제로 은유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중요한 창의적 발견을 견인해 왔다.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나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종 겪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니 새롭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이론과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갑자기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을 가져와 은유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의 발견들이 탄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의 모든 새로운 개념은 은유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사실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비타민 C를 살펴보자. 지금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 C가 괴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타민 C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20세기 초반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미 1753년에 영국의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James Lind)가 괴혈병 환자에게 레몬이나 라임과 같은 감귤류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새로운 발견을 설명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헝가리 출신의 생화학자 쉐트죄르지 알베르트(Szent-Gyorgi Albert)가 갈변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과일에서 산화 현상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하였고, 피부 색소가 갈색으로 침착되는 증상

을 보이는 애디슨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신이 해당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타민 C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과일의 갈변 현상과 애디슨병의 색소 침착의 연결 가능성을 고민했기 때문에 비타민 C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학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은유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청소기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지금은 먼지 봉투가 없는 전기 청소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먼지 봉투를 장착하고 가득 차면 교체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먼지 봉투가 차오를수록 공기 순환에 문제가 생겨 흡입력이 점점 저하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 표면적인 유사성에 기반해 접근하게 되면 먼지 봉투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전기 청소기의 출력을 높여 흡입력을 강화하는 단순한 해결책만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나무 가공 공장에서 사용하는 집진기와 전기 청소기를 구조적으로 연결하였다. 집진기는 나무를 자를 때 발생하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인데, 입구로 먼지와 공기를 빨아들인 후 먼지는 남기고 공기만 회오리바람을 만들어 내서 출구로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먼지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청소기를 만들었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유추적 추론에서 언급했던 안전모와 과일 껍질을 연결한 이유를 확인해 보자. 안전모와 과일 껍질은 표면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정렬 불가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 정렬을 통해서 정렬 가능한 차이로 바꾸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여러 대학과 BMW를 포함한 7개 회사는 바로 이러한 연결을 적용하여 BISS(Bio Inspired Safety System)<sup>1</sup>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만약 안전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유사한 여러 종류의 모자를 살펴보고 이를 기존의 안전모에 적용하려고 했다면 그저 일정 수준의 성능 개선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았다. 안전모의 구체적 특징을 기술하기보다는 추상화를 적용하여 안전모의 핵심적인 기능(내부의 물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덕분에 핵심적인 기능이 유사한 과일 껍질과 구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조직 구성이 바뀌면서 껍질이 오히려 더 단해지는 포멜로와 연결하였고, 이를 새롭게 개발하는 안전모에 적용하였다.

##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과 함정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다. 은유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은유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이다. 전술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특히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수적이다. 축적된 경험의 양과 구조적 정렬의 가능성은 비례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다.

놀라운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들이 종종, 그러한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였으며 운이 좋았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은유에 기반한 연결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덕분에 우연적 발견을 창의적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먼저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영역 특이적 시선이다. 한 가지 영역에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시선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제한적일 수 있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상화를 적용하여 새로운 구조를 탐색할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은유를 통한 연결의 가능성 역시 낮아지게 된다. 때로는 농업과 정치사상

을 연결한 리센코 학설과 같이 당황스러운 은유적 연결을 만들어 한 국가의 농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추상화의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은유를 통한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경험의 종류에 따라 구조적 정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 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을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은유가 구조적 유사성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구조적 정렬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분야의 은유가 다른 분야에도 범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지식의 확장

전술한 함정에도 불구하고 은유의 장점 역시 너무나도 분명하다. 은유는 새로운 것을 설명하게 해 주고 이를 통해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게 해 준다. 이는 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겐트너 교수와 필립 울프(Phillip Wolff)가 제안한 지식의 확장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적용해

보자(Gentner & Wolff, 2000).

먼저 지식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이 아닌 비교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선택하게 된다. 비교 대상 간 여러 종류의 구조적 유사성 중에 가장 구조적 정렬이 우수한 쌍을 선택하여야 한다.

두 번째 과정은 투사다. 은유를 통해 기저영역에서 목표영역으로 의미를 전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는 정육업자라는 은유를 사용한다면 외과 의사가 자르는 행위를 기반으로 정렬하고 이를 정육업자가 하는 행위의 특성으로 전이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정은 표상의 변경이다. 기저영역과 목표영역이 가진 구조의 차이는 은유적 연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를 용이하게 하려면 각 영역을 하위 구성 요소로 나눈 후 표상을 재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정은 재구조화다. 새로운 발견이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은유적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전 경제학은 물리학 이론과 연결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수요-공급, 가격 탄력성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후 기존의 은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 생물학, 진화학 등의 분야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은유를 재구조화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은유가 창의적 발견으로 이어지는 기제와 이를 통해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련의 과정을 따

라가다 보면 은유가 문학가나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은유적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은유가 나오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미주

- 1 <https://www.press.bmwgroup.com/global/photo/detail/P90266976/bionic-research-project-biss-bio-inspired-safety-systems-06-2017>

## 참고문헌

- Gentner, D. (1989). The mechanisms of analogical learning. In S. Vosniadou & A. Ortony (Eds.),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pp. 199-2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ntner, D., & Hoyos, C. (2017). Analogy and abstraction. *Topics in Cognitive Science*, 9, 672-693.
- Gentner, D., & Markman, A. B. (1994). Structural alignment in comparison: No difference without similarity. *Psychological Science*, 5, 152-158.
- Gentner, D., & Smith, L. (2012). Analogical reasoning. In V. Ramachandran,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pp. 130-136). Oxford, UK: Elsevier.
- Gentner, D., & Wolff, P. (2000). Metaphor and knowledge change. In E. Dietrich & A. B. Markman (Eds.), *Cognitive dynamics: Conceptual and representational change in humans and machines* (pp. 295-34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oldman, R. L. (1994). The role of similarity in categorization: Providing ground work. *Cognition*, 52, 178-200.
- Markman, A. B., & Gentner, D. (1993a). Splitting the difference: A structural alignment view of similarity. *Journal of Memory & Language*, 32, 517-535.
- Markman, A. B., & Gentner, D. (1993b). Structural alignment during similarity comparisons. *Cognitive Psychology*, 25, 431-467.
- Markman, A. B., & Gentner, D. (1996).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similarity comparisons. *Memory & Cognition*, 24, 235-249.
- Medin, D. L., Goldstone, R. L., & Gentner, D. (1993). Respects for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100, 254-278.
- Wolff P, Gentner D. (2011). Structure-mapping in metaphor comprehension. *Cognitive Science*, 35, 1456-1488.



# 개념 지식의 표상과 비유 언어

이윤희  
(영남대학교)



# 개념 지식의 표상과 비유 언어

이윤희 (영남대학교)

개념과 범주는 인간 사고의 핵심 요소이다. 개념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추상화하여 머릿속에 담고 있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다. 개념은 특정 사건이나 사물을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예측과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개념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세상과 상황에 대해 다양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점심때 중국집에 갔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중국집'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적 표상이 없다면 중국집이 중국에 있는 집인지, 중국인이 사는 집인지, 그곳에 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집'에 관한 개념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친구가 중국집에 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을지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으며, '왜? 가서 뭐 했어?'라는 질문 대신에 '뭐 먹었어? 맛은 어땠어?'라고 질문할 수 있다.

범주(category)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들을 묶는 인지적 틀이며 범주화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특정 범주로 할당하여 개념화

하는 과정이다. 만약, 한 동물을 보고 그것을 ‘커다란 개’라 분류하는지 ‘어린 송아지’라 분류하는지에 따라 그 동물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보다 극단적으로 한 동물을 ‘고양이’로 분류하는 경우와 ‘호랑이’로 분류하는 경우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념과 범주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지적 행위의 기초가 된다.

은유는 머릿속 지식들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하고, 은유 대상이 되는 개념의 특정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개념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은유를 이해하려면 인생에 대한 개념과 연극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며, 두 개념의 연결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개념은 은유 이해의 근간이 되며, 은유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한 개념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여 개념을 풍부하게 하는 좋은 도구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인지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인간의 두뇌에서 개념 지식이 어떻게 표상되고 이해되는지에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와 우리가 어떻게 비유적 표현들을 이해하는지와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들을 은유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념의 이해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감각, 운동적인 속성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체화된 인지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체화된 인지가 은유 이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은유 이해의 생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가설

들을 고찰할 것이다.

## 개념과 범주의 이해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과 범주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표상되어 있는지는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던 주제이다. 개념의 범주화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공통속성 접근(common attribution)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특정한 범주로 개념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대상이 특정 개념의 전형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bird)는 깃털, 부리, 두 다리, 온혈, 알, 날개라는 전형적인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이러한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새라 정의되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범주들 간의 경계가 명확하며 범주 안에 속하는 모든 예들은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간주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새의 전형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참새와 펭귄은 새의 범주 안에서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체계화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처럼 여겨진다. 사람들은 참새를 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빠르고 쉽게 하는 것에 반해 펭귄을 새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토마토와 같이 과일과 채소 중 어느 범주

에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그릇과 접시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 힘들며, 스포츠나 성공과 같이 전형적인 속성으로 정의하기 힘든 개념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공통 속성 접근의 대안으로 원형(prototype) 접근이 제기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 범주에는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추상적인 ‘원형’이 존재하며, 새로운 대상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원형과의 유사성 정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새’라는 범주의 원형은 깃털, 부리, 두 다리, 온혈, 알, 날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상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가지면 ‘새’로 분류되는 것이다. ‘날 수 있다’는 새의 필수 속성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새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으로, 새의 원형도 ‘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새의 원형과 특성의 유사성이 더 크다. 즉, 참새가 펭귄보다 우리가 가진 ‘새’ 범주의 원형과 더 유사하기 때문에 참새가 새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펭귄이 새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다. 반면, 고래는 어류의 원형과 상당히 많은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래를 포유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류라 판단하기 쉽다.

범주의 경계가 모호하고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의 차등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 머릿속의 지식이 체계화된 방식과 잘 부합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모든 범주가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의 원형은 무엇일까? 또한, ‘산 속에서 새를

봤어'라는 말을 들으면 참새를 떠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동물원에서 새를 봤어'라는 말을 들으면 공작이나 홍학을 떠올릴 가능성이 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전형성의 정도가 다르며 원형이 가진 전형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형적인 속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개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나타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Yee & Thompson-schill, 2016).

개념과 범주에 관한 본보기(exemplar) 접근은 추상적인 원형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본보기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대상을 범주화한다고 제안한다. 즉, '개'라는 범주를 떠올릴 때 나와 가장 친숙한 '특정한 개'의 예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개념에는 특정 사례를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어서 한국 사람들은 개를 떠올리면 진돗개를 떠올릴 가능성이 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의 개를 떠올리게 된다. 잠시 '개'를 떠올려 보자. 추상적인 개의 원형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내가 키우던 개, 혹은 TV에서 많이 보던 진돗개가 떠오르는가? 많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고 본보기 접근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 보기는 어렵다. 체계화된 지식에는 어느 정도의 추상화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본보기 접근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진돌이'라는 특정한 대상은 개, 진돗개, 포유류, 동물, 등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개념들이 과연 다 본보기가 있을까? 진돌이가 포유류의 본보기로 여겨질까? 아니면 포유류의 본보기

는 무엇일까?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추상적인 원형과 구체적인 본 보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Vanpaemel & Storms, 2008). 즉, 우리 머릿속의 개념들은 추상성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상성이 큰 개념들은 원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개념들은 본보기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키마(Schema) 모형은 원형과 본보기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관한 정신적 프레임인 스키마 속에 통합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제안을 한다. 여기서 스키마는 '식당 스키마'와 같이, 자리에 앉고 메뉴를 주문하고 식사 후 결제하는 것에 이르는, 식당에 갔을 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식 표상을 의미한다. 스키마는 개념의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일종의 망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에도 잘 적응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스키마를 형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개념에 스키마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감각, 운동 속성 정보를 모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한다. 즉, 마음(cognition)이 몸에 붙어있기(embodied) 때문에 개념의 이해가 우리 몸과 세상의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존하며, 추상적인 표상 이상의 감각이나 운동 경험의 수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개념에 관한 여러 주장 중 체화된 인지 접근은 특히 우리가 어떻게 은유를 이해하는지와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언급한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정리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의 주요한 관심사인 은유도 우리 머릿속 지식의 구조화에 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은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이제 은유를 포함한 비유 언어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보자.

### **우체국이 어딘지 아세요?**

이 질문에 ‘예, 잘 알죠.’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무척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체국이 어딘지 아세요?’가 사실은 우체국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한다. 이처럼 화자가 말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와 화자가 실제로 의도한 의미(actual meaning)가 다른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흔하다. 따라서 듣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의 의미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 화자의 의도, 그리고 청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실제 의미가 다른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우체국이 어딘지 아세요?’와 같은 표현을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이, 뜻이 굳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관용어(idiom)도 비유 언어의 유형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눈을 깜박이는 찰나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백악관이 난민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에서 ‘백악관’이 실제로는 미국 정부나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단어가 실제로는 그 단어와 연관된 다른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환유(metonymy)도 비유 언어의 일종이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같은 격언(maxim)이나 ‘인생은 연극이다’와 같은 은유(metaphor)도 비유 언어의 일종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양한 비유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

우선, 많은 경우에 간접적인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보다 더 자연스러우며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 직접적인 표현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색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나랑 사귄래요?’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한 상대방에게 실제로 상당한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나랑 사귄래요?’라는 질문에 대뜸 ‘좋은 생각이예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차 한잔하실래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차를 마시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 따라서 좋다고 하든 싫다고 거절하든 크게 부담이 없다.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랑 사귄래요?’를 거절당하는 것보다 ‘차 한잔하실래요?’를 거절당하는 것이 훨씬 상처가 덜하다. ‘나랑 사귄래요?’의 거절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지만 ‘차 한잔하실래요?’의 거절은 아마 시간이 없나 보다 등등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유 언어는 또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보다 친숙하고 간단한 개념에 연결시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을 금이라는 구체적인 개념과 연결시켜 구조화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낭비했을 때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에게 뉴런의 작용에 대해 설명할 때,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뉴런은 머릿속의 명령을 몸 곳곳으로 전달하는 전달자이다’라고 설명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유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제가 큰 파도를 만나 난파 직전에 있다’와 같은 표현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비유 언어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인지적 효율성과 지식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우리가 비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 어떻게 비유 언어를 이해하는가?

정보처리의 관점에서는 비유 언어의 이해는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비유 언어를 이해하려면 말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맥락, 의도, 상식 등을 고려하여 추론해야 한다.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상황,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이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때로는 간단하여 쉽게 이루어지고 오류가 적지만 때로는 상당히 어렵다. 상황에 따라 ‘날씨가 덥네요.’는 실제로 날씨가 덥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창문을 열어라’ 혹은 ‘에어컨을 켜라’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무언가 창피한 일이 생겨서 얼굴이 빨개진 것을 무마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괜찮아’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싫어’가 될 수도 있고 ‘화났어’가 될 수도 있으며, ‘별일 아니야’, ‘말 걸지 마’, ‘안 먹어’ 등 수많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비유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언어 심리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비유 언어들 중 은유표현의 이해 과정에 관해 주로 관심을 둔다. 이는 다른 비유 언어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은유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개념들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개념들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이를 연결하고 해석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우리 머릿속의 개념 구조와 머릿속 사전인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에 들어있는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은유 이해에 관한 고전적인 화용 이론(pragmatic theory)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계산하고 이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재분석을 통해 은유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 '오늘이 내 귀 빠진 날이야.'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이 이 사람의 청각 감각기관인 귀가 머리로부터 분리된 날'이라는 해석을 먼저 하고 이것이 언어적,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며, 적절한 해석이 아니면 재분석을 통해 '오늘이 이 사람의 생일이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유적 의미에 대한 판단이 문자적 의미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빠르게 일어난다는 많은 실험적 증거들과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적절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비유적 해석을 떠올린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서 도전받았다(Blasko, & Connine, 1993). 따라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동시에 떠올린다는 견해를 제안하

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동시에 떠올리고, 그중 적절한 의미를 선택한다.

우리가 은유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는지에 관한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은유를 직유로 변환(conversion to simile)하여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표현은 ‘인생은 연극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변환되어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A와 B를 비교하여 처리하는 것은,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은유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지적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은유가 다 직유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유가 은유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의미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려면 은유 표현이 직유보다 해석하는 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야 하는데, 몇몇 연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직유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lucksberg, 1998).

은유 이해의 핵심이 비유적인 표현과 대상 간에 공유되는 공통적 특성을 찾아내 연결시키는 것(property-matching)에 의존한다고 제안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이론에서는 두 대상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의 은유에서 비유적인 표현과 대상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은 대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은유에서 강조되는 속성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유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표현에서 인생과 연극이 변화, 전개, 어려움, 극복,

종료 등 다양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에 따라서 인생과 연극이 공유하는 속성 중에 어떤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은유를 이해할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 이론은 중요하고 관련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은유 이해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은유 이해를 위해서는 비유 대상 개념과 비유적 표현의 상대적 현저성의 차이(salience imbalance)를 이용한다고 제안한다. 즉, 특성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비유 대상에 특성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비유적 표현을 적용하여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전쟁이다'라는 은유의 예에서 사랑은 그 특성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전쟁은 그 특성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전쟁의 특성을 사랑에 적용하여 사랑에 대해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비유 대상 개념과 비유적 표현의 특성이 모두 현저하거나 모두 현저하지 않은 경우, 공통 속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설명은 은유 표현이 마치 새로운 범주의 원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사랑은 전쟁이다'라는 은유의 이해는 사랑과 전쟁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때 전쟁이 새로운 범주의 원형(prototype)의 역할을 하며 사랑은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제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A is B'의 표현은 '사랑은 전쟁이다'와 같은 은유이던 '네모는 도형이다'와 같이 은유가 아니던 관계없이 A가 B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은유 표현도 다른 언어적 표현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언어표현이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때도 마치 은유를 이해할 때처럼 개념들 간의 연결이나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에 의존하므로, 은유가 특별한 형태의 언어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일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개념적 사상(conceptual mapping) 이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개념적 사상이론은 자세한 소개는 이 책의 다음 장에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유경력(Career of metaphor) 가설은 비유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직유와 같은 비교의 형식으로 이해되지만 점차 자주 쓰이게 되면 은유의 형태로 이해된다고 제안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보는 비유의 경우 은유보다는 직유의 형태를 선호하고(예: A mind is like a kitchen), 익숙한 비유인 경우에는 은유를 선호한다(예: An opportunity is a doorway) (Bowdle & Gentner, 2005).

## 체화된 인지와 은유의 이해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관점은 인간이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이 담고 있는 감각, 운동적 특성을 모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한다고 제안한다. 체화된 인지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강한 입장(Strong view of embodied cognition)은,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체적 감각, 행동 경험과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인지 과정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뜨겁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뜨거움을 느껴봐야 하며, 뜨거움을 느껴본 사람들이 ‘뜨겁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뜨거움에 반응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를 바탕으로 ‘뜨거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감각-운동 양식의 모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손동작을 표현하는 ‘잡다’를 보면 손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나고, ‘차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발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약한 체화된 인지(weak embodiment)를 주장하는 입장은,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감각-운동 모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황, 맥락, 개인 차에 따라 감각-운동 모사 정도나 시작에 차이가 있으며, 추론이나 추상적인 사고는 신체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잡다’와 같은 신체 행위 동사를 본 경우이라도 맥락에 따라 손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 양상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Schuil, Smits & Zwaan, 2013). 반면 체화된 인지를 반대하는 입장(disembodied cognition)은 감각-운동 모사가 개념 이해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념 표상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감각, 운동 정보들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도덕’과 같은 개념들은 감각-운동 속성이 없고 추상적이지

만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잡다'와 같은 구체적인 단어의 경우에도 그 개념이 이해되고 난 뒤의 결과로서 감각 및 운동 영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감각-운동의 모사가 '잡다'라는 개념의 이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은 은유 대상과 은유 표현의 신체적 경험을 모사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 이미지와 운동 경험으로 구체화하는 것에 의존한다. 이러한 설명은 특히 관용 표현과 시각 운동 표현에 잘 부합되는데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적 경험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 '손을 잡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이해할 때 실제 손을 잡는 동작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협력하는 경험과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눈을 뜨다'라는 표현도 역시 실제로 눈을 뜨는 행위와 연결되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일련의 연구자들은 실제로 은유 표현을 이해할 때 신체적 경험을 모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Wilson과 Gibbs(2007)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He swallowed his pride', 'She grasped the truth', 'They chewed on the idea'와 같은 은유 표현을 보여주기 전에 삼키거나 잡거나 씹는 동작을 하거나 상상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은유 문장을 더 빨리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체화된 인

지 이론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은유 표현을 이해할 때도 신체적 경험의 모사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Boulenger, Hauk와 Pulvermüller(2009)는 뇌 영상을 이용하여 ‘John grasped the idea’와 같은 은유 표현과 ‘John grasped the object’와 같은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처리할 때 운동피질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운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은유 표현에서도 문자 그대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운동피질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장 특성에 관계없이 신체적 경험의 모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Desai, Binder, Conant, Mano와 Seidenberg(2011)는 뇌 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The daughter grasped the flowers’와 같은 문자 그대로의 표현과 ‘The public grasped the idea’와 같은 은유 표현은 물론 ‘The public understood the idea’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문자 그대로의 표현과 은유 표현에서 모두 행동계획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났지만, 은유 표현의 경우에는 추상적 표현의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이는 문장 특성에 관계없이 신체적 경험의 모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은유 표현의 이해를 위해서는 신체적 경험의 모사는 물론 어휘-의미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화된 인지가 은유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은유 이해가 체화되었다는 설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증거는 은유적 표현의 개념적 이해가 그와 관련된 신체적 경험과 행위

의 활성화를 야기한다는 실험적 증거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Thibodeau와 Boroditsky(2013)에 따르면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치유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범죄를 짐승이라 표현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범죄자를 투옥시키고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무거운 결정’이라는 표현에 부합되게 실제로 중요한 것을 더 무겁게 느끼고, ‘차가운 거절’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공간의 온도를 더 차갑게 느낀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모든 개념이 체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념의 이해가 먼저인지 아니면 감각-운동 모사가 체화된 인지의 결과물인지에 관련해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화된 인지가 많은 종류의 은유 표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다(Gibbs, 2003).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유 이해에 관한 생리적 기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은유 이해의 생리적 기제

우리 뇌의 복측 전운동영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의 존재는 체화된 인지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 볼 수 있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를 ‘거울’로 삼아 마치 자신이 실행하는 것과 같이 묘사하기 때문인데 거울 뉴런이 이러한 묘사의 신경학적 기반이 된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에도 발화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내가 자전거 탈 때 활성화되는 뉴런을 활성화하게 되며, 이 뉴런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 거울 뉴런은 특히 우리가 동작을 관찰한 후 모방해야 할 때 더 큰 활성화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학습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거울 뉴런의 반응은 행동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거울 뉴런이 단순히 특정한 행위에 반응하는 것이 상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울 뉴런은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며 언어적 묘사와 실제 행동을 연결하여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뇌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은유 이해의 생리적 기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좌반구 손상 환자들은 일반적인 언어처리와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우반구 손상 환자들은 은유를 포함한 다양한 비유적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우측 하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이 은유의 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되고 있다. 또한 운동 영역의 손상도 은유 표현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신체적 경험의 모사가 은유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체화된 인지 이론을 뒷받침한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반구가 은유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우반구 가설(right hemisphere hypothesis)이 제안되었는데, 이 가설은 좌반구는 문자적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관여하고 우반구가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는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Bottini 등(1994)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은유 문장을 읽는 동안의 대뇌 혈류를 측정하였는데, 좌반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우반구의 여러 영역들에서 은유 문장을 읽을 때 더 큰 활성화를 보였다. 이 결과는 뇌손상 환자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반구가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하지만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Rapp 등(2007)은 문자 그대로의 문장과 은유 문장을 보여주고 그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은유 문장을 처리할 때 좌반구에서 더 큰 활성화를 보였으며 우반구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 이외에도 비유적 표현을 이해할 때 우반구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반구 가설과는 달리 좌반구와 우반구 모두의 관여를 강조하는 점진적 현저성 가설(Graded salience hypothesis)이 제안되었다. 이 가설에서는 은유를 접할 때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가 모두 활성화되는데 활성화의 상대적 강도에 따라 어떤 해석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문자적 의미가 은유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지만 문자적 의미와 맥락의 불일치를 탐지하면, 은유적 의미가 활성화되고 은유적 의미가 현저해질수록 문자적 의미의 활성화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에서 처음에는 ‘시간’과 ‘금’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활성화되지만 점차 문자적 의미는 줄어들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활성화되어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때 활성화의 상대적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빈도, 친숙성, 문맥 등이다.

또한, Beeman 등(1998)에 따르면 좌반구 내의 어휘 표상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다른 의미들과의 관련성이 제한적이지만 우반구 내의 어휘 표상은 더 분산되어 있으며 경계가 약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미 잘 연결된 관용적 표현의 경우 좌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지만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표현은 우반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은유 표현들은 멀리 떨어진 개념들과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우반구에서 처리되고 친숙한 은유 표현과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은 좌반구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실험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 뇌파 또는 뇌자도(Magnetoencephalography, MEG)를 사용하여 뇌 활성화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은유를 이해하는 동안 문자적 의미와 관련된 영역에서 비유적 의미와 관련된 영역으로 뇌 활성화가 점진적

으로 확산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생소한 은유가 친숙한 은유보다 더 큰 우반구의 활성화를 야기하고,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를 이용하여 좌반구의 활동을 방해하면 친숙한 은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우반구의 활동을 방해하면 새로운 은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점진적 현저성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가설에 반하는 연구결과들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Traxler, 2023).

지금까지의 짧은 글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은유 표현의 이해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은유 표현의 이해 과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도 없고, 은유 이해의 생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은유 표현 이해과정에 관한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머릿속의 개념 표상과 지식 구조를 연구하는 유용한 프레임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은유 표현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언어의 이해를 넘어서 그 사회의 인지양식과 개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eeman, M. (1998). Coarse semantic coding and discourse comprehension. In M. Beeman & C. Chiarello (Eds.), *Right hemisphere language comprehension: Perspectiv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pp. 255-28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lasko, D. G., and Connine, C. M. (1993). Effects of familiarity and aptness on metaphor process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19, 295-308.
- Bottini, G., Corcoran, R., Sterzi, R., Paulesu, E., Schenone, P., Scarpa, P., Frackowiak, R.S., & Frith, C.D. (1994) The role of the right hemisphere in the interpretation of figurative aspects of language. A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ctivation study. *Brain*, 117, 1241-53.
- Boulenger, V., Hauk, O., & Pulvermüller, F. (2009). Grasping ideas with the motor system: semantic somatotopy in idiom comprehension. *Cerebral Cortex*, 19(8), 1905-14.
- Bowdle, B. F., & Gentner, D. (2005). The career of metaphor. *Psychological Review*, 112, 193-216.
- Desai, R. H., Binder, J. R., Conant, L. L., Mano, Q. R., & Seidenberg, M. S. (2011). The neural career of sensory-motor metaphor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3(9), 2376-2386.
- Gibbs, R. W. (2003). Embodied experience and linguistic meaning. *Brain and language*, 84(1), 1-15.
- Glucksberg, S. (1998). Understanding Metaphor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7(2), 39-43.
- Glucksberg, S. (2003). The psycholinguistics of Metaphor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2), 92-96.

- Rapp, A. M., Leube, D.T., Erb, M., Grodd, W., & Kircher, T.T.. (2007) Laterality in metaphor processing: lack of evidence from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r the right hemisphere theory. *Brain and Language*, 100(2), 142-9.
- Schuil, K. D. I., Smits, M. & Zwaan, R.A. (2013) Sentential context modulates the involvement of the motor cortex in action language processing: an fMRI study.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7:100.
- Thibodeau, P.H., & Boroditsky, L. (2013). Natural language metaphors covertly influence reasoning. *PLoS ONE* 8:
- Traxler, M. J. (2023). Nonliteral language processing. I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understanding language science*. (pp. 271-302). Wiley Blackwell.
- Vanpaemel, W., & Storms, G. (2008). In search of abstraction: The varying-abstraction model of categoriza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5, 732-749.
- Wilson N.L., & Gibbs R. W. (2007). Real and imagined body movement primes metaphor comprehension. *Cognitive Science*, 31(4), 721-31.
- Yee, E., Thompson-Schill, S. L. (2016). Putting concepts into context.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3, 1015-1027.

# 실험언어심리학자가 본 개념적 사상 이론

최원일  
(광주과기원)



# 실험언어심리학자가 본 개념적 사상 이론

최원일 (광주과기원)

지금까지 이 책을 읽는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독자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고 싶다.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은유 표현’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자동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시의 표현 몇 가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대중가요의 가사 몇 줄 역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독자들께서는 어떤 은유를 얼마나 빨리 떠올리셨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유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은유적 표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이다. 은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metaphor는 그리스어 metaphora에서 왔는데, 이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며, 주로 문학적으로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修辭)적 장치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필자가 은유의 예시를 떠올리기 위해 예전에 배운 문학작품을 머릿속으로 검색한 것은 앞서 밝힌 은유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인 듯하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은유는 이렇게 문학작품이나 예술

의 영역과 같은 특수한 범위에서 수사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은유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한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문은 항상 열려있어.’라는 말을 종종 한다. 이때 문은 문자적인 의미의 문(門)이라기 보다는 귀 혹은 마음 등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은유의 예는 사실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고,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된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일상 언어에서의 은유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대표적인 학자는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sup>1</sup>이다. 레이코프는 전통적인 언어 이론이 보는 은유 표현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실제로 은유 표현은 일상 언어와 양립할 수 있으며 상호배타적이지도 않음을 지적한다(Lakoff, 1993). 그는 은유 표현의 생성과 사용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개념 간 연결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한다. 그러면 레이코프의 은유의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하여 조금만 더 살펴보자.

## 개념적 사상 이론(Conceptual Mapping Theory)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글을 쓴 목적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개념적 사상 이론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지언어학에 기반을 둔 개념적 사상 이론을 언어심리학 혹은 언어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례, 혹은 타학문으로의 적용 등은 최소한으로 기술하고 이 이론의 요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개념적 은유의 구체적인 사례는 박만규 교수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유에 관한 개념적 사상 이론에서는 은유를 언어적 표현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의 사고 과정으로 규정한다. 즉, 은유가 발생하는 지점은 언어 수준이 아닌 그 심층의 사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개념적 사상 이론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Lakoff & Johnson, 1980). 개념적 사상 이론에 따르면 이 은유는 단순히 시간과 돈이 가진 속성의 단편적 유사성을 발견하여 이 둘을 창의적으로 연결한 언어적 표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이는 돈이라는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에 관해 생각하거나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 둘의 연결이 본질상 개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좀 내 달라’, ‘시간을 쓰다’ 등의 은유 표현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과 ‘낭비하다’, ‘쓰다’와 같은 동사가 개념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은유는 개념과 돈이라는 개념의 연결, 즉 사상(寫像, mapping)을 통해 일어난다. 이를 언어학적 용어를 빌려 설명하면, 은유를 통해 설명하려는 대상 개념을 목표(target)영역이라 하고, 설명을 위해 사용한 개념을 근원(source)영역이라 한다. 앞의 예에서는 시간이 목표 영역의 개념이고, 돈이 근원영역의 개념이 된다.

은유가 본질적으로 개념들 사이의 연결임을 이해했다면 조금 더 나아가보자.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를 개념적 특성에 근거하여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방향적(orientational) 혹은 공간적(spatial) 은유이고, 둘째는 구조적(structural) 은유, 셋째는 존재론적(ontological) 은유이다. 방향적 은유는 근원영역의 개념이 세상의 공간적 조직화, 자신의 몸의 공간적 표상,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은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행복은 위’와, ‘슬픔은 아래’와 연결 짓는데,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만, ‘기분이 좋아서 땅으로 꺼질 것 같아.’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또한 ‘기분이 최고(最高)’라는 표현을 쓰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도 흔하게 쓴다. 즉, 목표영역을 공간 개념을 가진 근원영역에 사상하는 것이다. 구조적 은유는 근원영역의 개념이 목표영역의 개념과 구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은유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인생은 여행이다’, ‘논쟁은 전쟁이다’ 등의 은유가 이

러한 구조적 은유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실체나 물질로 바라보는 은유를 말한다. 이 글의 맨 첫 문장에서 사용한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이나 바로 위 문단에서 예시로 사용한 ‘시간은 돈이다’와 같은 은유가 바로 이 존재론적 은유의 범주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완전히 상호배타적이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 어떤 은유는 하나의 범주에만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다.<sup>2</sup>

이제 은유가 언어 표현의 차원을 넘어서 사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정신 과정이며, 개념 사이의 연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유의 경험적, 체화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나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로 든 ‘행복은 위’와, ‘슬픔은 아래’ 은유를 다시 한번 은유의 경험적 속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기쁨이나 행복 등의 감정을 경험했을 때는 폴짝폴짝 뛰거나, 장롱에 켜켜이 쌓아놓은 이불 위든 조금 위험해 보이는 서랍장이나 식탁 위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쁨을 만끽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경기를 역전하는 만루 홈런을 친 야구선수나, 승부차기의 결승 골을 넣은 축구 선수, 42.195km의 대장정을 마친 마라톤선수도 그 기쁨을 표현할 때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양팔을 하늘로 올리는 등 몸의 무게 중심을 위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시상식 장면을 본 독자들이라면 금메달을 딴 선

수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반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생각해보자. 보통은 누워 있거나 쭈그리고 앉아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결국 은유는 이러한 경험과의 상관성 혹은 체화적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레이코프를 비롯한 인지언어학자들은 주장하며 이처럼 경험과의 상관성에서 직접 발생하는 은유적 사상을 일차적 은유(primary metaphor)<sup>3</sup>라고 명명하였다(Dancygier & Sweetser, 2014; Lakoff & Johnson, 1999).

### 개념적 사상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 과학적 연구 결과들

우리는 앞 절에서 은유의 개념적 사상 이론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며, 이 이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간의 다양한 언어 사용의 예에서 찾아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인간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한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언어 정보처리 과정에 개념적 사상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념적 사상 이론이 실시간 언어 정보처리 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엄밀한 경험 과학적 연구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언어심리학적 연구를 알아보자. 언어심리학이란 인간의 언어 이해, 산출, 습득의 정보처리 과정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주로 특정 언어 정보처리 관련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 시간이나 오류 등을 분석하여 인간의 실시간 언어 처리 과정을 추론한다. 예를 들어, 언어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과제로 어휘 판단 과제가 있는데, 이는 주어진 문자열이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과제이다. 주어진 문자열이 ‘책상’이었다면 이는 단어이기에 단어 버튼을 눌러야 하고, ‘책송’이라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단어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때 주어진 문자열의 언어적 속성을 조작(manipulation)하면 우리가 단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책상’과 같은 단어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빈도 단어인데, 이를 ‘화료’와 같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저빈도 단어와 비교하면, ‘책상’에 대해서 어휘 판단 시간도 짧고 더 정확한 반응을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어휘 정보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은유 정보처리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언어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중에서 개념적 사상 이론을 지지하는 언어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자.

레이몬드 깁스(Raymond Gibbs)와 동료들은 영어의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은유 정보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깁스(Gibbs)와 오브라이언(O'Brien)이 1990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 이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관용 표현(예, spill the beans-비밀을 누설하다)을 제시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심적 이미지를 떠올려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험 참여자는 심적 이미지에 관해 설명한 후,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실험 참여자가 술에서 수많은 콩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콩을 다시 술에 주워 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실험 참여자가 묘사한 심적 이미지의 인과성, 의도성, 방법, 결과, 가역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험 결과 의미가 유사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관용적 표현들이 불러일으키는 심적 이미지가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비밀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들(spill the beans, let the cat out of the bag, blow the whistle, blow the lid off, loose lips)의 경우 각 표현으로부터 떠올리는 심적 이미지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달랐지만 그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용기(用器)의 뚜껑이 열려있고, 그 내용물이 어떤 힘에 의하여 밝혀지고 드러나는 이미지를 형성하였는데, 그 힘이 전달되는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으며, 흘러나오거나 밝혀진 이 내용물은 원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깁스와 동료들은 각 표현으로부터 구체화된 이미지는 각기 다르겠지만, 구조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용 표현의 이해를 위해 개념적 사상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Gibbs & O'Brien, 1990).

깁스와 동료들은 이러한 개념적 사상이 관용적 표현의 실시간 이해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다(Gibbs, Bogdanovich, Sykes, & Barr, 1997). 이 연구의 한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하나의 짧은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글이었는데, 마지막 문장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조건은 관용 표현이 담긴 문장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첫째 조건의 관용 표현과 의미는 같지만, 이를 문자적으로 다시 쓴 문장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통제 조건으로 앞의 두 조건과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이러한 글을 읽은 후 바로 어떤 문자열이 제시되는데 실험 참여자는 그 문자열이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의 글과 다음 나오는 문자열이 서로 은유적 의미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의 글의 마지막 문장이 'blow your stack(분통이 터지다, 화가 많이 난다를 뜻하는 관용 표현)'이라는 표현으로 끝났을 때, 다음 나오는 문자열이 이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단어(예, heat)일 수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 lead)가 올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념적 사상 이론에 따르면 'blow your stack(분통이 터지다)'이라는 관용 표현은 '분노는 그릇에 담긴 가열된 액체'<sup>4</sup>라는 개념적 은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험 참여자들은 'blow your

stack'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 표현과 관련된 개념적 은유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그다음 나오는 문자열이 heat 일 때가 lead일 때에 비하여 반응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 분노와 관련된 관용 표현(He blew his stack)으로 마치는 글을 읽은 후, 관련 목표 단어(heat)에 대한 반응 시간이 무관한 목표 단어(lead)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개념적 은유를 빠르게 활성화하여 관용 표현의 즉시적 이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개념적 사상이 실시간 언어 정보처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개념적 사상 이론을 지지하는 실험심리학적 증거(Gibbs et al., 1997; Gibbs & O'Brien, 1990)와 함께, 은유의 체화적 속성<sup>5</sup>을 보여주는 실험 연구의 예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개념적 사상 이론의 주요한 주장 중 하나는, 은유는 체화된 경험 즉 감각 운동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Gibbs, 2006; Lakoff & Johnson, 1999). 앞 절에서 이야기한 '행복은 위' 은유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흥미로운 연구를 알아보자. 이 방향적 은유는 사실 다른 경험들과도 상관을 가지기 때문에, '많음은 위', '힘은 위', '활동적 기능은 위' 등의 개념적 사상으로 확장되고, 결국 '좋음은 위'라는 개념적 은유로 통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에 관한 개념은 어떨까?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God)을 '세상의 빛'이나 '아버지'로 비유하고, 악

마(Devil)를 ‘어둠의 권세’나 ‘뱀’으로 비유하곤 하였다. 이러한 은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직 공간에서 ‘신은 위’에 있다는 개념적 은유이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신이 천국(天國)에 산다는 표현을 즐겨 하며, 가톨릭교회의 미사에서는 6세기부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불러왔다(Meier, Hauser, Robinson, Friesen, & Schjeldahl, 2007). 마이어(Meier)와 동료들은 신에 관한 표상이 심층적인 수준에서 수직적인 공간에 개념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sup>6</sup>를 이용하여 신과 악마의 개념이 각각 위, 아래와 암묵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신(God)과 관련된 단어를 범주화하는 경우 위(up)와 관련된 단어들과 짝을 이룰 때 반응 시간이 더 빨랐고, 악마(Devil)와 관련된 단어를 범주화할 때는 아래(down)와 관련된 단어들과 짝을 이룰 때 더 빨랐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신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더 컸다.

마이어와 동료들 연구(2007)의 첫 번째 실험이 신과 악마에 관한 암묵적인 개념이 수직적 공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결과라면, 이후의 실험들에서는 실제 신 혹은 악마와 관련된 개념을 인지적으로 처리할 때 수직적 공간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한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들은 간단한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컴퓨터 스크린 가운데

데 보이는 고정점을 응시하다가 창조자와 같은 신 관련 단어 혹은 사탄과 같은 악마 관련 단어가 화면의 위 혹은 아래에 제시된다. '신은 위'라는 개념적 사상이 체화된 속성에 의해 단어 인지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서 볼 때, 만약 신과 의미상으로 관련된 단어가 암묵적으로 혹은 자동으로 위(up)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위(up)의 개념을 활성화한다면, 실제 단어가 화면의 위에 제시될 때가 아래에 제시될 때보다 이를 인식하는 시간이 빠를 것이다. 이 실험 결과, 신과 관련된 단어는 화면의 위쪽에 제시될 때가, 악마와 관련된 단어는 화면의 아래쪽에 제시될 때가 단어 인식의 속도가 더 빨랐다. 이 연구의 추가 실험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제시된 그림의 위치를 기억하여 인출할 때 역시 신과 관련된 이미지를 화면 위쪽에 나타낼 때가 화면 아래쪽에 제시할 때보다 더 나은 기억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은유의 개념적 사상이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체화된 경험이 이러한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체화된 인지와 개념적 은유 사이의 관계를 감각 및 운동의 경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조슈아 애커만(Joshua Ackerman)과 동료들은 촉감 경험이 어떻게 은유적 이해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명한 학술지인 「Science」에 게재된 이 연구에서 애커만과 동료들은 촉감 경험이 사회적으로 애매한 자극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서적

으로 애매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짧은 글을 하나 읽은 후에 이 글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본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글에서 묘사된 사람들이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이며 토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며 논쟁을 하는 것인지 평가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글 속의 사람들 관계가 서로 친한 사이인지 아니면 사무적인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실험의 백미는 이 글을 읽기 바로 전 실험 참여자들이 수행한 과제에 있었다. 이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두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다섯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퍼즐의 표면이 사포로 만들어져 있어서 참여자들이 까칠까칠한 촉감을 경험하도록 했고, 두 번째 조건은 같은 퍼즐의 표면이 사포로 쌓여 있지 않아서 참여자들은 부드러운 촉감을 경험하였다. 외견상 보기에는 퍼즐을 맞추는 일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험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까칠까칠한 촉감을 경험한 집단은 부드러운 촉감을 경험한 집단보다 퍼즐 과제 후 읽은 글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더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라고 묘사하였다.<sup>7</sup>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 결과를 체화된 경험으로부터 활성화된 개념적 사상의 관점에서 설명한다(Ackerman, Nocera, & Bargh, 2010). 인간의 촉감 경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 개념적 지식 습득을 위한 일종의 비계(scaffold) 역할을 한다(Williams,

Huang, & Bargh, 2009). 결국 은유라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 경험과 개념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촉감 경험을 활성화하면 이와 은유로 연결된 개념적 지식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포를 만짐으로써 경험되는 까칠까칠함은 인간의 성격이나 인간관계의 까칠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기 모호한 상황을 편향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화된 인지를 바탕으로 한 은유의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한 뇌 영상 연구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뇌과학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자. 왜냐하면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이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사항은 특정 행동과 뇌신경 상관물의 관계는 상관이지 인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A라는 행동에 관여하는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 영역이 A라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A라는 행동과 그 뇌 영역의 활성화가 함께 일어났던 것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인 활성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뇌 영상 연구에서 특정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은 가만히 잠자고 있던 뇌가 갑자기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뇌는 항상 일하고 있다. 여기서 활성화는 대조군에 비해서 그 영

역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유 표현을 이해할 때 특정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라는 말은 은유 표현을 이해할 때가 다른 비교 조건(문자적 의미의 표현을 이해하는 조건)에 비해 해당 영역에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뇌 영상 결과 해석 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대목은 활성화된 뇌 영역 자체보다는 어떤 비교 조건이 사용되었는가이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sup>8</sup>

개념적 사상 이론의 한 특징인 은유의 체화를 살펴본 뇌 영상 연구들은 주로 감각-운동 은유 문장과 문자적 의미 문장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루트빅 드사이(Rutvik Desai)와 동료들은 은유 의미 문장(예: The jury grasped the concept.), 문자 의미 문장(예: The daughter grasped the flowers.), 통제 문장(예: The jury understood the concept.)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비교하였다. 은유 의미 문장과 문자 의미 문장은 통제 문장과 비교하여 좌뇌의 전측 하 두정엽(anterior inferior parietal lobe, aIPL)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Desai, Binder, Conant, Mano, & Seidenberg, 2011; Desai, Conant, Binder, Park, & Seidenberg, 2013). 좌뇌의 aIPL이라는 영역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행동을 계획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Binkofski, Klann, & Caspers, 2016). 즉, 우리가 ‘grasp’이라는 동사가 은유 의미로 사용될 때도 실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드사이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얻은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직접적인 운동 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인 일차 운동 피질(primary motor cortex)의 활성화 정도는 은유 의미의 친숙도와 부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은유일수록 일차 운동 피질의 활성화가 많이 나타나고, 친숙한 은유일수록 이 영역의 활성화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은유가 관습화되기 전에는 의미 이해를 위해 감각 및 운동 관련 뇌 영역이 더 활발하게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드사이(Desai, 2022)는 은유 정보처리 시 체화적 속성의 관여를 살펴보는 뇌 영상 실험들에 관한 개관 연구에서, 촉감(Lacey, Stilla, & Sathian, 2012), 신체 부위(Lacey et al., 2017), 움직임(Chen, Widick, & Chatterjee, 2008), 맛(Citron & Goldberg, 2014) 등과 관련된 은유 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감각 운동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념적 사상 이론의 체화적 속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실험언어심리학적 관점**

우리는 지금까지 개념적 사상 이론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지지하는 언어심리학 및 뇌과학 분야의 경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를

실험언어심리학적 관점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Gibbs et al., 1997; Gibbs & O'Brien, 1990), 개념적 사상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실시간 언어 정보처리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유 표현을 이해할 때 관련된 근원영역의 개념들을 항상 활성화해야만 할까? 이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경험 연구 결과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글루크스버그와 맥글론은 대학생들이 '사랑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사상을 사용하여 사랑에 대한 은유를 해석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들은 사랑에 관한 은유를 해석할 때 여행의 개념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lucksberg & McGlone, 1999). 또한 우리가 앞 절에서 살펴본 개념적 사상이 실시간 언어 이해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었다(Boronat, 1990; Genter, Bowdle, Wolff, & Boronat, 2001; Keysar, Shen, Glucksberg, & Horton, 2000). 실제로 개념적 사상이 실시간 언어 이해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한 김스와 동료들(1997)조차도 이러한 발견은 특정한 상황에만 나타날 수 있음을 자신들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정보처리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관용 표현과 개념적 은유 사이의 강한 연결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용 표현의 실시간 이해를 위해 이러한 개념적 사상을 항시 자동으로 활성화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이미 관습화된 은유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나에게 화가 잔뜩 난 친구가 ‘아, 정말 뚜껑 열리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늘 ‘분노는 그릇에 담긴 가열된 액체’라는 개념적 은유를 떠올려야 할까? 이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재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처럼 개념적 사상이 관습적 은유 표현 혹은 관용 표현의 실시간 정보처리에 항상 관여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개념적 사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손쉽게 이해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물론 개념적 사상이 해당 표현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관습적 은유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은유 표현을 만들 때 잘 알려진 개념적 사상과 배치된다면 실시간 정보처리에 방해가 된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개념적 사상이 실시간 정보처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Boronat, 1990; Keysar et al., 2000). 하지만 새로운 은유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유사성을 계산한다는 입장은 개념적 사상 이론이 아닌 은유 이해의 유추적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Gentner et al., 2001).<sup>9</sup>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하여 실험언어심리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측면은 체화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 사실 체화적 속성은 비단 은유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전반에 걸쳐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라는 개념으로 많

이 소개되었으며, 정보의 추상화라는 기존 인지과학의 정보처리 이론의 대항마로 여겨진다. 앞 절에서 소개한 뇌 영상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체화된 인지의 관점은 인간의 의미 지식 표상이 감각 및 운동 정보처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이러한 감각 및 운동 표상이 없이는 인간의 지식 표상 자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념적 사상 이론의 주창자들은 인간의 감각 운동 경험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지식 표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Gallese & Lakoff, 2005). 이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은유 이해의 체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행동 및 뇌 영상 연구의 결과들이다(Ackerman et al., 2010; Desai et al., 2011; 2013; Meier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부터 은유 이해가 본질적으로 체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애커만과 동료들(2010)의 연구를 재검토해 보자. 사포 재질의 퍼즐을 맞춘 뒤에는 어떤 관계라고 규정하기 모호한 인간관계가 등장하는 글을 읽고 그 관계가 서로 꺾끄러운 관계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과를 은유의 체화적 속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꺾끄럽다’, ‘까칠하다’라는 단어는 다의어(polysemy)이다. 이러한 단어들에는 물리적 재질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추상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 두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커만과 동료들의 결과는 사포와 같은 까칠까칠한 표면을 만진 촉각 경험이 은유적 사상에 의해 인간관

계를 유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더 간단하게, 단어의 물리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 사이의 활성화 확산(spreading activation), 즉, 문자적 의미의 연결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드사이와 동료들(2011)의 뇌 영상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은유 표현의 친숙도가 증가할수록 일차 운동 피질과 운동 지각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은유 표현의 이해를 위해 감각 및 운동 경험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은유 문장은 통제 문장에 비해 좌뇌의 중측 측두구(middle temporal sulcus)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나타냈다. 이 영역은 우리 뇌 안에서 대표적인 의미 표상의 허브, 즉 추상적 의미 지식의 저장 및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은유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처리하는 뇌 영역의 관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개념적 사상 이론의 체화적 속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해야 하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된 경험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체화적 속성에 관한 경험 연구 결과들은 무척 흥미롭고 기발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반복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쉽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 마이어와 동료들의 2007년 연구도 같은 연구진이 수행한 반복 검증 연구에서 몇 가지 실험 결과는 반복 검증에 실패하였고(Meier, Fetterman, Hauser & Robinson, 2021), 애커만과 동료들의 2010년 연구 역시 첫 번째 실험이 두 차례나 반

복 검증에 실패하였다(Beek et al., 2018; Carmerer et al., 2018). 물론 반복 검증의 실패 자체가 원래의 연구가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실험의 연구 결과는 통계적 의사결정 오류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반복 검증의 실패는 오히려 더 나은 연구 결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념적 사상 이론의 체화적 속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개념적 사상 이론을 평가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문제임엔 틀림없다.

### **짧은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시작할 때 필자가 독자들께서 독서의 여정 중이라는 은유 표현을 사용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독자들께서 또 다른 흥미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실 수 있도록 이 문단을 마지막으로 개념적 사상 이론에 관한 짧은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개념적 사상 이론은 분명히 인간이 은유를 습득하고 창조하고 처리하는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언어학적 이론이다. 이는 언어과학 분야를 넘어서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에도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파급력과는 별개로, 개념적 사상 이론의 주요한 언어학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를 지지하는 실험 증거들을 보여주고, 또 이 증거들을 실험언어심리

학자의 안경을 쓰고 비판적으로 자세히 검토하였다. 아주 짧게 검토 결과를 정리한다면, 개념적 사상 이론이 인간의 은유 이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임은 분명하지만, 맹목적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 이제 어느덧 종착역이다. 이미 눈치채신 독자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문단에서는 유독 ‘독서는 여행’ 혹은 ‘이해 과정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사상이 활성화되는 은유를 일부러 많이 사용하였다.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이 글을 쓴 필자의 전반적인 의도가 이 은유들을 통해 풍부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답하고 싶다. 이제 여행을 마친다.

## 미주

- 1 조지 레이코프(1941~)는 이 글의 주제인 은유에 관한 개념적 사상 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이자 언어철학자이다. 레이코프는 마크 존슨(Mark Johnson)과 공동 작업한 저서인 『살아있는 은유(Metaphors We Live By)』(1980)에서 이 이론을 처음 주창하였으며, 이는 언어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이론을 정치학의 영역에 적용하여 보수와 진보의 은유적 언어 혹은 사고 체계를 분석한 저서들을 통해서였다. 레이코프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창시한 인지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사실 그의 스승이자 현대 언어학의 대부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의 생성 문법론에 반기를 들며 태동했다는 점이다. 생성 문법론과 생성 의미론(인지언어학)의 격렬했던 논쟁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랜디 해리스(Randy A. Harris)가 쓴 『The Linguistics Wars: Chomsky, Lakoff, and the Battle over Deep Structure』(2021)를 참고하기 바란다.
- 2 개념적 은유의 구분은 이 책 박만규 교수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3 일차적 은유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일차적 은유를 만드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일차적 장면(primary scene)이라 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경험과 주관적 평가 사이의 강한 상관성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많은은 위'라는 개념적 사상을 위해서는 그릇에 담긴 액체의 양이 많아지는 것과 액체의 높이가 상승한다는 주관적 평가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Dancygier & Sweetser, 2014; Grady, 1997, 1998; Johnson, 1997).
- 4 이와 같은 개념적 사상이 적용된 언어 표현은 영어에서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열을 받는다.', '머리에서 김이 난다.', '뚜껑이 열린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은 모두 분노 감정과 연결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영어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
- 5 체화적 속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 책 이운형 교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 6 암묵적 연합 검사는 사람들의 특정 개념이나 대상에 관해 가지고 있는 암묵적, 무의식적 표상 혹은 고정 관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사회심리학 분야

에서 상당히 널리 사용되는 검사이다. 다양한 사물이나 개념에 관한 본인의 무의식적 고정 관념을 알아보고 싶은 독자라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https://implicit.harvard.edu/implicit/korea/>. 이 링크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진에서 제공한 링크로, 한국어로 암묵적 연합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데, 현재(2024년 3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암묵적 연합 검사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만 검사를 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 7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두 촉감 경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 8 은유 정보처리와 뇌 활성화의 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 책 백은주 교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 9 은유 정보처리에 관한 유추 이론이나 범주화 이론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보기 원한다면 필자가 고등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호라이즌」에 기고한 다음 링크의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s://horizon.kias.re.kr/26427/> (은유 정보처리의 인지과학)

## 참고문헌

- Ackerman, J. M., Nocera, C. C., & Bargh, J. A. (2010). Incidental haptic sensations influence social judgments and decisions. *Science*, *328*(5986), 1712-1715.
- Beek, T. F., Matzke, D., Pinto, Y., Rotteveel, M., Gierholz, A., Verhagen, J., ... & Wagenmakers, E. J. (2018). Incidental Haptic Sensations May Not Influence Social Judgments: A Purely Confirmatory Replication Attempt of Study 1 by Ackerman, Nocera, and Bargh (2010). *Journal of Articles in Support of the Null Hypothesis*, *14*(2).
- Binkofski, F. C., Klann, J., & Caspers, S. (2016). On the neuroanatomy and functional role of the inferior parietal lobule and intraparietal sulcus. In G. Hickok & S. Small (Eds.), *Neurobiology of Language*. Academic Press.
- Boronat, C. B. (1990). *Effects of base shift and frequency in extended metaphor proces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hampaign, IL.
- Camerer, C. F., Dreber, A., Holzmeister, F., Ho, T. H., Huber, J., Johannesson, M., ... & Wu, H. (2018). Evaluating the replicability of social science experiments in Nature and Science between 2010 and 2015. *Nature Human Behaviour*, *2*(9), 637-644.
- Chen, E., Widick, P., & Chatterjee, A. (2008). Functional-anatomical organization of predicate metaphor processing. *Brain and Language*, *107*(3), 194-202.
- Citron, F. M., & Goldberg, A. E. (2014). Metaphorical sentences are more emotionally engaging than their literal counterpart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6*(11), 2585-2595.
- Dancygier, B., & Sweetser, E. (2014). *Figurative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sai, R. H. (2022). Are metaphors embodied? The neural evidence. *Psychological Research*, 86(8), 2417-2433.
- Desai, R. H., Binder, J. R., Conant, L. L., Mano, Q. R., & Seidenberg, M. S. (2011). The neural career of sensory-motor metaphor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3(9), 2376-2386.
- Desai, R. H., Conant, L. L., Binder, J. R., Park, H., & Seidenberg, M. S. (2013). A piece of the action: Modulation of sensory-motor regions by action idioms and metaphors. *NeuroImage*, 83, 862-869.
- Gentner, D., Bowdle, B., Wolff, P., & Boronat, C. (2001). Metaphor is like analogy. In D. Gentner, K. J. Holyoak, & B. N. Kokinov (Eds.), *The analogical mind: Perspectives from cognitive science* (pp. 199-253). Cambridge, MA: MIT Press.
- Gibbs, R. W., Jr. (2006). *Embodiment and cognitive scien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Jr, R. W., & O'Brien, J. E. (1990). Idioms and mental imagery: The metaphorical motivation for idiomatic meaning. *Cognition*, 36(1), 35-68.
- Gibbs, R. W., Bogdanovich, J. M., Sykes, J. R., & Barr, D. J. (1997). Metaphor in idiom comprehens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7(2), 141-154.
- Grady, J. (1997). *Foundations of meaning: Primary metaphors and primary scen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rady, J. (1998). The "conduit metaphor" revisited: A reassessment of metaphors for communic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Bridging the gap*, 205-218.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Harris, R. A. (2021). *The linguistics wars: Chomsky, Lakoff, and the battle over deep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Keysar, B., Shen, Y., Glucksberg, S., & Horton, W. S. (2000). Conventional language: How metaphorical is i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3, 576-593.
- Lacey, S., Stilla, R., Deshpande, G., Zhao, S., Stephens, C., McCormick, K., ... & Sathian, K. (2017). Engagement of the left extrastriate body area during body-part metaphor comprehension. *Brain and Language*, 166, 1-18.
- Lacey, S., Stilla, R., & Sathian, K. (2012). Metaphorically feeling: comprehending textural metaphors activates somatosensory cortex. *Brain and Language*, 120(3), 416-421.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 Lakoff, G., & Johnson, M.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NY: Basic Books.
- Meier, B. P., Fetterman, A. K., Hauser, D. J., & Robinson, M. D. (2021). God is up? Replication and extension attempts of Meier et al.(2007).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5(4), 525-532.
- Meier, B. P., Hauser, D. J., Robinson, M. D., Friesen, C. K., & Schjeldahl, K. (2007). What's "up" with God? Vertical space as a representation of the div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699-710.
- Williams, L. E., Huang, J. Y., & Bargh, J. A. (2009). The scaffolded mind: Higher mental processes are grounded in early experience of the physical worl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7), 1257-1267.



# 과학과 은유, 생산적 활용과 위험

이상욱  
(한양대학교)



# 과학과 은유, 생산적 활용과 위험

이상욱 (한양대학교)

## 1. 전문가의 난감함을 우회하는 도구로서의 은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는 당연히 전문가의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 말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전문가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하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낯설어하거나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문제를, 자기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기에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틀린 점을 고쳐 주고 싶은 마음부터 들기 쉽다.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라든지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라는 식의 단호한, 그래서 듣는 상대방은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당연시하는 배경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왜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엉뚱한 질문을 하는지 자체를 답답하게 느끼기 쉽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과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어려운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라든지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문가의 난감함’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사이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그 분야를 넘어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적어도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종종 “왜 저 분야 사람들은 이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라든지, “아니 그 개념을 왜 저런 상황에 적용하지?” 등의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학문 공동체로 돌아와서 다른 분야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을 가벼운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경우도 많다. “아니 그 분야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더라고.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정도의 느낌이다.

물리학자들은 수학자들이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산 방식이 엄밀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할 때 당혹감을 느낀다. 도대체 여태까지 너무도 잘 사용하던 계산법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걸고넘어지는 수학자가 신기하기조차

하다. 수학자들이 ‘엄밀하지 않다고’ 비판한 수학으로 계산한 결과가 실험을 통해 아주 높은 정확도로 입증되었는데 그러면 별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동일한 당혹감을 수학자는 논리학자들에게서 느낀다. 귀류법과 같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학 증명 방법조차 거부하거나 수학적 증명이 완전 무결하다는 원론적 증거를 요구하는 논리학자들을 보면 수학자들도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연구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처럼 전문가의 난감함은 단순히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물리학자 출신의 유명한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잘 설명했듯이, 전문 분야마다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패러다임의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신이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의 지식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신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패러다임의 설명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이해하는 일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적고 대개는 말이 통하는 동료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당혹스러움을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다. 사실 현대 과학자들은 워낙 분야별로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에 사적인 모임을 제외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 외

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저쪽 분야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구하나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연구하네.’라고 정리하고 그 상황을 넘겨버리면 그만이다. 물론 다양한 패러다임 하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과학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철학자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된다.

다른 분야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에게 과학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학자들은 이런 난처함을 종종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차원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원을 낮춘 유비를 사용한다. 4차원 시공간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과학자 중에서도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수학을 통해 ‘개념적으로’ 4차원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 모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3차원 공간의 상황을 사용한다.

팽팽하게 당겨진 2차원 평면 천 한가운데에 놓인 무거운 공을 상상해 본 다음, 공 주위에서 운동하는 작은 공을 설정하는 식이다. 공의 무게 때문에 천이 잡아당겨져서 천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공간이

휘어지는 것에 대응), 그 근처를 지나던 공은 '마치(as if)' 무거운 공이 자신을 잡아당기는(중력에 대응) 것처럼 무거운 공 가까이로 진행 방향이 휘게 된다. 이렇게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여, 뉴턴역학에서는 실체, 즉 정말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무거운 질량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 상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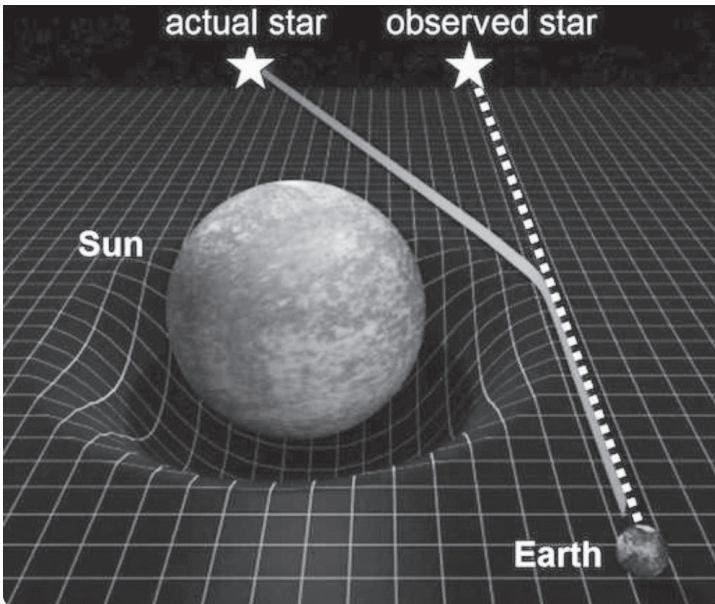


그림 1. 시공간의 휘어짐을 3차원 은유적으로 묘사한 그림

이런 설명은 물론, 시공간이 정말로 천이라거나, 4차원 시공간에 더해 질량을 가진 공이 아래로 끌어당겨져서 결국은 천이 아래로 처

지게 되는 방향에 해당하는 추가적 공간 차원이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 은유에서 천을 휘게 만드는 힘은 중력이다. 그러므로 이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중력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이 설명하려고 하는 일반 상대성이론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해서 시공간이 휘게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보다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 자체가 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휘어진’ 시공간의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는 각도상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별에서 나온 빛이 중력의 끌어당김으로 휘어져서 지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중력 렌즈’ 효과가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중력 렌즈’ 현상은 별에서 온 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져서 휘었다고 뉴턴 역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져서 별에서 온 빛이 그 휘어진 공간에서 최단 거리를 통과하게 되면서,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별에서 온 빛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 두 설명은 얼핏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면 뉴턴역학적으로 별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방식보다 시공간 자체가 휘어질 때 그 효과가 대충 두 배 더 크게 나온다. 아인슈타인은 이 차이에 주목하고 자신의 이론과 뉴턴역학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실험’으로 이 별빛 휘어짐 현상을 제시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천문학자

들은 아인슈타인이 옳았음을 개기일식 때 이루어진 관측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얻어냈다. 이처럼 과학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는 은유는 설명의 충실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은유가 원래 은유에 동원되는 대상과 은유가 목적하는 대상 사이의 완전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둘 사이에는 비슷한 부분과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은유의 본질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 은유는 은유의 속성상 그 은유의 모든 측면이 실제 물리 현상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물리학자들은, 과학이론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리된 수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자주 강조한다. 은유를 통한 설명은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과학 이론에 대해 ‘대강의 이해’를 얻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사용하는 불가피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과학에서 은유는 오직 과학 내용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에게, 앞서 지적한 여러 유사성의 한계를 감수하고라도 어려운 과학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만 유용성을 가지는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과학 연구 과정에서 은유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은유는 비전문가가 은유에만 의존해서 과학이론을 이해할 때 저지르는 잘못된 이해보다 더욱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 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자.

## 2. 과학에서의 은유의 생산적 활용

앞서 설명했듯이 과학에서 은유는 일반적으로 엄밀한 과학 내용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되는 언어적 도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과학 연구 과정에서 은유가 차지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유가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매우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과학자조차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나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해 늘 명확하게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가 완성되어 특정 현상에 대한 ‘표준적’ 설명이 과학자 공동체에서 합의되고 나면, 그 표준적인 설명이 종설(review) 논문이나 교과서를 통해 관련 과학자, 특히 새롭게 그 분야에 진입하는 신입 연구자들에게 공유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각 전문 분야 과학자들은 전문가들만이 공유하는 ‘이론적 직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적어도 그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상식’이 되기에 이런 상식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은유와 같은 간접적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문제는 첨단 과학연구의 경우, 즉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이런 상식적이고 표준적인 설명이 확립되지 않아 여러 경쟁하는 이론적 설

명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단서조차 없어서 연구자 공동체 전체가 암증모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들은 설명의 단초를 찾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때 다른 영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된 개념을 가져와서 자신이 풀려고 하는 분야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성취를 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대 인지과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인지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정보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식화한 클로드 샤논의 정보 이론에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두뇌를 정보처리 장치로 간주할 때 어떤 경험적 시사점이 있는지를 탐구했다. 밀러는 우리가 숫자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충 7을 경계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했다. 밀러가 보기에 우리는 7보다 작은 숫자는 이미지 전체를 일종의 시각적 패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subitizing)하는 반면, 7보다 큰 숫자는 하나하나 느리게 숫자를 세는(counting) 방식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숫자 인지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정보 처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그림 2. 조지 A. 밀러(1920~2012),  
인지과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

제시하는 과정에서 밀리는 수학자나 물리학자의 정보 개념을 그래도 가져다 쓰기보다는, 심리학이 문제를 정의하고 실험적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 개념을 ‘변형해서’ 사용했다. 다시 말하자면 밀리는 사논의 정보 개념을 ‘은유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Miller 1956, 이상욱 2011)

이처럼 과학자들이 첨단 연구 과정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개념을 은유적으로(즉, 일부 특징은 공유하지만 다른 영역이나 현상에 적용하기에 다른 특징에서는 차이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일은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종종 그런 ‘은유적 변형’의 결과는 밀러의 경우처럼 매우 성공적일 수 있으며 새로운 분야나 혁신적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 보다 더 잘 알려진 사례는 케쿨레의 벤젠 분자 구조 발견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벤젠의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찾던 케쿨레(August Kekule)가 꿈속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원형 이미지를 보고 이를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벤젠의 결합 구조를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물론 케쿨레의 경우 순전히 ‘운 좋은 꿈’ 덕분에 벤젠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과학사적으로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벤젠의 분자 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케쿨레였기에 이런 꿈으로부터 ‘은유적 변형’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은유는 당연히 만병통치

약은 아니지만, 밀러나 케쿨레처럼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고민을 하던 전문가들이라면 다른 분야의 개념이나 사고 방식으로부터 은유의 생산적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선 과학자들조차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유망해 보이는 접근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은유를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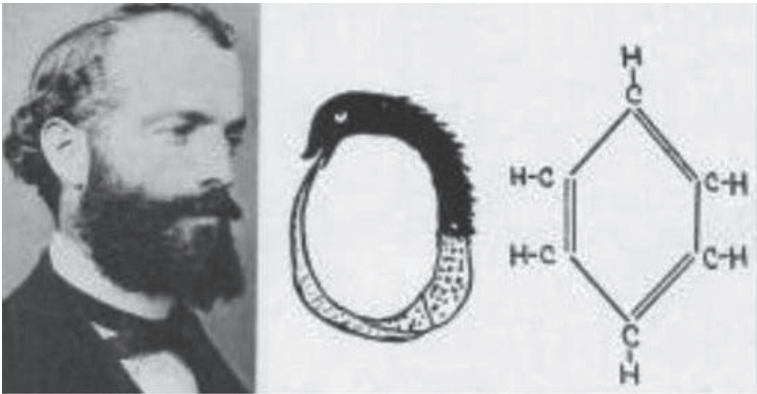


그림 3. 벤젠의 분자 구조의 핵심을 '자기 꼬리를 문 뱀' 꿈의 은유에서 착안한 케쿨레

이처럼 과학자들은 과학 연구 과정, 특히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활용하여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를 과학철학적으로는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에서 은유가 과학 연구에 생산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한다. 과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은유는 이처럼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은유의 역할을 '발견의 맥락'에만 국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Hesse 1966, Morgan and Morrison 1999)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에 따르면, 성숙된 과학은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가 수행된다. 예를 들어, 뉴턴 과학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보편중력의 법칙을 활용하여 천체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원칙적으로 이 설명 방식은 두 개 이상의 물체에 적용될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물체의 중력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섭동 혹은 건드림(perturbation)과 같은 다양한 근사 방법을 사용한다. 뉴턴역학 패러다임은 이밖에도 성공적으로 풀린 문제의 집합, 즉 모범사례(exemplar)의 집합을 제공하는데,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모범사례를 열심히 공부해서 패러다임의 연구방법론을 익히게 된다. 실제로 뉴턴역학을 한참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현상을 균형 상태에서 살짝 벗어난 조화진동자(harmonic oscillator)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익숙해지게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패러다임의 모범사례를 꾸준히 확장하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활동을 쿤은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칭했다. (Kuhn 2012)

그러므로 쿤의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모범사례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사이의 유사점을 찾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이는 많은 경우 모범사례의 여러 구성 요소를 '은유적' 혹은 '비유

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원래는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역학적 힘과 마찰력 등)에 따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미분방정식을 이번에는 전기 현상에 적용하여 전하에 작용하는 여러 힘(전자기력과 저항에 의한 비보존력 등)에 따른 전하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일에 성공하면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파악되던 역학 현상과 전자기 현상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보존력과 비보존력이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방식 등)에 주목할 수 있게 되고, 과학이론의 중요한 인식론적 성취인, 자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 은유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묶어내는 과정은, 과학적 창의성이 발휘되는 중요한 지점인 동시에 과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지 언어학자 레이코프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에 대해 생각할 때 부모의 자녀교육 방식에 은유하여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Lakoff 2016) 레이코프 연구의 출발점은, 왜 동일한 사실에 직면하고서도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전혀 다른 평가나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특정 정당 지지자의 지적 능력을 폄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는 것이다. 레이코프의 분석은 미국인들이 '양육하는 부모(nurturant parents)' 모형과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 모형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복지 정책의 정당성이나 동성애 결혼의 윤리성처럼 판

단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자 모두 자신이 동의하는 정교한 이론 체계를 차근차근 적용하여 이러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미국인에게 훨씬 친숙한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에 대한 서로 다른 ‘은유’에 기반하여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양육하는 부모’에 가까운지 아니면 ‘엄격한 아버지’에 가까운지만 판단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훨씬 쉬운 ‘어림규칙(heuristics)’이기 때문이다. 여러 인지심리학 연구를 통해 이제는 잘 알려졌듯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인지적으로 쉬운 ‘어림규칙’을 무의식적으로 먼저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어림규칙의 적용만으로 도달한 결론이 정말로 맞는지를 치밀하게 다시 점검해 보는 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합리화에 능하기에 일단 어림규칙을 통해 특정 결론에 도달하고 나면, 그 결론에 유리한 근거를 불리한 근거보다 더욱 쉽게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이를 입증 편향(confirmatory bias)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증 편향이 은유에서 시작한 판단을 확고한 정치적 신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레이코프의 분석은 미국인의 정치적 판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자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 과정은 은유나 어림규칙에 의존하여 빠르게 판단하는 시스템-1과 치밀하게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시스템-2를 혼용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스템-2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하기에, 인지적 노력이 덜 들고 직관적인 시스템-1에 의한 판단이 먼저 내려지게 된다. 시스템-1에 의한 판단이 항상 오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스템-1은 복잡한 인지 과정을 우회해서 많은 경우 올바른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인지 과정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1의 인지 과정에서 은유나 비유는 레이코프의 연구에서처럼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ahneman 2013)

하지만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치밀한 사고를 하는 사람의 전형이 아닌가? 그러므로 과학자에게 은유에 기반한 빠른 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물론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동료 평가를 통해 입증하고 다른 과학자를 설득하여 학계의 정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2의 사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연구의 최종 결과를 연구 초기에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 과학자도 사람인 이상 처음에 연구의 방향성을 잡고 이론을 전개해 나갈 영감을 얻는 과정에서는 시스템-1의 사고, 특히 기존 이론적 틀이 제공하는 은유의 활용이 매우 생산적이다. 이 점은 이미 앞서 설명한 여러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 ‘은유의 생산적 활용’은 연구 과정에서 특정 연구 방향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법론의 수준으

로 규범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뉴턴역학은 몇 가지 자연법칙만으로 우주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기에 뉴턴 이후 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뉴턴역학의 체계적 설명 방식에 고무된 과학자들은 인체의 생리적 현상이나 화학 작용 등 원래 뉴턴역학의 적용 범위가 아니었던 분야까지 뉴턴적 은유를 적용했다. 뉴턴적 은유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는 오직 그 '효과'만이 간접적으로 관측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수학적 방식으로 탐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은유는 18세기가 되면 체계화된 방법론으로까지 격상되었다. 이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를 '뉴턴주의 과학'이라 부르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방법론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점은 당시 과학자에게 뉴턴의 보편중력 법칙은 중력 현상을 넘어 다른 자연 현상을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연구 방식에 힘을 실어 준 중요한 은유였다는 사실이다.

뉴턴역학만큼 후속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저명한 유전학자 르완틴의 '삼중나선(triple helix)' 개념 역시 생산적 은유의 좋은 사례이다. (Lewontin, 2002) 르완틴은 생명체에 끼치는 유전자의 영향에만 집중하는 기존 분자생물학 연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으로 통칭되는 비유전적 요인이 생명체의 발생과 진화 과정에 끼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생명체, 유전

자,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DNA 이중나선이 아닌 ‘삼중나선’이라는 은유로 제시했다. 당연히 르완틴이 우리 몸의 유전자가 삼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의 다양성을 강조한 굴드의 ‘풀하우스(Full House)’ 은유처럼 (Gould 1997), 삼중 나선의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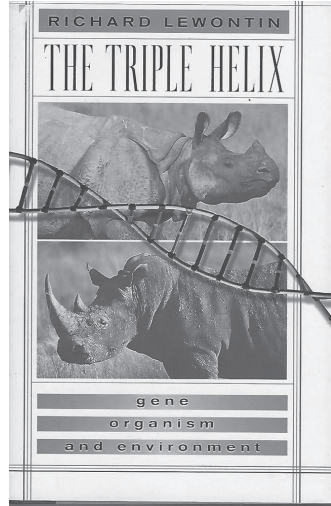


그림 4. 유전자-개체-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르완틴의 2002년 저서 표지

는 르완틴의 핵심 주장, 즉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과 비유전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생물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이중 나선’에 해당되는 유전자의 영향에 환경의 영향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는 생명 현상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구조적으로 서로 꼬여있는 ‘나선’ 은유는 생명체, 유전자,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대로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덕분에 ‘삼중나선’ 은유는 후생유전학(epigenetics)의 부상을 비롯한 보다 풍성한 발생학 및 생물학 논의에 상당한 지적 자극을 주었다. (Fox Keller 2010)

정리하자면 과학에서의 은유는 비전문가들에게 어려운 과학 내

용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한 부수적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과학 연구 과정에서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종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은유적 변형’을 통해 성공적으로 활용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쿤의 과학철학에 따르면 은유는 추상적으로 확립된 패러다임이 여러 영역에서 모범사례를 확장하면서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높여가는 ‘정상과학’ 활동에서 방법론적으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은유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특정 과학적 설명의 적절성을 ‘어림규칙’의 수준에서 인식론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에서 은유 사용은 다양한 의미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 그 위험성을 살펴보자.

### 3. 과학에서의 은유의 위험한 활용

은유는 정의상 은유하는 대상과 은유되는 대상 사이에 완전한 동일성이 아니라 부분적 동일성, 혹은 과학의 경우에는 ‘구조적 유사성’만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을 전자 인간이 지나가는 통로에 놓인 암석으로 묘사한다고 해서 전자 자체가 사람과 똑같다고 주장하거나 전기 저항이 암석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작용하는 방식이 마치 인간이 길을 갈 때 장

애물이 주는 어려움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부분은 ‘마치(as if)’와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이다. 앞서 쿤의 모범사례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풀고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익숙한 모범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변형시켜서 모범사례에 대한 해법을 다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상과학 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런 은유는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어렸을 때 읽었던 과학 만화에서 촉매를 설명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 고개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촉매라는 식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었다. 고개를 넘기 어려워하는 반응물 원자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밀어주는 촉매의 의인화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나중에 화학 반응에 대해 제대로 배우면서 대부분의 촉매는 반응 원자에게 에너지를 주어 높은 ‘고개’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위해 넘어야 하는 ‘고개’ 자체를 낮추어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해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촉매 반응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은유가 실은 촉매 반응의 핵심적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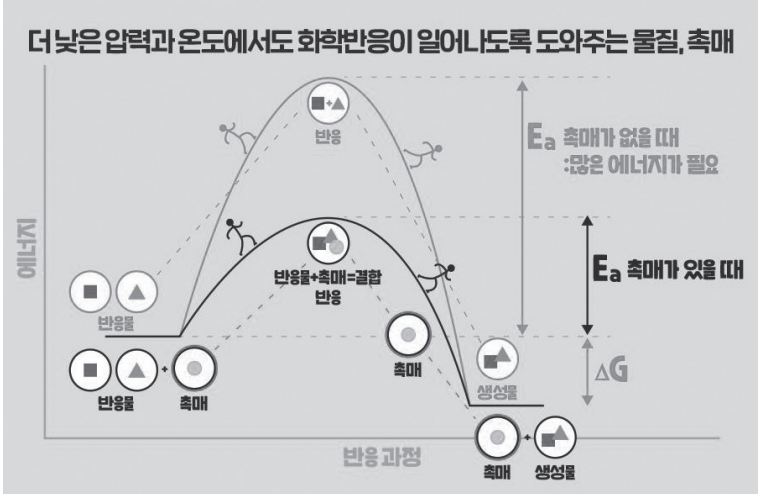


그림 5. 촉매가 화학반응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올바른 설명

이런 상황은 과학적 은유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때 단순한 오해를 넘어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과학은 일반인들에게 믿을만한 지식의 대명사로 인식되기에, 전문가 과학자가 특정 은유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은 채 확신에 차서 관련 과학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대표적인 예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 개념이다. 흔히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가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후대에 전달하는 운반체(vehicle)에 해당하는 인간을 이기적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생

명 진화 과정의 주역은 통상적으로 강조되는 생명체 혹은 유기체 (organism)가 아니라 복제를 통해 영원히 불멸하는 유전자이며, 인간과 같은 유기체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수동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유전자가 '이기적'이니 그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는 운반체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는 식의 생각도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도킨스는 1976년 초판이 나온 『이기적 유전자』 책에 대해,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불멸의 유전자(immortal gene)'였지만 출판사가 좀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제안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고백한다. (Dawkins 2016b) 유전자의 불멸성이 자신이 강조하고자 했던 책의 전체 주제를 더 잘 요약하기는 하지만, 유전자가 은유적인 의미에서 '이기적'이라는 점 역시 유전자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특징이었기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도킨스는 자신의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핵산 덩어리에 불과한 유전자가 진정으로 사람이 이기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두꺼운 『이기적 유전자』 책 전체에서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인간처럼 의도와 목적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은유라는 점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문장은 딱 한 번(254쪽에서) 등장한다.

(Dawkins 2016b) 즉,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이 유전자가 인간처럼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 유전자 풀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유전자는 ‘마치’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자신의 복제 유전자의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한 문장이 그 두꺼운 책에 딱 하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도킨스의 ‘원래 의도(?)’가 어떻게 도킨스의 주장을 유전자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기적이라고 읽는 독자를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의 후속작인 『확장된 표현형』에서는 인류의 제도와 문화까지 은유적으로 확장된 생명체의 표현형이 궁극적으로는 ‘유전자의 긴 팔’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이 은유적임을 명확히 밝혔다. (Dawkins 2016a) 또한 ‘이기적 유전자’ 은유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도킨스의 과학 은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훌륭한 은유라고 생각하는 ‘눈먼 시계공’의 은유와도 대비된다. 도킨스는 이 은유를 통해 진화가 작동하는 방식이, 심사숙고하여 미리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시계를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국소적 제한 조건하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적응도를 높일 방안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진화가 눈을 감은 채 시계를 조립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 ‘눈먼 시계공’에 대한 설명 역시 진화 과정에 있는 생명체들이 정말 눈을 감고 시계를 조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이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Dawkins 2010)

흥미로운 점은 ‘이기적’ 유전자 개념은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개념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다. 유전자와 경제적 인간 모두 좁게 정의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거나(유전자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경제적 인간의 경우) 행동한다. 이런 상황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실제로 진화생물학의 여러 모형들은 미시경제학의 여러 모형과 수학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이 있거나 내쉬 균형이나 파레토 최적 상태 등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맥락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에 이기적 유전자 개념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좁게 정의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은 유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므로, 이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이기적 유전자’ 개념은 도킨스가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그 개념이 관련된 진화생물학의 게임 이론적 접근과 신고전주의 경제학 모형의 유사성, 그리고 ‘이기적’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일반적인 직관 등과 맞물려, 이기적이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는 과학적 권위가 사회적 편견의 확산에 도움을 준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이 객관적인 과학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억지 주장에 동원된 사례이기도 하다. (이상욱 2017a)

이런 상황이 드물게 발생하는 특별한 것도 아니다.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과학자들은 ‘편집(editing)’이라는 단어가 제멋대로 짜깁기한다는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전자 편집은 최근 등장한 크리스퍼 기술처럼 올바른 유전자로 ‘교정’해주는 좋은 기술에 대한 번역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이 편집 대신 선택한 단어가 ‘가위’이다. 가위로 ‘나쁜’ 유전자 혹은 ‘잘못된’ 유전자를 싹둑 잘라내고 그 자리에 ‘좋은’ 유전자 혹은 ‘올바른’ 유전자를 교체해 넣는다는 은유를 자신들이 연구하는 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에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개념은 과학자들이 전략적으로 특정 은유를 부각시킨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기존의 1세대, 2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비해 비용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유전자 편집을 위해 요구되는 숙련도의 수준을 상당히 낮추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팀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많아지면서 기술적 진보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면, 인간 복제나 유전자 ‘맞춤 아기’처럼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유전자 편집 기술이 최근 급속하게 발전했다고 해도 그것이 100% 안전하거나, 편집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포유류의 유전자 편집 과정에서 모자이크 결과, 즉 유전자 편집의 결과가 대상 유기체의 세포마다 혼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서 너무나 일상적인 도구인 ‘가위’를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 수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역풍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관련 연구의 윤리적, 사회적 쟁점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 성과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보기에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이라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공식 용어를 놔두고 구태여 유전자 ‘가위’를 번역어로 고집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선택은, 과학적 은유를 사회적 위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sup>2</sup>

은유는 그 속성상 원래 성립하던 은유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어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죽은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언어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선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에서 은유는 매우 중요한

인식론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에는 일상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은유의 적절한 확장을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이나 대중매체 종사자들이 단기간의 선정적 효과를 위해 과학적 은유를 오용하거나 기존 사회적 편견과의 관련성을 애써 무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은유를 무리하게 활용하려 한다면, 그 은유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4. 과학과 은유, 철학적 코다

과학에서 은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전문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가 동원되기도 하며, 후속 연구자를 교육하는 맥락에서 해당 학문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론적 직관’ 혹은 패러다임을 전달하기 위해 은유를 활용하기도 한다. 보다 본격적인 연구 상황에서는 연구 초기에 해당되는 ‘발견의 맥락’과 과학 연구가 한창 진행되거나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인 ‘정당화의 맥락’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은유는 과학에서 매우 유용하고 생산적일 수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촉매에 대한 잘못된 은유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교육 맥락에서 내용상 틀린 은유는 오개념 형성으로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이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위험성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처럼 특정 과학이론의 핵심을 해당 분야를 넘어선 보다 넓은 맥락에서 확장하여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은유이다. 이런 은유는 종종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할 은유가 아니라 과학의 권위를 앞세워 '논박 불가능한 사실'로 제시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 이기적 유전자의 '행동'이 표준 경제학의 의미로 합리적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유사성까지 더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라는 무리한 주장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림 6. 남극의 아델리 펭귄

필자가 연구한 남극 아델리 펭귄의 교미 행위 중 특정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매춘'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핵심은, 이 사례까지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엄밀한 분석에서는 순수하게 학술적인 근거에서 '매춘'과 같

은 인간사회에 독특한 가치를 적재한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델리 암컷 펭귄이 짝 펭귄이 아닌 다른 수컷 펭귄과 가끔씩 교미를 하는 행동이 관측되었고 그 교미 전후에 일부 펭귄은 반듯한 돌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로부터 펭귄이 화대를 주고받으며 매춘을 제도화했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주장을 일부 과학자들은 종종 대중매체에서는 '은유'인 듯 아닌 듯한 방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해당 연구자에게 순간적인 주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과학 은유의 사회적 확장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욱 2010)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어려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학에 서의 은유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은유를 사용하여 엄밀한 과학 내용을 정당하게 확장하여 사회와 공유하는 것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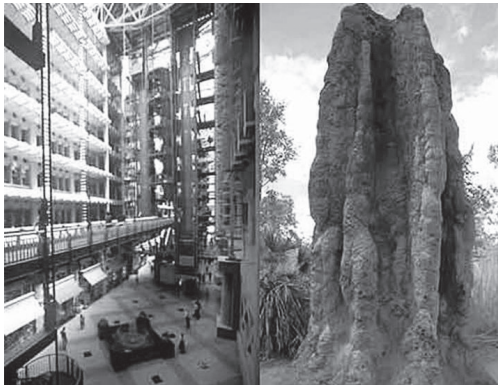


그림 7. 인간의 건축물과 흰개미의 '건축물'

이런 어려운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 답의 단초는 인류가 만든 건축물과 흰개미의 ‘건축물’을 나란히 제시한 앞선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두 구조 모두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더해 흰개미의 ‘건축물’은 인간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러 사회적 노력을 통해 도출한 건축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환기 시스템과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간 활용 등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흰개미가 인간 건축가들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설계도 작업을 하고 공사를 담당할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여 이런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즉 흰개미의 ‘건축물’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 건축물의 은유적 표현이다.

중요한 점은 은유적 표현은 은유로 연결된 두 개념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차이점에 주목하는 분석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인간의 문화나 제도를 분석하는 모든 개념은 철저하게 인간과 사회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자연물에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태도로 그런 개념들의 은유적 사용을 배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기성’이나 ‘매춘’처럼 인간적, 사회적 가치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적재된 개념을 별다른 설명 없이 마치 은유가 아닌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사용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한 방식은 특정 이론적 개념을 은유적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인간이 아닌 대상의 공통점을 포착

하는 동시에 그 차이점에도 주목하는 통합적 분석일 것이다. 그러므로 은유적 변형이나 확장을 통해 동일 개념으로 보다 넓은 영역의 현상을 포괄하려는 노력은 앞서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했듯이 많은 경우 생산적이고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종종 생산적이라는 사실이 은유의 간극, 즉 은유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구조적 유사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은유적 확장을 과학이 밝혀낸 ‘엄밀한 사실’로 포장하여 제시하는 오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람직한 삶을 위해 강조했던 증용의 원칙이 과학에서의 은유 사용에서도 타당하다.

## 미주

- 1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사실은, 도킨스가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에서 ‘이기적’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은유이지만(유전자가 ‘의식적 노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부분(유전자의 행동과 경제적 인간의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현실 상황에서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의 행동을 동일한 이론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은 은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의미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런 태도는 도킨스의 원래 전공인 동물행동학적 방법론을 극단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욱 2017a 참조.
- 2 유전자 편집 기술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과정에서 평가위원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점이었다. 관련 내용은 이상욱 2017b 참조.

## 참고문헌

- 이상욱 2010, 「성분업의 모형기반 이해와 방법론적 다원주의」, 『과학철학』 13(2): 173-198.
- 이상욱 2011, 「인지과학 탄생의 여러 갈래: 인지혁명, 다학문적 연구 그리고 선택적 협력」, “지식융합의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STS) 연구단 제3회 Experimental Seminar 발표논문집.
- 이상욱 2017a, 「논쟁적인 현대 과학고전,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제6판,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이상욱 2017b, 「유전자 편집? 가위? 수사학적 전략의 유혹」, 『과학과 기술』 2017년 5월 호(Vol. 576), pp. 51-54.
- Boyd, Robert and Richerson, Peter J. 2006, *Not By Gene Alone: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Evolu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역서: 로버트 보이드, 피터 J. 리처슨 지음, 김준홍 옮김, 『유전자만이 아니다』, 이음, 2009]
- Dawkins, Richard 2006[1986], *The Blind Watchmaker*, London: Penguin Books. [역서: 리처드 도킨스 지음, 이용철 옮김, 『눈먼 시계공』, 사이언스북스, 2004]
- Dawkins, Richard 2016a[1982], *The Extended Phenotype: The Long Reach of the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역서: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홍영남, 장대익, 권오현 옮김, 『확장된 표현형, 출간 40주년 기념 리커버판』, 을유문화사, 2022]
- Dawkins, Richard 2016b[1976], *The Selfish Gene: 40<sup>th</sup> Anniversary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역서: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홍영남, 이상임 옮김, 『이기적 유전자, 40주년 기념판』, 을유문화사, 2018]
- Fox Keller, Evelyn 2010, *The Mirage of a Space Between Nature and Nurtur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역서: 이블린 폭스 켈러 지음, 정세권 옮김, 『본성과 양육이라는 신기루』, 이음, 2013]

- Gould, Stephen Jay 1997, *Full Housees: The Spread of Excellence from Plato to Darwin*, New York: Three Rivers Presse. [역서: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이명희 옮김, 『풀하우스』, 사이언스북스, 2002]
- Hesse, Mary B. 1966, *Models and Analogies in Science*, Notre Dame, IL: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Kahneman, Daniel 2013, *Thinking, Fast and Slow*,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역서: 대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2018]
- Kuhn, Thomas S. 2012[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50<sup>th</sup> Anniversary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역서: 토마스 새뮤얼 쿤 지음, 김명자, 홍성욱 옮김, 『과학 혁명의 구조, 출간기념 50주년 제4판』, 까치, 2013]
- Lakoff, George 2016,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land, Kevin N. and Brown, Gillian 2011, *Sense and Nonsense: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Human Behavior, 2<sup>nd</sup>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역서: 케빈 랠랜드, 길리언 브라운 지음, 양병찬 옮김, 『센스 앤 넌센스』, 동아시아, 2013]
- Lewontin, Richard 2002, *The Triple Helix: Gene, Organism, and Enviro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er, George A. 1956,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63(2): 81-97
- Morgan, Mary S. and Morrison, Margareth 1999, *Models as Mediators: Perspectives on Natural and Soci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um, Richard O. 2018, *The Evolution of Beauty: How Darwin's Forgotten Theory of Mate Choice Shapes the Animal World and Us*, New York:

Anchor Books. [역서: 리처드 프렘 지음, 양병찬 옮김, 『아름다움의 진화』, 동아  
시아, 2019]

# 은유하는 뇌

백은주  
(아주대학교)



## 은유하는 뇌

백은주 (아주대학교)

이탈리아 작은 섬에 저명한 한 시인이 도착한다. 어부의 아들로 무료하게 살아가던 마리오는 유명한 시인에게 오는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우편배달부가 되어 시인의 시를 접하면서 시와 은유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노시인은 철썩이는 파도를 음미하며 시 한 수를 짓는다. 시인은 마리오에게 감상을 묻는다. 마리오는 우물쭈물하며 '이상해요'라고 하면서 '단어들이 배가 되어 떠다니다가 이리저리 튕겨져 나와 멀미가 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대답한다. 시인은 '자네가 한 말이 뭔지 아나?'라고 다시 묻자 마리오는 '아뇨. 뭐라고 했는데요?'라고 다시 묻는다. 시인은 대답한다. '그게 은유야'(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은유는 문학에서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사법의 하나로 두 대상을 일치(A = B)시키는 방법이다. 은유에는 언어로 표현되는 은유 외에도 의미론적 은유가 있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은유가 있고, 또한 인지과정을 통해 추상적이고 낯선 개념을 신체물리적인 경험에 의해 익숙한 근원영역으로

개념화하는 사고 기제이기도 한다. 이러한 은유는 두뇌에 저장하고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경험을 이용한 설명력을 제공하며,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이해를 만들고 불균형적인 주의를 집중시키며 비유로 인해 강조되지 않은 것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은유(隱喩)는 사물의 상태와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의 하나이다. 본뜻을 숨기고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설득을 위한 수사법의 하나이다.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문장으로 김동명의 시의 첫 구절 ‘내 마음은 호수요’이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라는 직유법과 달리,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의 ‘마음’을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의 ‘호수’라는 보조관념(수단)을 통해, 호수라는 의미영역으로 전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 언어의 은유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 한자어로 隱喩의 뜻을 보면 ‘숨을 은(隱): 숨다, 점치다, 가엾어 하다, 근심하다, 음흉하다’, ‘비유할 유(喩): 깨우치다, 깨닫다, 깨우쳐 주다, 가르쳐 주다, 고하다, 이르다, 비유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영어로는 metaphor라 하면 이는 16세기 고대 프랑스어의 metaphore, 라틴어 metaphora(미루다, 연기하다, carrying over), 그리스어 ‘Metaphor’에서 나온 metaphor(전달하다, transfer)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ta’(between); ‘Phero’(to bear, to carry)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은유는 어

면 의미(경험, 이념, 행동, 또는 사물의 의미)가 원래 의미를 넘어 다른 의미로 실어 나르는 ‘의미의 전이’를 가져오는 수사법인 것이다. 서로 다른 단어들 혹은 개념들의 유사성도 있고 그 차이도 있는 것이다. 유사성이 많으면 은유가 쉽지만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차이가 적절한 은유가 긴장감을 가진 효과적인 전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은유는 무엇인가? 은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Sebastian Lobner (2015)는 한 영역의 사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영역의 사물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akoff/Johnson(2008)은 은유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은유를 통해 다른 (사물이나 과정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과정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은유는 문학작품에서의 수사학적 장치를 넘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지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일상의 언어,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하는 개념들이 대체로 은유적이며, 이는 은유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는 삶이 부분적으로 전쟁의 개념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은유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상에서 사용되는 은유는 ‘관습화된 은유 또는 죽은 은유’로 묘사될 수 있다(Pawelec, 2006). 이런 은유적 개념들은 주로 문화에 의존적이므로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개념화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삶 속에서 은유는 어떤 이론 형성이나 전달에 필수적이 된다.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이해를 구조화할 뿐 아니라 때론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용어나 학문 후속세대에게 기존 용어를 소개할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은유는 한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각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바꾸어주는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됨에 따라 대안을 내놓아 원래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 가령, ‘뇌는 일종의 컴퓨터이다.’라는 은유는 이론적 문장으로 가능한데, 인간과 기계에 대한 탐구가 진전됨에 따라 유사성(similarity)과 상사성(analogy)의 측면들이 발견되고 이는 미래의 탐구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황의숙, 2020). 이외에도 진화생물학, 인지심리학, 물리학 등 대부분의 과학이론 속에 사용되는 은유는 구성적 은유(constitutive metaphor)로서 과학이론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재적 이해에 인지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은유는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고, 적절한 은유사용은 창의력과 설득력이 갖추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창조적인 은유는 연설이나 시와 소설 같은 문학 등에서 확립된 기존 것과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도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Richad Roty는 “은유는 논리적 공간 밖 외부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자신의 언어와 삶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언어

와 삶을 변화시키라는 요구이다.”라고 『언어의 성장점으로서의 은유』 (Roty, 1991)에서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동기화(motivation)라 한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한다.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려면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리학적 욕구는 몸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신호를 뇌의 시상하부에서 감지하여 우리의 운동중추를 자극하고 골격근을 운동시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행동부터 우리는 매일 매일 요구되는 생활을 해 나가며 학문적인 성취와 위대한 발명과 발견, 예술을 창작하여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상상해내면서, 이 세상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보내며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창조적 사고(은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는 천재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제3의 문으로 은유는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설득과 창의력을 두 개의 큰 축으로 하는 생각의 도구라고 하였다. 이 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피르크스 같은 역사적인 예술 작품의 표현이 하나의 은유이다. 그것들처럼 인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니지만 앞서 기술한 「일 포스티노」에 나오는 어부 마리오는, 시를 접하고 은유를 체득한 후 그의 삶이 변화하였다. 늘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삶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저 막연히 꿈꾸던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감과 설득력을 획득하는 삶으로 변화하였다. 그는 시인이 되었다. ‘단어들이 배가 되어 떠다니다가 이리저리 튕겨져 나와 떨미가 나는 듯한 신기한 기분’ 같은 그만의 은유 표현에 늘

은 시인도 우리도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은유를 통해 사고의 질적 향상이 일어나고 타인과는 풍성한 소통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예술에서 보여주는 은유 세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예술 활동 자체가 창의력과 모방인 측면에서 은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 고든의 ‘Synectics’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합친다는 뜻으로, 여러 그룹에 문제를 주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여 서로 연관되는 점과 관련성을 찾아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은유과정은 우리에게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또한 익숙한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즉, 은유는 기존의 유사성을 넘어 창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 은유를 만들고 이해하는 뇌

우리의 뇌에서 이러한 은유를 만들고 이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생각(사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유추하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 깨닫는 과정, 감정을 처리하고 느끼는 과정, 기억하거나(storage)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retrieval) 과정, 집중(attention)하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 판단 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들이 인간의 뇌의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

까? 은유는 생각(사고)의 한 형태이다. 생각, 사고, 의식이 다른 것일  
 까? 우선 의식(意識)은 깨어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  
 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 의식의 마지막 수준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 물론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꿈을 꾸는 상  
 태도 있을 수 있고 이때에도 생각과 사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다른  
 의미의 의식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자기의 고유 생각이나 마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사고, 사유, 사색은 생각을 골똘하게 또는 깊  
 게 생각하는 뜻을 가진다. 사고(思考)는 생각을 한자로 말하면서도  
 어떤 틀이 있는 생각을 사고라 한다. 가령 창조적 사고 등이 어울린  
 다. 사고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몸으로 경  
 험하거나 아는 것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을 사고라고 할 수도 있다.  
 은유는 어떤 사물이나 이론 등을 직접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직유와 달리, 비슷한 것이나 또는 일부분으로 짐작하는 과정이 있는  
 듯하다. 낯선 것을 낯익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추과정이면, 아  
 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은 추리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에도 미래의 것을 유추하거나 추리하면 예측이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얻은 어떤 통합된 내용을 사상이라 하면 이런 사상은 지혜  
 의 원천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앎은 아름  
 다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현자는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  
 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다는 것은 깨달  
 음과 다른가? 어떤 이는 앎은 간접경험 같은 것이고, 깨달음은 직접  
 경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깨달음에는 아는 것을 넘어 실천의 의

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적으로 깨달음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앎이란 특정 물건, 사람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뇌에서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유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해’는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해는 사리 판단의 기본으로 무언가 파헤쳐 담긴 뜻을 알아 옳고 바름을 풀어내는 것이라 한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어가면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즉, 판단은 어떤 일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결정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의 행동)를 고르는 일을 하는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여러분은 이제 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에 주요한 것임을 이해했고 계속 듣기로 결정한 것이다.

은유를 이해하고 만드는 뇌기능을 공부하기에 앞서 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뇌는 대뇌와 소뇌, 그리고 대뇌 안쪽에 간뇌와 이어서 뇌간은 아래 척수와 연결되고 있다. 대뇌피질은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고 각 부위별로 몸의 피부와 근육 등의 감각을 담당하는 체성감각영역, 운동영역,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등의 특수감각영역 이외에도, 몸의 위치, 언어, 숫자, 음악 등 각 기능에 관련되는 부위에서 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감정에 관여하는 변연계가 있고, 기저핵과 소뇌는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라는 시를 들으며 은유를 알고 음미하고 있

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뇌에서는 소리를 듣는 청각영역, 그 소리를 언어로 이해하는 베르니케영역, 그 말을 구성하는 브로카영역과 두 언어중추를 연결하는 영역들이 활성화를 보이면서 은유에 의한 감정의 변화를 뇌는 경험하는 것이다. 만약에 시집을 소리 내서 읽으며 그 시를 음미한다면 시각중추와 청각중추가 활성화를 보이면서 이것을 연합하는 중추도 같이 활성화를 보이게 되고 이를 이해(처리 분해)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제 뇌에서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의미와 의도를 아는 과정과 우리가 안다는 것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에 감각(sensation)기능이 먼저 필요하다. 감각기능은 우리를 자극하는 소리, 시각정보, 후각 및 맛 자극뿐 아니라 우리 몸 특히 피부와 근육을 자극하는 감각수용기들이 각각 특정 에너지를 가진 자극을 감지하는 것이다. 즉, 청각은 소리를, 시각은 빛을, 피부감각은 촉각, 압각과 같은 물리적 자극, 후미각처럼 화학적 자극(에너지)들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감각수용기들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자극에너지가 전기적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전기신호들이 말초신경(과 척수)을 통해 대뇌피질에 도달되면서 우리는 이런 감각정보를 실제 느끼면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대뇌피질의 각 중추들(청각영역, 시각영역, 촉각영역들)을 통해 이런 정보들을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지각(perception)과정이다. 감각이 감각 수

용체를 통한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경험이라면, 지각은 이 감각을 선택,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지식을 얻고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인지(cognition)라 한다. 이것을 다시 상기(recall)하여 생각하여 알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식(recognition)과정이라 하는데 이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기억하고 다시 의식적으로 꺼내 사용하여 이해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에도 우리의 경험은 무의식으로 저장되고 특히 감정과 관련된 사건이나 내용들은 뇌 깊숙이 있는 감정중추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저장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래에 우리의 감정과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뇌의 정신활동을 보면 우리가 분석하고 사고하고 계획하고 기억(단기)을 하는 의식(consciousness)보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잠재의식)에 의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행동, 감정행위 등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활동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즉, 장기기억, 습관, 자동화된 신체기능, 인성, 창의력, 가치, 인지편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free will)도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된 것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Haybes 등(2008) 실험에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깨닫기 무려 7초 전에 이미 뇌의 무의식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밝혔다. 프로이트도 자각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3가지로

나누어 의식적 마음은 5%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였다. 그는 마음의 두려움, 폭력성, 충동, 욕망, 소망, 이기심, 수치스런 경험 등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전의식(잠재의식)은 장기기억, 습관, 신념 등의 전의식(잠재의식)을 포함한 무의식적 마음이 95%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고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고 이런 무의식적 사고가 의식 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지과학에서는 무의식적 사고는 의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르고 자동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처리되는 일반적인 사고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뇌(정신)는 신체와 분리된 독립된 정신 상태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뇌와 신체는 긴밀하게 합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생각)역시 신체경험이나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생각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때론 집단적 무의식이 개인의 무의식과 의식에도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은유적 사고에도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무의식)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시를 들으면 귀의 청각세포들을 활성화시켜 그것을 전달하는 신경경로를 통해 청각영역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때는 소리의 크기, 방향, 음의 고저 등을 전달하는 원리로 일차청각영역(primary auditory area)으로 들어간다. 소리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일차청각영역 옆에 있는 언어중추 중 감각언어중추

(Wernicke's area)에서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그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이랑(angular gyrus)이 의미론적 처리가 일어나는 곳인데, 단어 읽기와 문장 의미를 이해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언어적인 기능 외에도 숫자를 처리하는 곳으로 메모리 검색이 이루어지고 주의집중과 공간 인지, 추론(reasoning) 및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에도 역할을 하게 된다. 동시에 옆에 있는 모서리위이랑(연상회, supra marginal gyrus)은 감각정보들 중 특히 촉각정보들의 데이터가 해석되는 곳으로, 공간이나 팔다리의 위치감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즉 우리가 '공을 잡다'라는 문장을 듣거나 보는 과정에 우리의 뇌에서는 공을 잡는 행동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곳 연상회의 활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제스처와 자세를 인식하는 거울세포(mirror neuron)<sup>1</sup>도 여기에 속해 있다. 이런 영역들을 통해 지금 들리는 언어들을 그동안 배워온 언어, 문법 등을 활용해 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언어가 은유로서 해석되는 과정에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 등을 활용하게 된다. 그 은유는 여러 의미분석, 상상력, 운동의 계획 등을 일으키는 작업기억을 작동하면서 동시에 다시 그 의미가 저장되어 있는 씨앗 지식이나 사실(explicit knowledge) 등의 의미기억들을 활용하여 그 은유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은유를 이해하는 <나>는, 나만의 경험과 지식, 사고체계를 통한 나만의 은유로 재탄생되는 과정이다. 이때에도 언어중추 중 운동언어중추(브로카 영역, Broca's area)에

서 만들어지는 언어의 소리를 내거나 발음을 하는 과정을 다시 연결하면서 우리는 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은유 시를 창작할 때는 읽기와 이해를 하는 감각언어중추와 말을 하는 운동언어중추의 연결이 더욱 활성화되고 동시에 우리의 경험, 지식 등의 저장된 내용, 과거와 현재의 감정 등을 경험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시어들을 다시 분석, 해석하여 결국 판단과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런 언어중추들은 우리 뇌의 대부분 왼쪽 반구에 존재한다. 우리의 뇌는 신체의 반쪽을 지배하는데, 왼쪽 반구에서 오른쪽 몸의 감각을 감지하고 운동을 조절하며, 왼쪽 신체의 감각과 운동은 오른쪽 뇌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언어중추는 오른손잡이들뿐만 아니라 왼손잡이도 거의 왼쪽 반구에 존재한다. 따라서 뇌경색이나 뇌출혈환자의 회복 후에도 언어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왼쪽 뇌에 병변이 생긴 경우가 흔하다. 이때에도 감각언어중추인 베르니케영역의 손상인 경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말 자체는 유창하게 하는 듯 보이고, 운동언어중추인 브로카영역의 장애 경우는 말은 알아듣는데도 말의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뇌는 두 개의 반구로 다른 기능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유하는 뇌는 우반구일까? 좌반구일까?’라는 질문들을 해오고 있다. 은유해석이나 어휘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우반구가 비유적 언어를 이해하는 데 더 관여한다는 증거들을 내놓았다(Kacinik와 Chiarello, 2007). 그러

나 연구결과가 모호하거나 우선적으로 우반구가 처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종합해보면 특히 추론생성, 유추추론, 개념적 혼합, 매핑 및 정교화 등과 같은 주변기능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우반구가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반구의 광범위한 의미론적 활성화가 은유이해에 필요하지만, 이때 활성화된 개념을 선택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좌반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의미론적, 구문적, 문법적 제약을 처리하여 문맥적으로 관련된 의미를 활성화하면서 선택하는 데는 좌반구가 우반구보다 실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looster et al., 2020). 은유가 포함된 언어와 문자 그대로의 언어의 처리가 뇌에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뇌도 존재한다. 특히 자폐증, 조현병, 혹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종종 아 이러니, 속담, 은유 및 관용구 같은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신경과학자들은 은유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뇌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은유를 이해하는 뇌에 관한 연구

은유를 이해하는 뇌에 관한 연구는 뇌기능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뇌파,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 등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뇌의 어떤 영역들이 은유를 처리 분해(이해)하는 걸까? 비은유 자극에 비해 은유 자극에서 더욱 활성화를 보이는 뇌 영역을 보면, 좌우의 하전두엽(inferior frontal lobe), 상측두회(superior temporal gyrus), 각회(각이랑, angular gyrus),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gyrus) 등이 포함되는 연구들이 있다. 하전두엽은 브로카영역의 스피치와 언어처리를 하는 곳으로, 언어를 해석하고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상측두회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중추와 언어를 이해하는 베르니케영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른쪽 이 부위는 우리가 갑자기 이해가 되는 ‘아~!’ 하는 순간에 활성화를 보이기도 한다. 각이랑 (angular gyrus)은 읽기, 쓰기 등 복합적인 언어기능을 가지는데 특히 시각으로 들어오는 문자 언어의 해석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 부위의 손상은 여러 감각유형(modality)이 적용되는 공감각은유(synesthetic metaphor)<sup>2</sup>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Ramachandran & Hubbard, 2001). 우선 은유 이해에 관한 초기연구에서는 일부 우반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특히 새로운 은유를 이해할 때 주요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좌반구영역의 은유 이해의 주요성이 대두되어 신경퇴행성 환자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좌측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중간 및 상측두회(middle and superior temporal gyrus) 등이 은유 작업수행에 주요하다고 하였다(Klooster et al., 2020). 그리고 공감각 은유가 개념적 은유에 중요한 부위로 제안되었으나 그 후 에모리

대학의 Sathian 교수 fMRI 연구(2011)에서는 개념적 은유를 생성에 주요한 부위는 각이랑 부위보다는 질감(texture)에 민감한 체감각 피질인 두정부 판개(parietal operculum)이 활성화된다고도 하였다. 각이랑은 읽고 쓰는 역량, 숫자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능력, 기억을 회상(memory retrieval)하는 주의가 집중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전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은 주의력 할당, 보상기대, 의사결정, 충동제어 및 감정 기능, 그리고 통증 등에 관여한다. 이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은 갈등유발자극으로 stroop 작업<sup>3</sup> 등을 통해 오류감지 및 충돌을 모니터링 하는 곳으로, 일종의 평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리해보면 은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글이나 말을 듣고 이해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주의집중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등 의식적 경험<sup>4</sup>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뇌의 발달과정

은유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듣고 말할 때부터 뇌의 음운처리센터(phonological processor)가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다. 18-36개월 사이의 유아는 하루에 8개씩 단어를 배우게 된다. 엄마, 아빠, 개, 우유, 주스, 할머니, 책 등 단어를 들으면서 말하

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말하자면 음운처리센터가 듣기 말하기 센터인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단어와 물리적, 추상적 또는 정서적 연관성을 만드는 문맥 및 의미센터(context & meaning processor)가 발달한다.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배울 때 털가죽, 흔들리는 꼬리, 짖는 소리를 함께 연관시키면서 배우기에 이는 어휘 및 단어 의미센터(vocabulary & word meaning center)가 된다. 다음은 phonics로 디코딩센터인데, 인쇄된 텍스트를 음성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기호나 문자를 소리로 연결하는 것이다.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 개별소리를 합쳐 강아지로 혼합해 발음할 수 있다. 이곳은 각이랑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소리와 기호센터(sound and symbol center)이다. 다음은 직교 처리센터(orthographic processor)가 작동하는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철자할 수 있는 단어로 연관시키는 인코딩센터로, 철자센터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단어의 의미를 익히고 문자를 읽고 마지막으로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Shaywitz, 2003).

은유를 이해하는 발달과정을 보면 3세에는 독자적인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서 5세경에 은유적 매핑에 대한 추상적인 관계적 추론을 시작할 수 있다. 9-11세에는 은유를 의역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은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동일성, 유추과정 및 술어 등 세 가지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 간다. 은유 해석에서 중요한 하나는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음을 저장된 정보에서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주로 기억과 관련된 해마나 편도체에 일화기억,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데 반해, 익숙함이나 세상에 대한 의미, 이해 및 개념 등을 기억하는 의미기억(semantic memory) 등 개체인식 기억과제(object recognition memory task)를 수행하는 비강피질(rhinal cortex)이 주요하게 작동하면서 시각정보를 통한 은유를 이해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그림 등과 같은 예술품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겉으로 나타나는 문자, 모습, 행동 등을 기반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을 정신화(mentalization)라 한다. 여기에는 언어처리, 이해와 생성이 관여하는 하두정엽(inferior parietal cortex)과 언어를 기억하고 주의집중을 하고 자각과 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두정접합부(temporo-parietal junction), 사물이나 사람, 단어와 사실 등의 의미 있는 기억 등에 관여하는 측두엽(temporal lobe), 우리 몸의 공간적 인식이나 의사결정을 하며 다음 행동계획에 영향을 주는 후두정엽(posterior parietal cortex), 자의식, 복잡한 계획, 문제해결, 학습과 기억, 사회적 행동, 판단 등에 관여하는 전두엽(prefrontal cortex), 동기화, 의사결정, 학습, 비용효익(cost-benefit calculation), 갈등 및 오류 모니터링을 하는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자서전적 기억이나 미래상상, 일화 기억이나 위치 네비게이션, 장면처리 등에 관여하는 후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등이 관여하면서, 이런 정신화 즉 작품 속의 은유 등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은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보면 우선 언어와 관련된 뇌기능 외에도 동시에 주의집중, 작업기억 등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우선 안정상태(default mode상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혈액이 돌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뇌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어떤 몽상, 사유, 어쩌면 꿈을 꾸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아직 세찬 공격이나 방어 상태가 아니더라도 90분을 뛰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안전상태(디폴드 모드, default mode)로 있다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하는, 예를 들어 공을 갖고 상대진영으로 들어가는 작전을 시행하는 상태(central executive mode)가 있다. 세 번째는 안전상태에서 시행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행기에 공의 위치나 다음 공격을 위한 포지션을 잡아가는, 바짝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태(현저성 또는 돌출 모드, salience mod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시 은유를 보고 그 의미를 골똘히 생각하는 순간 디폴트 모드에서 시각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돌출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경험이나 학습된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재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다.

## 은유를 생성하는 뇌

은유를 이해하고 만드는 과정은 인간의 생각(사고)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다시 정의하면 아이디어, 신념, 지각과 정신적 이미지가 포함된다. 생각(사고)은 인간의 마음 즉, 정신적인 과정 중 특별한 정신적 이벤트 또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다. 우리의 뇌의 신경세포가 발화하면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 우리의 신경세포는 발화하면서 그것으로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강화된다. 인간의 뇌는 약 800억 개의 신경세포와 그것들이 수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망막에 있는 빛을 감지하는 시각세포가 전기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는 신경세포의 축삭을 통해 다른 뉴런으로 퍼지면서, 수백 밀리 초 내에 이 단어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은유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리오가 시인의 철썩이는 파도의 시를 듣고 ‘단어들이 배가 되어 떠다니다가 이리저리 튕겨져 나와 멀미가 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말로 표현하였다. 그가 시인의 시를 듣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하기까지, 그의 뇌에서는 청각중추로 들어온 단어들을 이해하고 그 느낌을 느끼는 감정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시인과 함께 공부한 여러 단어들(명사와 동사들)과 문법을 익혀 만들어지는 무한한 수의 생

각을 뽑아 공식화하며, 표현으로 사용되기 전에 그의 뇌에는 개념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리오는 시를 듣고 쓰는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바닷가 사람으로의 경험이 포함된 그만의 라이브러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시인의 시에 대한 감상을 문자 즉시 이러한 개념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은유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어들이 배가 되어 떠다니다가 이리저리 튕겨져 나와 멀미가 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을 말하기를 기다리는 뉴런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즉석에서 마리오의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형성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문장(생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뇌과학자 Frankland와 Greene의 실험(2015)<sup>6</sup>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결합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개념을 결합하고 재조합하여, 더 복잡한 생각과 사고의 언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디폴트 네트워크 안에 지도 같은 표현과 측두엽 및 전전두엽 피질 안의 개념관계의 문장과 같은 표현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밝혀냈다.

### 뇌는 교향곡을 연주해내는 오케스트라: 뇌의 connectome

우리의 뇌는 감각이나 운동 등 각각 별개의 영역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하고 있다. 우리의 뇌는 8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100조의 연결점(시냅스)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수학의 한 이

론인 그래프 이론을 활용하여 뇌 영상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노드와 에지로 구성된 그래프로 모델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인간의 뇌를 약 300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래프로 축소해 볼 수 있고, 그 구조적 연결은 신경세포의 축삭이 모여 지나가는 백질관을 통해 다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분야의 신경과학을 네트워크신경과학이라 한다. Max Bertolero와 Dani S. Bassett는 복잡한 뇌 기능을 음악으로 비유설명하기도 하였다(2019). 인간의 뇌의 인지능력을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비유로 설명하였는데, 개별의 뇌기능 연구는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및 목관악기 섹션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개별 구성요소를 연구하는 것으로 보면, 바이올린이 어떻게 고음을 내는가를 이해하는 것처럼 편도체가 감정을 처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각, 운동, 감정 등 각각의 뇌 부위와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열거하더라도 뇌가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가령 악기 목록이 베토벤 영웅교향곡의 레시피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각 영역들이 뇌라는 거대하고 통합된 네트워크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구조적 연결성을 조사해 보는 것인데, 뇌의 오케스트라의 악기구성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기가 음악구성에는 중요하지만 음악 자체는 아니듯이 이런 전선의 집합체가 뇌의 기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즉 살아있는 뇌는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인 것이다. 호른이나 비올라의 데시빌의 음악볼륨은 뇌의 하나의 영

역 또는 다른 뇌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기신호의 활동 수준처럼 중요한 것이다. 하나하나의 악기가 바이올린 파트에서 다시 현악기 섹션의 조화를 이루고 작은 수준의 연주가 모여 다시 고난이도의 수준으로, 즉 계층적 강화학습(hierarchical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베토벤의 교향곡이 나오듯, 우리의 뇌는 결과물을 창조해 내고 있다. 우리의 뇌는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기관에 비해 활동적이지만 주어진 작업은 뇌의 일부만 기본 활동수준에서 조절한다. 사실 뇌 전체가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된다면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이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연주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이것은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로 위대한 음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음정, 리듬, 템포, 전략적 멈춤으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며 은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계열의 악기그룹으로 나눌 수 있듯이 뇌는 각 모듈로써 서로 다른 인지 작업을 수행할 때 개별 작업이 서로 다른 뇌 네트워크 모듈에 매핑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청각, 운동 및 시각의 모듈이 있고 주의력, 기억력 및 내성적 사고의 모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뇌 모듈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교향곡 연주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 한 모듈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결국 다른 모듈과 통합하여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시를 읽고 있는 시각과 청각이, 주의력과 기억처리모듈 등을 함께 처리하면서 여러 모듈의 활동을 통합하고 제어하기 위해 뇌는 허브(뇌의 여러 모듈의 연결이 만나는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전두엽 제어모듈은 특히 인간에서 크게

발달하였는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유사하게 여러 인지 작업에서 활성화를 보이면서 뇌의 여러 모듈이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한다. 그것은 의사결정, 단기 기억 및 인지 제어의 별도 과정을 포함하는 집행 기능에 깊이 관여한다. 이는 복잡한 전략을 개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다. 또한 고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듈들은 전두엽제어모듈과 연결되어 새로운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행동에 기여하는 현저성 모듈이 된다.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쓰인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쓰인 빨간색이라는 두 단어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단어의 색깔을 말하라 요청을 받으면 빨간색으로 설정된 단어에 훨씬 빨리 반응을 하는 데 반해, 다른 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제되어야 하므로 그 색에 반응할 때 전두엽과 현저성 모듈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디폴트모드 모듈은 전두엽제어 네트워크와 동일한 허브에 걸쳐있어 여기에 포함된 많은 허브는 내성적 사고, 학습, 기억 검색, 감정처리, 다른 사람의 정신상태 추론, 심지어는 도박을 포함한 인지작업과도 연결되어 있게 된다.

우리의 뇌는 허브를 가진 상호 연결된 모듈과 같은 특정 기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human connectome project)<sup>6</sup>에서 광범위한 행동과 인지특성을 뇌 연결 패턴과 함께 조사하였다. 각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문’을 가진 뇌 연결 패턴을 입증하였고, 특정 영역 간 기능적 연결이 강한 경우 광범위한 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유동지능과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뇌의 동기화된 모듈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기능적 배선은 모든 활동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데 비유로 말하면 수학을 하거나, 베토벤을 연주하거나, 쉬거나 할 때 또는 시를 읽을 때 모두 같지 않다. 뇌에서의 물리적 연결은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 변화를 겪는 반면, 기능적 연결은 한 정신적 작업에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때 초 단위로 바뀌게 된다. 뇌의 네트워크의 발달과정을 보면 아주 어릴 때, 심지어 자궁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그 연결성이 정교해진다. 어린 시절 허브에 대한 구조적 연결이 점점 강화되면서 모듈 간의 분리도 증가된다. 특히 청소년기 뇌발달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뇌배선도의 마무리 작업이 다듬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신 장애의 첫 징후가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기는 복잡한 추론이나 자기조절 등을 실행하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동들은 모듈 간 분리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밝혀짐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의 러셀 폴드랙의 연구(2015)에서 본인이 18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분간 뇌를 MRI 스캔하며 뇌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대화하고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관찰하였다. 그의 연구들을 통해, 네트워크의 재라우팅(네트워크에서 경로를 유연하게 선택)이 긍정적인 기분, 각성 또는 피로에 맞게 매일 변경되며, 이런 네트워크의 유연성이 건강한 사람에서 더 나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뇌 연결의 구성은 개인의 정신상태를 반영한다. 비정상적인 연결 패턴은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자폐스펙트럼, 주의력 결핍장애, 치매 및 간질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건강한 뇌에서 모듈은 대부분 자율적이고, 분리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의 연결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능력이 특정 한계 내에서 일어난다. 반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1촌 친척들의 뇌에서는 종종 하나하나의 모듈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네트워크가 스스로 재구성하는 방식에 과도한 유연성이 있는 것도 발견되기도 하였다(Li et al., 2017). 이는 머릿속에서 초대받지 않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우울장애의 경우도 기저성 감정네트워크의 증가, 보상성 네트워크의 감소와 디폴트 모드의 분열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Li et al., 2018). 가령 우울증에 걸리면 이 세 모듈의 통신장애처럼 어떤 안정적인 모드의 변화가 보이고 정서적 억제 해제를 비롯한 감정적 사건에 대한 민감성 변화 및 반추현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계열의 악기가 교향곡을 지배해 뇌의 음악이 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 은유에도 필요한 작업기억

실제 은유를 만드는 작업에서 작업기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업기억이란 무엇일까?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나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다. 기억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기기억은 사건이나 사실들을 기억하는 선언적 기억(declarative memory; explicit)과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 습관 등과 같은 비선언적 기억(non-declarative memory; implicit)으로 나눌 수 있다. 선언적 기억에는 지난밤에 누구랑 야구장에 갔고 저녁식사는 무엇을 먹었는지 등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하는 일화기억(episodic memory)이나, 일본의 수도는 도쿄라는 등 지식에 해당하는 의미기억(semantic memory)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해 단기기억은 컴퓨터의 RAM과 비슷하게 일시적인 정보를 보유하는 기억체계로, 수 초나 수 분 사이 일시적인 정보를 보유하는 기억체계이다. 단기기억은 더 이전 단계의 감각기억이나 작업기억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단기기억 내 저장된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시연이나 조직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작업기억 역시 단기기억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단기기억보다 능동적인 정보의 통합과 변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업기억은 정보의 단기 저장을 제공하는 단기 기억의 단순한 기능이 아닌 좀 더 복잡한 인지 유용성을 위해, 하위구성요소로 음운루프(또는 언어작업기억), 시공간 스케치패드(시각 공간 작업기억) 및 주의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 중앙실행을 가지는 다중 구성요소시스템을 가진다(Baddeley and Hitch 1974; Cowan 2005). 여기에 더해 두정엽에는 서로 다른 감각정보를 조절하고 통

합하는 임시저장시스템(episodic buffer)도 있다. 즉 작업기억은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또한 장기기억으로 전송될 수도 있는데, 이때 작업기억에서 주의력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Cowan 2008). 즉 작업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기능으로, 추론,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에 주요하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은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작업기억은 중요한 요소이다. 은유를 (처리)이해하는 모델로 Kintsch의 predication model(2000, 2001)이 두 단계로 제시되었는데, 먼저 구성요소에서 텍스트의 개념과 구문, 의미 및 세계지식이 활성화되어 단어의 의미공간을 구성하고, 두 번째로 수천 개의 작성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연결망에서 독자에게 정신적 표상이 되는 은유로 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기억 용량이 큰 사람일수록 은유의 해석뿐 아니라 더 좋은 은유 생산력을 보이게 되며, 어휘 지식이나 인쇄물 노출 측정과 무관하게 작업기억 기능이 은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Chiappe and Chiappe, 2007).

## **은유에도 필요한 주의집중**

앞서 뇌에서 언어와 관련된 기능들을 보았듯 언어운동중추 브로카영역과 언어이해중추 베르니케 영역의 기능이 있다. 또한 이 두

중추를 잇는 음운고리(phonological loop)는 언어 및 청각 정보에 의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후두엽의 시공간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이 부위들과도 연관 및 분리들을 이루면서 작업기억신경망으로 배외측전두엽, 전대상피질, 두정피질이 관여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배외측전두엽(DLPFC)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통합, 저장된 정보를 유지/인출하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일과 같이 실행조절에 필요한 일을 한다. 여기서 전대상피질(ACC)은 주의력센터(attention controller)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정보에 적합하게 집중할 필요를 평가한다. 그리고 두정피질(parietal cortex)은 감각이나 지각과정의 workspace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기억에는 중뇌나 소뇌와 같은 피질하영역의 역할이나 연령, 감정, 카페인과 호르몬 같은 인자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업기억의 장애는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젊은 인구에서도 우울증이나 기타 신경학적 장애 및 외상성 뇌손상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은유를 이해하거나 만드는 과정에 주의집중은 작업기억과 함께 필수요소가 된다. 주의집중의 네 가지 중심과정에 대한 Krudsen (2007)의 모델을 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저장되는 정보들은 상향식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들로 구분하는 현저성필터(이러한 필터는 본능이나 학습 등을 통해 조절되고 있다)를 거쳐 신경계를 통해 들어온다. 다음은 저장된 정보들을 작업기억을 통해 경쟁적 선별을 통한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서 하향

식 민감도 조절을 통해 작업기억의 순간적 내용이 새로운 정보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반복적인 내인성 경로가 되어 주의력의 자발적 통제가 일어나는 요소들로 작동된다. 마지막으로 주의력은 눈동자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서의 정보에 대한 반응 민감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또 다른 주의력 시스템으로는 Michael Posner의 세 가지 기능적 요소로 제시된 모델(Petersen and Posner, 2012)이 있다. 첫째는 각성(경고) 네트워크로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인데, 주로 오른쪽 전두엽과 두정엽에 존재하며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조절된다. 일반적 환경변화를 모니터링(내재적 인식, intrinsic awareness)하면서 특정 환경적 특징에 주의를 집중되는 과정(위상경보, phase alertness)이다. 둘째는 특정 주의를 촉발된 후 특정 자극에 주의를 집중되는 오리엔테이션(방향설정, orientation network)으로 넘어간다. 이때는 모든 감각이 깨어나게 된다. 두 눈은 이벤트에 집중하고 소리는 더 잘 들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집행 주의집중(executive attention)으로 넘어가 신호가 평가되고 다음 수행할 작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주로 전대상피질에서 일어난다. 즉 우리가 은유를 이해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용해보면, 작업기억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구체적인 정보들을 저장하고 여러 후보 단어들 중에서 우리는 늘 나만의 내인성 회로가 영향을 미치거나 갑자기 현타가 오듯이(본능적이거나 오랜 학습의 결과이거나 간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혈압이 오르듯(치열하게 전투를 벌이

듯) 교감신경향진과 같은 집중을 특히 창작과정에서는 필요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선별된 딱 들어맞는 은유를 전대생피질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 은유가 이끌어 온 신경과학

은유를 만들고 이해하려면 뇌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학습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 쓰면서 작업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뇌에서 기억되는(저장되어 있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기억이 뇌의 지속적인 변화로 저장된다는 생각은 적어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4년 리차드 세먼은 ‘엔그램, engram’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기억을 저장한다고 제안하였다. 경험이 엔그램이 되어 지속적인 화학적 및 물리적 변화를 겪는 뉴런집단이 활성화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 후에도 엔그램은 증명되지 못하다가 증가된 시냅스 강도와 신경연결성이 기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Donald O Hebb(1949)에 의해 시냅스설이 지배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Barlow(1972)에 의해 어떤 특정 신경세포 양상불수준의 엔그램의 존재에 대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할머니뉴런(grandmother neuron) 아이디어이다. 이 용어의 시작은 ‘포트노이의 불평’이라는 소설에서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를 맺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암호화하는 뇌

세포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러시아 신경외과의사인 아카케비치는 수술 후 어머니 개념을 이해하지만 어머니와의 모든 연관성을 잃었다고 하면서 뇌에는 복잡한 개념이 국소화된 신경표현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거기에 대해 MIT 유명한 신경과학자 제롬 레트빈은 그 가설을 조롱하며 아카케비치가 성공에 고무되어 이제 ‘할머니세포’에 대한 연구로 옮겨갔다고 하면서 이 용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시작된 용어는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부활을 하면서 할머니세포 존재 가능성에 대한 좌절과 도전을 견디며 이어왔다. 이것은 은유적 잠재력이라 할 수도 있고 은유적 사고의 위험성으로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Barwich, 2019). 최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낯선 얼굴보다 낯익은 얼굴에 반응하는 영역이 발견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유명인과 랜드마크에만 반응하는 영역이 발견되었는데, 얼굴 인식과 기억 사이의 빠른 연결로 할머니와 같은 친숙한 얼굴에 대한 장기기억과 연관시켜 친숙한 얼굴을 ‘아하’ 하고 인식하는 순간 밝게 반응을 보였다(Freiwald and Hosoya, 2021)고 하였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생각되던 단일 뇌 영역이 아니라 여러 뇌 영역에 분산되어 기능적으로 연결된 엔그램 셀 앙상블로 구성된 앙상블복합체에 의해 지원된다고 보고 있다. 생쥐를 이용한 실험결과가 주목받고 있는데, 엔그램 형성으로 기억의 통합과 검색과정에 관여하며, 기억 인코딩과 검색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거짓기억을 생성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험에 대한 기억이식이

가능하여 자연 감각경험 없이도 기억을 생성할 수도 있는 가설들을 내고 있다. 또한 일단 형성된 엔그램이지만 다시 기억의 회수과정에서 활성화되거나 흥미롭게도 침묵하는 엔그램이 있는데 이는 기억 상실 쥐에게서 발견되었다(Josselyn and Tonegawa, 2020).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뇌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추정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여러 가능성 있는 일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과거 저장된 경험(지식) 등을 활용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일과 포기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계획을 잘 수행하는 뇌가 전전두엽이다. 이때에도 외부기회 즉 주변 환경에서 일어날 확률, 또는 내부기회 즉 우리 내부의 감각을 추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은유의 과정으로 돌아가 보자.

은유의 구성은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내 마음’은 target(tenor, topic)이고 ‘호수’는 source(vehicle, base, focus)가 된다. 즉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고 그것을 특징하는 개념이 source가 된다. 이는 유추과정(analogy)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마음은 \_\_다’처럼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을 프레임이라 한다. 마음이 호수로, 이야기의 주제가 호수라는 focus로, 문자의 의미가 이동되는 것이다. 마음과 호수의 유사성이 은유를 만드는 초석(ground)이 된다. ‘내 마음은 호수요’의 내 마음은 맑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다음 이어지는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하는 것을 보니 ‘노 저어 오기를 기

다리는 마음, 그대의 뱃전에서 부서지듯 그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호수는 내가 된다. 그대가 노를 저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며 그대로 인해 갈라지는 호수의 잔잔한 파도가 옥처럼 빛나면서 그대를 위해 그대로 부서져버리는 애뜻한 사랑으로 은유가 되는 것이다. 은유를 해석하는 기전에 주요한 개념이 '체화되는(embodied)' 것이라는 것이다. 좀 확장하면 인간이 공유하는 지식의 핵심영역의 기초가 체화된 인지기능 즉 신체의 감각운동 경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유가 본질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는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던지기'라는 단어를 읽을 때 오른손잡이는 좌측 운동피질이 활성화될 보이는 반면, 왼손잡이는 오른쪽 운동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우리의 뇌는 반대 측을 지배한다)을 fMRI 실험결과로 보고하였다(Willems et al., 2010, Hauk and Pulvermiller, 2011). Boulenger 등의 실험(2009)에서도 손이나 발동작에 관한 언어가 그곳과 관련된 운동피질의 활성화를 보이고 있다. EEG/MEG같이 빠르게 처리되는 방법은 동작 유형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었고(Hauk et al., 2004), 형태에 관한 단어는 뇌전두엽 영역에, 색과 관련된 단어는 측두엽 피질에 활성화를 ERP로 확인할 수 있었다(Martin et al., 2006). 그뿐만 아니라 경두개 자기자극에 따른 시각적 자극이 행동 수행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보면, 팔 관련 단어에 대한 반응이 손운동피질이 자극된 후 더 빨라지거나, 다리운동피질 자극 후에 다리 관련 단어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는 흥미로운 결과들(Pulvermiller et al., 2005)도 있다.

이런 반응들은 단어표시 후 150ms-759ms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Foragacs(2020) 연구에서는 은유를 가진 단어와 문자 그대로의 단어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왼쪽 반구의 전두엽의 N400과 N700 영역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은유를 해석하는 뇌는 체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해석과 함께 의미를 처리 분해하면서 이해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은유의 표현은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을 추상적 개념으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기능으로 우선 은유를 이해하면서 그 의미와 의도를 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은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뇌 부위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은유를 이해하는 기능적 하위시스템으로 다시 분해해 정리해보면, 첫째 단계에서는 양측 전두엽과 왼쪽 각이랑의 개념적/pragmatic machinery를 통해 문맥에서 언어자료들과 세상에서 습득된 지식들을 통합한다. 두 번째는 문맥과 관련된 측면과 그 은유의 적절한 의미를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된 주의 구성요소들은, 전대상엽과 전두엽 영역에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부 측두엽이 관여하는데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고 익숙하지 않은 은유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Bambini et al., 2011; Bebedek et al., 2014)되기도 한다. 스토리를 좋아하는 우리의 뇌에서 랜덤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즉 의미 있는 일들을 순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개념을 쌓아가는 인지개념으로) 은유를 이해하고 생산해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유는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은유는 '낯섦'을 새로운 관념의 세계로 인도해갈 수 있기에 일상이나 습관화된 자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은유적인 소통방법은 심리치료나 정신치료기법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Evans, 1998). 은유적인 소통방식은 상담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생각은 질병경험을 구성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은유법은 질병에 대한 은유적인 재해석을 제공하고, 진단의 라벨을 제공하며, 나아가 고통과 질병의 경험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은유적 의미를 내포시킬 수 있다. 이러하듯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은유의 채택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낳을 수 있으며, 은유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 미주

- 1 거울세포(mirror neuron); 어떤 행동에 대해 가령, 어떤 물체를 손가락을 이용해 잡는 행동에 대해 활성화되는 보이는 신경세포가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되는데, 만약 손가락이 아닌 집게를 이용하여 물건을 잡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 즉 그 제스처를 구분해서 거울처럼 그것을 따라 할 수 있기에 인간은 피아노나 바이올린, 미술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행위들을 따라 흉내 낼 수가 있다. 이런 신경세포는 주로 뇌의 운동영역에서 발견되었고 원숭이 같은 유인원과 새 등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런 시스템은 다른 사람의 고통 같은 마음이나 정신치료, 언어영역 등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 2 공감각 은유(Synesthetic metaphor)란 여러 감각유형(modality)들이 함께 느껴지는 은유로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색을 보거나, 특정 냄새를 맡을 때 모양을 보거나, 단어를 볼 때 맛을 인식할 수 있는 것 등이다.
- 3 Stroop 작업이란,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억제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어의 색과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동화된 반응을 억제하고 글자의 색상을 말해야 하는 검사, 가령 '빨간색'이란 단어가 색이 일치하는 빨간색 잉크로 쓰여 있는 것과 파란색으로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써서 단어와 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잉크의 색을 명명하게 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검사할 수 있다.
- 4 의식적 경험은 실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깨닫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대상피질과 상관관계가 많다. 피험자의 응답이 실제 응답과 일치하지 않을 때 더 큰 오류관련 부정성이 생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의식적 경험과 관련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Francis Crick의 '놀라운 가설(The astonishing hypothesis)'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센터의 유력한 후보로 꼽는 곳이기도 하다.
- 5 Frankland와 Greene의 실험: 인간의 뇌는 단어의 의미를 유연하게 결합하여 구조화되는 생각으로 구성하는 것을 멀티복셀패턴 분석을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통해 밝힌 실험이다. 즉 '물다' '개' '사람'의 의미를 결합하면 개가 사람을 물거나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제시된 문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유연하게 인코딩하는 좌측 중간측두엽영역과 그 하위 편도체 등에서 지도 같은 표현을 코딩하는 등 여러 문장이나 복잡한 사고의 개념과 구조를 실험적으로 설명하였다.
- 6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human connectome project)는 2009년도에 시작하여 사람의 뇌뿐만 아니라 몸의 신경연결망 즉 연결커넥톰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2018

년까지 모든 신경망을 그려내었고, 현재도 그런 지식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나 시냅스 수준으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참고문헌

- 황희숙 (2020) 과학이론에서 은유의 역할. 철학연구 65:171-185.
- Lobner S (2015) Functional Concepts and Frames. In Thomas Gamerschlag, Doris Gerland, Rainer Osswald & Wieke Petersen eds. Meaning, Frames and Conceptual Representation. Dusseldorf.
- Lakoff G and Johnson M (2008)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56.
- Pawelec A (2006) The death of metaphor, Studia Linguistica Universitatis Iagellonicae Cracoviensis 123:117-122.
- Roty R (1991)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on CS, Brass M, Heize HJ, Hayness JD (2008) Unconscious determinants of free decisions in the human brain. Nature Neuroscience 11:543-545.
- Kacinik NA, Chiarello C (2007) Understanding metaphors: Is the right hemisphere uniquely involved? Brain and Language 100(2):188-207.
- Klooster N, McQuire M, Grossman M, McMillan C, Chatterjee A, Cardillo E (2020) The neural basis of metaphor comprehension: Evidence from Left hemisphere degeneration. Neurobiology of Language 1(4) 474-491.
- Ramachandran VS and Hubbard EM (2001) Synaesthesia- A Window into perception, thought and Language. J Consciousness Studies, 8(12):3-34.
- Sathian K, Lacey S, Stilla R, Gibson GO, Despande G, Hu X, Laconte S, Gliemi C, Dual pathways for haptic and visual perception of spatial and texture information. Neuroimage 57(2):462-75.
- Shaywitz (2003) The four-part processor & Reading Brain. In Brain systems for reading. p78
- Frankland SM, Greene JD (2015) An architecture for encoding sentence meaning

- in left mid-superior temporal cortex. *PNAS* 112(37): 11732-11737.
- Bertolero M and Bassett DS (2019) How the mind emerges from the brain's complex networks. *Scientific American Magazine* 321(1) p26
- Poldrack Ra, Laumann TO, Koyejo O, Gregory B, Hover A, Chen MY et al.,(2015) Long-term neural and physiological phenotyping of a single human. *Nature Communications* 6: 8885.
- Li P, Fan TT, Zhao R, Han Y, Shi L, Sun HQ, Chen SJ, Shi J, Lin X Lu L (2017) *Scientific Reports* 7:5483.
- Li BJ, Friston K, Mody M, Wang HN, Lu HB, Hu DW (2018) A brain network model for depression: From symptom understanding to disease intervention. *CNS Neurosci Ther* 24(11):1004-1019.
- Baddeley AD and Hitch G (1974) Working memory. 8:47-89.
- Cowan N (2005) Working memory capacity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0203342398>.
- Cowan N (2008)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long-term, short-term, and working memory? *Prog Brain Res* 169:323-338.
- Kintsch W (2001) Predication. *Cognitive Sci* 25(2):173-202
- Kintsch, W. (2000) Metaphor comprehension: A computational theory. *Psychonomic Bulletin&Review*,7(2), 257266
- Chiappe DL and Chiappe P (2007) the role of working memory in metaphor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J Memory and Language* 56(2):171-188.
- Kruidsen E (2007) Fundamental components of attention. *Annu Rev neurosci*. 30:57-78.
- Petersen SE and Posner MI (2012) The attention system of the human brain: 20 years after. *Annu Rev Neurosci* 35:73-89.
- Hebb DO (1949)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a neuropsychological theory*. New York:Wiley

- Barlow H (1972) Single units and sensation: A neuron doctrine for perceptual psychology? *Perception* 1(4):371-94.
- Barwich AS (2019) The value of failure in science: the story of grandmother cells in neuroscience. *Front Neurosci* 13:1121 doi: 10.3389/fnins.2019.01121
- Freiwald WA, Hosoya H (2021) Neuroscience: A face's journey through space and time. *Current Biology* 31(1):R13-15
- Josselyn SA, Tonegawa S (2020) Memory engrams: Recalling the past and imaging the future. *Science* 367:6673
- Willems RM, Hagoort P, Casanto D. (2010) Body-specific representations of action verbs: neural evidence from right- and left-handers. *Psychol Sci*. 21(1):67-74
- Hauk O, Pulvermüller F (2011) The lateralization of motor cortex activation to action-word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5:149
- Boulenger V, Hauk O, Pulvermüller F (2009) Grasping ideas with the motor system: Semantic somatotopy in idiom comprehension. *Cereb Cortex* 19(8):1905-1914.
- Hauk O, Johnsrude I, Pulvermüller F (2004) Somatotopic representation of action words in human motor and premotor cortex. *Neuron* 41(2):301-7.
- Martin FMP, Hauk O, Pulvermüller F. (2006) Category specificity in the processing of color-related and form-related words: An ERP study. *Neuroimage* 29:29-37.
- Pulvermüller F (2005) Brain mechanisms linking language and Act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6(7):576-82.
- Forgacs B (2020) An Electrophysiological abstractness effect for metaphorical meaning making. *eNeuro* 7(5).
- Bambini V, Gentili C, Ricciardi E, Bertinetto PM, Pietrini P (2011) Decomposing metaphor processing at the cognitive and neural level through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Brain Research Bulletin* 86:203-216.

Bebedek M, Beaty R, Jauk E, Koschnig K, Fink A, Silvia P, Dunst B, Neubauer A (2014) Creating metaphors: The neural basis of figurative language production. *Neuroimage* 90(100):99-106.

Evan, MB (1988) The role of metaphor in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A theoretical reformulat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5(4), 543-551.

# 문학에서의 은유, 제유 그리고 환유

정명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문학에서의 은유, 제유 그리고 환유

정명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은유는 문학, 특히 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유이다. 은유의 가장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김동명의 시구 “내 마음은 호수요”(「내 마음이」)가 있다. 이 은유가 왜 매력적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 시구를 입으로 읊조리는 순간, 내 마음은 ‘호수’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 자연, 그것도 모든 대상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자연으로 탈바꿈한다. 이게 은유의 힘이다. 은유는 무엇이든 무언가로 바꿔준다. 우리가 소망하는 좀 더 멋지고 고상한 무언가로. 은유는 그 점에서 비유의 왕이고 모든 비유의 대명사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변형의 힘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의 효과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비유에는 은유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유의 종류에는 무엇무엇이 있으며,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이 글에서 하기로 한다.

## 비유는 왜 필요한가?

롤랑 바르트는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에서 ‘이야기’를 분석하는 세 층위를 ‘기능’, ‘행위’, ‘서술’로 나누었다. 기능은 이야기의 근본 작동 요소를 가리킨다. 행위는 이 작동 요소가 실제로 움직인(혹은 움직일) 자취와 결과, 가능성을 따진다. ‘서술’은 사건을 이야기로 변환하는 절차이다.

물론 이는 ‘이야기’에 대한 분류이다. 이를 문학 일반에 넓혀서 적용하면 ‘서술’은 ‘언어화’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즉 서술은 사건을 언어로 변환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의 기본적인 목표를 바르트는 ‘독자와의 소통’에 두었다. 평범한 주장 같지만 이는 문학의 핵심을 찌르는 통찰을 동반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문학을 별도의 특수 영역으로 가정하기 일쑤이다. 소설을 읽는 도중에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도 말이다. 그 동일시 과정은 독자 자신을 현실 너머로 초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문학 언어’에는 일상 언어와는 다른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짐작이 작동한다. 그런 생각의 극점에 다다른 문학적 입장이 20세기 전반기 영미권에서 일었으며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뉴크리티시즘’이다.

‘뉴크리티시즘’이 문학 교육을 장악하던 영미권의 교육 현실에 대한 저항을 표출한 영화로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 Society)」(Peter Weir 감독, 1989)가 있다. 이 영화가 영화 전편

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문학)는 ‘살아있는 현실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고등교과서에서 문학은 문학 교육자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어떤 정답을 선택하는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는 문학의 언어에 특별한 초월적 성격을 부여하는 듯한 제스처로 청년 학생들의 삶을 규제하는 제도적 규칙들을 부여하는 이상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한국中等교육의 처참한 현실이기도 하다.

모든 존재의 삶, 특히 인간의 삶은 질서와 일탈의 끊임없는 밀고 당김을 통해서 진화한다.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데, 일탈이 없으면 질서는 자연스럽게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열역학 제2법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일탈이 질서를 흔들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질서를 창출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성공한 의도적인 일탈은 창조성을 띤다.

문학은 창조성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에도 문학을 버리지 못하는 건 바로 창조성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언어로써 그것을 실행한다. 즉 모두에서 소개한 바르트가 ‘서술’이라고 부른 층위가 창조성이 집중된 곳이다. 다만, 바르트는 ‘이야기’에 한해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문학 일반에 ‘서술’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다. 이야기와 이야기의 대표적 문학 양식인 ‘소설’에서는 ‘서술’이 그대로 쓰여도 되겠지만, ‘시’에서는 ‘비유’가 창조

성이 발현되는 영역이다. 물론 시는 소설을 포함할 수 있고 소설은 시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소설에서도 ‘비유’가 활동할 수 있고 시에서도 ‘서술’이 기능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인 ‘은유’는 비유의 한 영역이다. 옛날의 수사학에는 아주 많은 비유의 세목들이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비유들은 점점 축소되더니, 궁극적으로 ‘은유’ 하나로 압축되었다. 시와 은유는 거의 동의어의 차원에 놓이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인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다룬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인 『불타는 낙원』에서, “시란 무엇이나”고 묻는 우체부 ‘마리오’에게, 네루다는 “그건 메타포일세”라고 대답한다(기 도이처(Guy Deutscher), 『언어의 펠침』에서 재인용.). 이처럼 은유가 시를 대표하게 된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창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은유’야말로 창조적인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한다면 다른 비유들은 창조의 돌레를 장식하는 화환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될 수도 있다. 진정한 꽃봉오리는 은유인 것이다.

## 은유

방금 은유(隱喩, metaphor)를 언어의 창조성이 가장 농축된 비유라고 하였다. 왜 그러한가? 은유가 쓰이는 순간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은유는 한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을 가리킨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시니피앙(signifiant)의 교체이다. 모든 기호(signe)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사람은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이(Ferdinand de Saussure)다.

그는 기호를 ‘의미하는 측면’과 ‘의미되는 측면’으로 나누었다. 의미하는 측면을 소쉬르는 프랑스로 시니피앙(le signifiant)이라고 불렀고 의미되는 측면을 시니피에(le signifié)라고 하였다. 영어로는 ‘시그니피어(The Signifier)’ vs. ‘시그니파이드(The Signified)’로 번역되며, 한국어로는 흔히 ‘기표(記表)’와 ‘기의(記意)’, 또는 ‘기호표현’, ‘기호내용’이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이 세 언어를 뒤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에 근거해서 은유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즉 내가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다고 하자. 그 연인의 이름은 A이다. ‘나’는 A를 사랑한다. 나는 A를 표현하고 싶다. 그런데 A라는 소리는 A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A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진다. 나는 A를 마음에 그리며 “오, 나의 장미여!”라고 부른다. 그러자 A의 활짝 핀 아름다운 얼굴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순간이 ‘은유’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A를 장미로 바꾸는 사건, 그것이 은유이다. 이 사건에서 작동한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자.

우선 A를 가리키는 소리는 ‘에이’이다. 이 에이는 아름다움을 전혀 연상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로 ‘장미’를 선택해, A 대신 장미라고 부른다. 이때 ‘장미’라는 소리는 아름다운 장미꽃이라는 관념을 듣는 이에게 전달한다. 이 절차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원래의 호명

기표(소리): ‘에이’

기의(뜻): A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 2. 은유를 통한 호명

기표(소리): ‘장미’

기의(뜻): A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 3. 은유의 효과

기의(뜻): A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  
장미(처럼 아름다운 사람)

### 4. 은유 효과의 근거

기표(소리): ‘장미’

기의(뜻): 장미(아름다움)

이 절차의 기본 아이디어는 소리(기표)를 바꾸면 뜻(기의)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유의 형식이고 그 효과이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금을 신으로 칭송하는 간신의 번지르르한 아침을 연상해 보라. 임금은 처음엔 의혹을 품을지라도 그 아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 그것을 믿게 된다.

일부러 부정적인 사례를 든 것은 은유가 사실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상상적 착안이라는 걸 적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은유는 현재에 대한 단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할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장미'라고 호명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앞으로도 영원히 '장미'처럼 소중히 보듬겠다는 약속을 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지금 당장 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 연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장미'라고 외쳤다 해도,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의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들 것이다. 것처럼 한순간의 황홀은 영원한 황홀경을 보장하지 못한다.

은유의 보고인 '시'가 애초에 '예언자'의 음성으로 출현했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는 현재의 증빙서류가 아니라 약속의 징표이다. 여하튼 은유의 이 허구성 때문에 독자는 곧바로 그 근거를 물을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치환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시인은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막무가내로 은유를 남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펜을 쥐 시인의 손

은 무의식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찾아낸다. 그 이유가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은유는 성립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시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

적합한 은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단초에 앞에서 말한 기표와 기의의 분리가 있다. 이 분리에 의해서 기표는 여러 기의들을 선택할 수 있고, 기의 역시 마찬가지다. 요컨대 소리와 뜻은 특정한 약속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뿐, 각자 자율적이다. 부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런 연결을 소쉬르는 자의성(l'arbitraire)이라고 불렀다.

기표와 기의의 자율성은 기표의 이동을 기동시키는 출발선이다. 여기에서 튀어나간 기표가 하는 일이 정작 주목할 점이다. '장미'라는 기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여기서 두 번째 발견이 출현한다. 하나의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합성물이라는 점이 첫 번째 발견이라면, 두 번째 발견은 기의도 그 자체로 단일체가 아니라 여러 속성들의 결합이라는 점에 대한 것이다. 가령 '장미'는 '꽃', '아름다움', '가시' 등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발견한 '나'는 자신의 애인 'A'도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찾아낸다. 'A'의 성, 나이, 신체 상황, 성격, 그리고 '아름다움' 등등이 그 속성들일 것이다. 그런데 'A'와 '장미'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아름다움'이다. 이 공통점이 'A'와 '장미'를 연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근거해 '나'는 'A'를 자신 있게 "나의 장미여!"라고 외칠 수 있다.

흔히 거론되는 예 하나를 더 들어보자. 17세기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의 유명한 금언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이 있

다. 여기에 작동되는 은유의 기본 형식은 인간=갈대의 등치이다. 이 등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역시 기의의 속성들을 헤아리는 과정을 통한다.

인간의 속성으로는 ‘지적 존재’, ‘직립 동물’, ‘신체적 나약함’, ‘변덕스러움’... 등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갈대의 속성으로는 ‘식물’, ‘가늘고 김’, ‘바람에 휩쓸림’, 즉 ‘변덕스러움’ 혹은 ‘나약함’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변덕스러움’, 혹은 ‘신체적 나약함’이 인간과 갈대가 공유하는 속성이다. 파스칼은 여기에 근거해서 “나약하지만 생각할 줄을 알아서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로 비유한 것이다.

이것이 은유의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다. 치환하는 기표와 치환되는 기표, 두 기표 사이에서, 각 기표에 본래 연결되어 있던 기의의 속성들 중의 일치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 제유

그런데 비유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일치하는 속성은 제유(提喻, synecdoche)의 항목에 해당한다. 가령 한국 근대소설의 개척자의 하나인 김동인은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서 ‘약한 자’는 세간의 편견과 자신의 불안에 시달리는 ‘여자’를 가리킨다. ‘약함’은 ‘여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속성은 주체의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를 ‘제유’라고 부른다. 거꾸로 전체로 부분을 비유하는 경우도 제유이다. 가령, 어느 문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은 김수영을 공부한다.”라고 말했다 하자. 그때 ‘김수영’은 ‘김수영이 쓴 시’를 가리킨다.

제유는 아주 흔히 쓰이는 비유다. 많은 연구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제유의 예는 ‘뚫’으로 ‘배’를 비유하는 것이다. 멀리 수평선에서 뚫이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의 선체가 곧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뚫’은 ‘배’의 일부로서 ‘배’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제유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런 제유는 만화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만화의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는 신체적 특성을 통해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령 김성환 화백의 유명한 시사만화 『코주부』는 제유의 실한 사례이다.

그런데 ‘뚫’은 ‘배’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배’의 동체에 붙은 별도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주 대상의 옆에 붙은 것, 근처에 있는 것을 ‘인접한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이 ‘인접성’에 의해서 비유하는 걸 ‘환유(換喻, metonymy)’라고 한다. 뚫은 배의 일부이기도 하고 인접한 다른 물건이기도 하다. 전자로 이해할 때는 제유가 작동한 것이고, 후자로 이해할 때는 환유가 작동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유와 환유를 흔히 혼동하곤 하는데, 이 혼동은 치명적인 오독을 낳을 수 있다.

유명한 예가 하나 있다. 다음 시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시, 「잠든 보아즈(Booz dormant)」의 한 시구이다.

Sa gerbe n'était point avare ni haineuse

(그의 벧단은 인색하지도 증오로 이글거리지도 않는다.)

이 시구에서 ‘벧단’은 ‘보아즈’의 농토에서 나온 수확물이기도 하고, ‘보아즈 가문’의 문장(紋章)이기도 하다. 그의 문장이 그대로 보아즈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사람들은 ‘벧단’을 환유의 예라고 거론하곤 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벧단’을 ‘보아즈’의 ‘은유’로 지목하고, 은유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흔히 ‘뮈 그룹’으로 알려진 ‘일반수사학파’에서 라캉이 환유를 은유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힐난한 것이다.

하지만 라캉은 그들의 반론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벧단’은 ‘보아즈’를 대신해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벧단’=‘보아즈’의 일치가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작용한 비유는 은유인 것이다.

이 소란 속에는 환유에 대한 잘못된, 혹은 모호한 이해가 개재되어 있다. 왜 사람들은 제유와 환유를 구별해 왔는가? 이것을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로 이해하면 이런 구별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부분으로 가리키는 것이나 결의 사물로 가리키는 것이나, 똑같이 비유어와 비유대상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부분’과 ‘인접’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일반수사학파보다 라캉의 관점이 더 깊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환유’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유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이제 제유는 좁은 은유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지시하는 것. 그렇다면 제유와 은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제유는 은유의 한 하위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제유와 은유 사이의 중요한 차이와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실로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어긋남이 있다.

제유는 드러난 은유이다. 부분과 전체 사이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다. 반면 은유는 비유어와 대상 사이의 연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점을 의식해서 한자어로 옮기면서 감출 은(隱)자를 썼을 것이다(서양인들이 만든 이 용어 metaphor의 어원은 그리스어, ‘옮기다[μεταφορά = transport]’에서 온 것이다. 즉 원어에 ‘감추다’라는 뜻은 없다.)

## 다시 은유의 약속: 상상력의 기능

그렇다면 은유는 어떻게 창출되는가? 앞에서 ‘갈대’=‘사람’의 은유를 들었다. 이 은유가 만들어진 절차를 다시 상기해보자.

갈대 ⊃ 연약함 ⊂ 사람.

즉 연약함을 매개로 해서 갈대와 사람 사이의 일치가 성립한 것

이다. 그러니까 은유는 두 개의 제유를 겹쳐 놓아서, 명시적인 일치 부분을 감추고 언뜻 보아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두 대상을 연결한 것이다. 그래서 은유를 “두 제유의 결합”이라고 풀이한 공식이 나오게 되었다. 이 공식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일반수사학파’이고 한국에서는 김인환 교수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를 원용하였다.

은유의 창조성은 바로 이 감추는 기술에서 비롯된다. 근거가 숨었기 때문에 언뜻 신기한 마술이 펼쳐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실은 근거가 있다. 감추어진 부분적 공통점이 그 근거이다. 자세히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은유의 한 장면 앞에서 독자는 한순간 어리둥절했다가 그 근거를 깨닫는 순간 발견의 기쁨에 환호하게 된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악행 군주 ‘맥베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라는 예언이 나온다. 독자는 처음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없기 때문에 “‘맥베스’는 무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맥베스는 결국 죽고야 만다. 희곡의 끝에 독자는 그 사람이 ‘맥터프’라는 걸 알게 된다.

‘맥터프’와 ‘맥베스를 처치한 자’ 사이에는 은유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일치는 불가사의하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다니? 그는 아담처럼 신이 창조한 것인가? 실은 맥터프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던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산도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

맥더프 C 제왕 절개로 태어난 자 ≈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 ⊃ 맥베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경우 ‘부분’은 일단 드러나 있다. 다만 부분에 수수께끼를 입혀 미지의 대상으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부분의 비밀을 감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예를 일부러 든 것은 감추어진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라고 은유하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속으로 놀란다. “어머! 내가 장미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네!” 이런 마음에 혼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부분적 일치를 통한 치환은 실제 현실의 정확한 지칭이 아니라, 상상적 착안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상상적 착안이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래에 이행해야 할 약속. 이 점에서 제유는 그 일치의 명시성 때문에 거부하다. 즉 제유에서 부분과 전체 사이는 시야에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연중에 요구한다. 그런데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일종의 ‘침소봉대’ 혹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가령 ‘짜코’라는 별명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중 한 사람이 ‘유명정치인’이라면, 다른 ‘짜코’들도 유명정치인인가?

반면 은유의 은폐된 성질은 그것을 발견술적 사건(heuristic

event)으로 만든다. 은유는 발생되는 순간, 그 역할을 마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일단 은유의 내용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의혹이 해소되고 은유의 내용을 진실로 느끼려면, 애초의 선언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은유에는 절실성 혹은 실감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환자 '도라'가 격렬한 기침을 한 행동에서, 그것이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기침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그 기침을 'einziger Zug'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프랑스로 통상 'trait unique(공통점)'이라고 번역되어 왔다. 그런데 라캉은 그것을 'trait unaire(하나 되는 표지)'로 수정하면서, '하나 되는 표지'는 공통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차이를 가능케 하는 표지이며, '큰 타자'와의 상징적 동일시의 지주로서, 공통성을 위해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기표 연쇄'의 각 항목들을 모두 다른 것으로 만든다(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1961~62년 세미나, 『동일시(L'identification)』, 이 세미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대신 대안 출판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기본 설명은 Alain de Mijolla가 편한 『정신분석 국제 사전』, 2002의 'trait unaire' 항목을 참조했다.)

우리는 라캉의 이 새로운 해석을 신중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은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제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은유가 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공통성의 확증이 아니라 차이의 발생이다. 즉 새로운 형상의 창조이다. 그래서 ‘나’가 연인에게 “오 장미여!”라고 외치는 순간, 그 장미는 세상의 어느 장미와도 닮지 않은 ‘나’가 창조한 나만의 고유한 장미가 되는 것이다. 말라르메의 유명한 한 대목이 가장 유력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꽃이여!”라고 말한다. 그러자 내 목소리가 어떤 경계도 멀리  
떨어버리는 망각의 저편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꽃받침이, 어떤 꽃다발에도 부재하는, 한결같고도 감미로운 관  
념으로 음악적으로 떠오른다. (르네 길, 『말에 대하여』의 서문)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상상력의 대가 가스통 바슐라르는, 같은 맥락에서, 상상력을 분별하였다. 기계적인 착안, 상투적인 착안, 가령 “비둘기는 평화”와 같은 인습적인 비유를 그는 ‘형태적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와는 다른 진정한 상상력으로서 두 가지 방식을 들었는데, ‘물질적 상상력’과 ‘역동적 상상력’이 그것이다. ‘물질적 상상력(imagination matérielle)’이란, 비유가 독자의 실질적인 실감을 통해 증명되는 상상력이다. 즉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러하다.

자, 멀리, 내 사랑하는 사람아

오, 멀리로 가거라-----

.....

깊은 휴식의 꿈속에서

미소 짓는 쓸쓸한 호수에

그 중심을 보석처럼 흘뿌려놓은

무수한 별-섬 쪽으로

- 에드가 앨런 포우, 「알 아라프」(바솔라르, 『물과 꿈』[이가림 역]에  
서 재인용)

연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포우의 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하늘의 별들을 향해 떠나는 여행으로 축원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감시킬 수 있을까? 우선은 하늘을 호수에 비유하고, 하늘의 어둠에 빗대어 “깊은 휴식의 꿈속에서 / 미소 짓는 쓸쓸한 호수”라 표현하였다. 그다음 하늘에 까맣게 떠 있는 별들을, 다도해의 섬들로 은유한 후, 그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 모습을 두고 “그 중심을 보석처럼 흘뿌려 놓”았다고 표현하였다. 한밤에 바깥에 나가 하늘을 바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광경이 얼마나 생생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별들은 중심으로 촘촘히 모여, 주위의 어두움에 대비되면서 더 총총한 밝음을 빛낸다. “보석처럼 흘뿌려놓”았다는 표현은 이런 총총한 밝음을 맞춤형에 지시한다. 이 구절 자체에는 ‘직유’가 사용되었지만, ‘보석처럼 흘뿌려진 모양’은 곧바로 ‘하늘의 중심에 모인 별들의 모습’을 그대로 은유한다. 이 시구에서 사용된 하늘-호수, 별-섬은 어휘 차원의

은유지만, ‘보석처럼 흩뿌려진 모습’은 사건 차원의 은유이다.

이처럼 물질적 상상력은 인류의 보편적인 체험에 근거한다. 그 체험이 강렬할수록 그에 근거한 표현은 그만큼 실감을 얻는다. 물론 그 표현이 그 강렬성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어휘들과 어휘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 상상력이다. 그 점에서 이는 T. S. 엘리엇가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에 놓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이 창조성의 장소인 한, 오로지 경험에 근거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탐험에 나서고 싶어 한다. 그때 발휘되는 것은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 의지의 실현이다. 바슐라르는 그런 의미의 상상력을 ‘역동적 상상력(imagination dynamique)’이라 불렀다.

바슐라르가 ‘물질적 상상력’의 질료적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 시인으로서 서슴없이 지명한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한 니체이다. 그는 말한다:

니체는 “물질의” 시인이 아니다. 그는 행동의 시인이다. 우리는 그를 물질적 상상력의 예표로서보다는 역동적 상상력의 예표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지는, 그 (거대한) 용적과 심도로 하여, 그에게 무엇보다도 행동의 테마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니체 작품 속에서 지하의 삶에 대해 많은 언급을 보게 되겠지만, 그 지하의 삶이란 오히려 지하의 행동이라고 (고쳐) 말해야 한다. 그것은 노

발리스의 상상력에서와 같은 경이에 찬 여행, 그런 어떤 몽상적 탐  
험이 아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오로지 능동적인 삶이며, 지구적(持  
久的)인 용기와 오랜 준비로 이뤄진 삶으로서, 공격적이고 끈질기며  
주의 깊은 인내심의 상징이다.(바슐라르, 『공기와 꿈』, 정영란 역)

그의 한 시를 보자.

십 년 세월이 흘러갔다.

물 한 방울 나를 적시지 않고,

촉촉한 바람 한 점, 사랑의 이슬 한 점 없이

… 비를 맞긴 대지……

(……)

… 비를 맞긴 대지.

나의 산들에서 떨어져 가다.

(……)

오늘 나는 그들을 끌어당긴다, 그들이 내게 다가오도록,

내 주위에 그늘을 만들어다오, 그대의 유방으로!

—나는 그대의 젖을 짜기 원하노니,

저 천상의 젖소들이여!

우유처럼 따뜻한 예지, 사랑의 감미로운 이슬,

나는 그것을 온 땅에 철철 퍼부으리라,

- 『이 사람을 보라!』, 「시선」(앞과 같은 책)

니체의 시어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대부분 ‘물질적 상상력’에 근거한다. 가령 위 시에서 ‘세상 사람의 무시 및 무관심’을 “촉촉한 바람 한 점, 사랑의 이슬 한 점 없이” “비를 앗긴 대지”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생생한 실감을 준다. 또한 ‘우울’을 가리켜 “지나가는 구름, 촉촉한 우수, 가려진 하늘, 도둑맞은 태양, 울부짖는 가을바람의 고약한 장난”이라고 표현할 때, 이보다 더 실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타고난 긍정의 철학자는 부정적 세계를 넘어가려고 한다. 그때 그는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형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그런 창조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현실에 없는 세계를 순수한 공상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의 질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니체의 “천상의 젖소들”은 현실에 기대되, 현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실체를 꿈꿀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천상의 젖소들도 지상의 젖소들과 마찬가지로 우유를 제공한다. 그런데 그들이 제공하는 우유는 음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는 없는 “따뜻한 예지, 사랑의 감미로운 이슬”이다. 그 예지와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는 현실을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한다. “내 주위에 그늘(어둠)을 만들어다오, 그대의 유방으로”라는 요청이 나온 건 그 때문이다. 현실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면, 그다음에 천상의 물상들이 철철 퍼부어질 것이다. 독자는 이 퍼부어짐을 곧바로 ‘내리는 소낙비’를 떠올리겠지만, 그 모습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의 모양을 초월한다. 마치 어떤 거대한 주걱이나 호스가 덥고 감미로운

액체를 호탕하게 뿜어내는 모양을 상상해보라.

역동적 상상력은 이처럼 현실을 추월하는 양상을 창출하거나 혹은 현실 안에서 다른 물상에서 적합한 양상을 과감하게 끌어와, 현재의 대상의 속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가령 바슐라르가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대표적이다.

오 나의 길들이여, 그들의 리듬이여(『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이를 소개하면서 바슐라르는 이렇게 탄복하고 있다: “오솔길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역동적인 대상인가! 언덕의 그 정다운 오솔길들은 우리들의 근육의식에 얼마나 또렷이 남아 있는가?”

이제 ‘은유’가 현실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은유를 통해서 모든 관계항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치환하는 기표뿐만 아니라 치환되는 기표가 지시하는 대상도 움직인다. 길들은 리듬을 타고 뱀처럼 이동한다. 그뿐이라, 이런 은유를 완성하기 위해 시 쓰는 시인도 시 읽는 독자도 각각의 작업에 최대한의 운동성을 부여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표현은 멈출 것이고, 독자는 시구들의 흘러내림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은유는 세계의 운동 그 자체, 즉 세계를 창조의 세계로 정향하는 운동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관계하는 전 존재가 협력한다. 대상과 언어와 시인과 독자가 모두. 은유가 개시하는 약속은 전존재적 약속, 우주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 환유

그러나 이런 운동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이 마냥 도취와 열락 속에서 행해지기를 바라는 건 과도한 욕심이다. 인간의 유한한 삶은 언제나 최대치의 전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한계를 가늠하고 성찰하고, 돌이킴과 더 나아감 사이의 방정식을 운산하게끔 한다. 은유를 무작정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경계를 벗어나 몽롱한 안개의 지역으로 빠져들 수 있다. 현실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헛된 공상의 갈증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인간은 언제나 현실 내의 한계를 재면서 삶을 재조정한다. 한계가 너무나 뚜렷할 때는 은유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나’가 “오장미여!”라고 부른 여인에게 이미 다른 애인이 있으며, 그들이 결혼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인처럼 무작정 돌진할 것인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기억을 마음 한 구석에 저장해두어야 하고, 수시로 꺼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은유의 한계를 진단해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비유의 다른 방향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기도 한다. 바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비유가 환유(換喻, metonymy)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유는 고전적 수사학에서 내렸던 정의와 많이

다르다. 종래의 환유에 대한 이해는 제유의 형제 정도였고, 따라서 은유의 하위영역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해석이 20세기 중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해, 20세기의 위대한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을 거쳐, 자크 라캉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 내력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대표적 저서 『꿈의 해석』, 제6장 「꿈의 작업」에서 꿈이 행하는 소망 변형의 작업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런데 맨 앞에 소개된 두 가지 절차에 로만 야콥슨이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둘을 각각 ‘은유’와 ‘환유’에 대입하였다. 그 둘은 ‘압축(condensation)’과 ‘전위(displacement)’이다. 그리고 다시 자크 라캉이 정신분석의 용어로서 ‘압축’, ‘전위’ 대신에 ‘은유’, ‘환유’를 사용하였다.

프로이트는 「꿈의 작업」에서, ‘압축’과 ‘전위’를 아주 명료하게 풀이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문학적 수사법인 ‘은유’와 ‘환유’에 대입하였을 때 두 방법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전 내막을 자세히 기술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다만 ‘환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꿈의 작업’은 모두 소망의 ‘은근히 감추어진 드러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의대로 꿈을 ‘소망 성취’의 시도라고 본다면, 꿈의 작업은 그 소망을 ‘가리우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왜 가리우는가? 금기로 규정된 것들, 소망해서는 안 될 것들을 꿈꾸는 자가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직접 드

러내면 꿈꾼 자는 위협에 처할 수가 있다. 위협도 방지하고 소망도 피력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는 교묘하게 위장된 방식으로 자신의 소망을 피력한다. 그것이 꿈의 작업이다.

압축은 소망의 대상을 하나의 부분으로 축소하거나(빼기), 부분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대상을 만들거나(합하기), 부분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치환하거나(추리기) 하는 세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수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두 제유의 결합”이라는 일반수사학파의 은유에 대한 정의와 상통한다. 빼거나 합하거나 추리거나, 모두 본래 대상을 내재적으로 변용하는 것이다.

반면 ‘전위(傳位)’란 외재적 치환이다. ‘전위’를 간단히 정의하면 “중요한 것은 감추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부각시키는 절차”이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전위의 기능은 명백하다. 자신이 정말 소망하는 것을 숨기되, 그것의 사소한 어떤 부분을 노출함으로써, 그에 대한 암시를 흘리는 것이다. 앞의 상상적 사례를 연장시켜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나는 구애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대에 대한 열정은 잦아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중 누군가(가령 동생이라고 하자)에게 접근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접근은 빈도수가 늘어난다. 이때 그 가족, 동생이 바로 환유의 항목이 된다. ‘동생’은 ‘나’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도 있다. 그러나 실은 동생을 매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동생은 ‘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 연인에게 다가갈 가능성은 영원히 가능성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유의 이런 기능이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다. 생각해 보자. ‘나’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맞는가? 그것은 우선 완전한 사랑이라고 간주되긴 했지만, 실제 만나 보면, 곧 바로 스쳐 지나가고야 말 한때 욕망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합당한 존재는 누구인가? 아니, 그런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환유적 절차’의 작동 속에 그런 성찰에 잠긴다.

욕망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게 실제 대상이라기보다는 욕망을 이동시키는 욕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크 라캉의 프로이트 재해석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왜냐하면 당장의 욕망의 대상이 결코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의 상대를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다. 욕망은 욕망들의 연쇄로서 존재한다. 라캉은 이 욕망의 연쇄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이 “‘환유’가 거주하는 장소”(『세미나 11』)라고 보았다. “거기가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족제비처럼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고, 달아나는 곳이다.” 그런데 그때 “큰 타자의 욕망이 큰 타자의 담론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체에 의해 포착된다.” 즉 ‘작은 타자들’ 사이를 순환하는 욕망의 연쇄 속에서 간극이 발생하면서, ‘큰 타자’의 욕망에 눈을 돌리고 묻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 착안하여, 라캉의 한

해석자는 주체가 간극 속에서 오히려 활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엠마[플로베르의 걸작, 『마담 보바리』의 주인공]는 그녀가 나는 사랑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경험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오히려 그녀의 성적 욕망이 고양되었다고 말했던 것이다.”(로랑스 바타이유, 『꿈의 배꼽』)

환유에 대한 이런 재해석은 환유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 앞에서 은유를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에 빗대어 말한다면 환유는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은유든 환유든 현재의 물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관한 전 존재의 운동을 부추기는 동적 사건이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 은유는 진정한 형상의 완성을 향한 의지 속에서 움직인다. 반면 환유는 그런 은유의 작동이 결코 우리를 초월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라캉의 말을 다시 빌리면 그것들은 “초월적 지표들이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 대한 ‘지표들’이다(『에크리』, 「프로이트적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 환유는 그 지표들을 측량하게끔 하는 것이다.

실제 문학 작품 속에서 환유가 작동한 사례를 음미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현대시의 아버지’, 보들레르의 시, 「백조」의 한 구절이다.

거기 예전엔 동물 우리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거기서 나는 보았다, 어느 아침 차가운 맑은 하늘 아래

「노동」이 잠을 깨고, 쓰레기더가 고요한 공기 속에  
검은 먼지 내뿜고 있는 시각,

우리를 빠져나온 백조 한 마리,  
바싹 마른 포도를 오리발 갈퀴로 비비며,  
울퉁불퉁한 땅바닥 위로 그 하얀 깃을 끌고 있는 것을.  
물도 없는 도랑 가에서 이 짐승 부리를 열고,

먼지 속에 제 날개 안질부질 떡 감기며,  
제 아름다운 고향 호수 그리는 마음 가득하여 말하기를:  
“물이며, 언제 넌 비 되어 내리려니? 너 언제나 올리려니, 우레여?”  
이 알곳은 숙명의 신화, 불행한 짐승은

이따금 오비디우스처럼 하늘을 향해  
잔인하게도 파랑기만 한 빈정대는 하늘을 향해  
마치 신을 향해 비난을 퍼붓듯,  
경련된 목 위에 굽주린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악의 꽃』, 윤영애 역)

이를 두고 이브 본느프와는 이렇게 풀이한다. “이 백조는 더 이상 ‘오리 무리 속의 왕자’가 아니다. 그의 감각은 더 이상 은유적이지 않고, 환유적이다. 그는 빈자들, 병자들, 패배한 자들 곁에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만족과 그 만족이 근거하는 가소로운

미적 변신을 포기할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보들레르가 이를 알레고리로 썼다면, 그것은 알레고리가 작용하는 면의 철저한 불충분성을 알리려고 애쓰는 알레고리다.”(『보들레르의 기호 아래』)

여기 묘사된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로부터 환생한, 우리가 수시로 꿈꾸는 그런 백조가 아니다. 이 백조는 결코 환생하지 못한다.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증명받지 못하고 가장 못한 오리 새끼로 남아 껍딱거릴 뿐이다.

두 번째 사례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나오는 럭키(Lucky)의 ‘모자’이다. 포조(Pozzo)가 잡은 목줄에 끌려다니는 럭키가 왜 모자를 쓰고 있을까? 프랑수아 누텔만은 그것은 머리(지성)의 부재를 가리키는 환유적 표지라고 설명한다: “머리가 단지 골통에 지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골통마저 비어 있다면, 무언가로 그걸 덮어야 한다. 그래서 병거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일종의 꼬인 환유에 의해 베케트는 머리를 모자로 대체하고, 인물들의 특성을 가리키는 데에 그것이 중요하게 쓰이도록 한다. 모자는 실로 신체와 사물 사이에 실제적 연결을 형성하여, 인물들과 무대 공간 사이의 무차별성을 확고히 한다.”(『베케트 혹은 최악의 무대』)

마지막으로 김수영의 시, 「미인」을 보자.

미인을 보고 좋다고들 하지만

미인은 자기 얼굴이 싫을 거야

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그럴 것이니

미인과 앉은 방에선 무심코

따 놓는 방문이나 창문이

담배 연기만 내보내려는 것은

아니렸다 (김수영, 「미인 - Y여사에게」)

이 시는 너무나 엉뚱하여, 지금까지 분석이 된 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가 환유가 특별하게 작용한 희귀한 예라고 생각한다.

이 시가 쓰인 배경이 시인의 산문 중에 있다.

졸작 「미인」의 주인공은 그중[=아내의 친구들 중] 세련된 교양 있는 미인이라고 해서 같이 회식을 하러 갔다. 과연 미인이다. 나는 미인을 경멸하는 좋지 못한 습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이 Y여사는 여간 인상이 좋지 않다. 여유 위에 여유를 넓히려고 활짝 열어놓은 마음의 창문에 때아닌 훈기가 붙어 들어온 셈이다. 우리들은 화식집 2층의 아늑한 방에 앉아 조용히 세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Y여사는 내가 피운 담배 연기가 자욱해지자 살며시 북창문을 열어 준다. 그것을 보고 내가 일어나서 창문을 조금 더 열어 놓았다. 그때에는 물론 담배 연기가 미안해서 더 열어 놓았다. 집에 와서 그날 밤에 나는 그 들창문을 열던 생각이 문득 나고 그것이 실마리 돼서 7행의

단시를 단숨에 썼다.

이 작품을 쓰고 나서, 나는 노상 그러하듯이 조용히 운산(運算)을 해 본다. 그리고 내가 창을 연 것은 담배 연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천사 같은 혼기를 내보내려고 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됐다! 이 작품은 합격이다. 창문—담배·연기—바람. 그렇다, 바람. 내 머리에는 릴케의 유명한 「오르페우스에 바치는 송가」의 제3장이 떠오른다.

참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은 다른 입김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입김. 신(神)의 안을 붙고 가는 입김. 바람.  
(「반시론」)

이 회상을 참작하면서 시를 다시 읽으면 시의 무의식적 운동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우선 시인은 ‘Y여사’에게 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일행은 셋이다. 감시자가 옆에 있다. 아내가 없었다면 아내의 친구와 함께 화식집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담배를 피운다. 그 당시에는 음식점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흔한 풍경이었다. 흡연의 위험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절이었고, 비흡연자는 대체로 담배 냄새를 묵묵히 참아 내곤 했다. 김수영의 회식에선 영 참을 수 없어서 ‘Y여사’는 살그머니 북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시인도 일어나 창문을 좀 더 열었다.

시인은 비흡연자의 고통을 얼마간 짐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때에는 물론 담배 연기가 미안해서 더 열어 놓았다.”라고 써 놓았다. 그러나 “그때에는”이란 단서에 주목해야 한다. 그 어구는 “그 순간에는”이란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앞·뒤의 시간대에는 다른 감정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 순간의 앞에는 ‘Y여사’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 한 감염적 행동이 있다고 추론된다. 그 행동에는 까닭이 있다. 그 앞에서 한 말이 있다.

여유 위에 여유를 넓히려고 활짝 열어놓은 마음의 창문에 때아닌 훈기가 불어 들어온 셈이다.

시인은 자신이 “미인을 경멸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그 앞에서 고백했었다. 한데 아내 친구에 대해서도 그런 경멸을 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넉넉히 잡았다. 그런 마음 자세를 “여유를 넓히려고 활짝 열어놓은 마음”이라고 칭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 놓았더니, 정말 호감이 가는 미인을 만나는 행운이 돌아왔다. 그걸 두고, “때아닌 훈기가 불어 들어”왔다고 썼다. 바로 이 때문에 ‘Y여사’가 북창문을 여니, 자신도 덩달아 일어나 창문을 더 열었다.

북창문은 ‘마음의 창문’의 은유이다. 그러니 창문을 연 것은 다음과 같은 마음 작용의 표현이다: (1) ‘Y여사’는 훈기를 더 끌어오려고 창문을 열었다; (2) 나도 그녀의 마음에 호응해 창문을 더 열었다. 여기에 1차적 환유가 있다.

- ▶ 그가 소망한 것은 ‘더 많은 훈기’이다.
- ▶ 그는 그 마음을 감추고 ‘담배 연기’를 핑계로 내세운다.

전위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로써 시의 2연이 환하게 이해된다. 게다가 시인은 ‘담배 연기’를 말하면서 일부러 “~만은 아니렸다”라는 암시까지 주었다. 그런데 1연은 아직 해독되지 않았다. 미인이 왜 자기 얼굴이 싫을까? 이 문제는 게다가 2연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훈기/담배의 환유적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산문을 다시 참조하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창을 연 것은 담배 연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천사 같은 훈기를 내보내려고 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 달라진 게 있다. ‘그 순간’의 앞에서는 훈기를 불러들이는 게 요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의 뒤에서는 훈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초점이다. 요컨대 시인은 바깥으로 탈출하고 싶은 것이다. 누구와? 훈기를 가져온 사람과. 즉 ‘Y여사’와. 그는 ‘Y여사’도 그와 같은 심정이기를 바란다. 그 소망이 ‘Y여사’의 자기혐오에 대한 환상을 조장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1연에서 개진된 마음의 추이를 구성해보자.

- ▶ ‘Y여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미모에 관심을 갖는 게 불편하다고 투덜댄다.
- ▶ 그런 말을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Y여사’가 스스로를 빠기는 것처럼 비친다.
- ▶ 진정 미인이라면 자기 얼굴이 아름다운 걸 정말 불편하게 여겨야 한다.(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
- ▶ 그러나 싫어해도 미모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 ▶ 문제는 미모가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다.
- ▶ ‘Y여사’는 세상 사람들이 미울 것이다.
- ▶ 그러니까 미인이여, 나와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 달아나자.

여기에서 제2의 환유가 아주 은밀히 작동했다.

- ▶ 그가 소망한 것은 미인과 함께 세상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 ▶ 그는 그 마음을 감추고, 미인을 둘러싼 세간의 소란을 문제 삼는다.

즉 1연은 이 세상을 홍보는 척 하면서 저 세상으로 달아나고자 하는 마음을 슬그머니 드러낸다. 이 숨은 마음이 2연의 조건이 됨으로써, 세상의 한 대상(미인)에 대한 욕망을 다른 세상에 대한 탈출의 욕망으로 바뀌었다. 이 환유의 마술을 산문에서는 다음 공식으로 표

현했다.

창문 → 담배 · 연기 → 바람.

담배가 피워낸 연기를 사이에 두고 ‘담배’를 ‘바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연기’는 변환의 미술이 펼쳐지는 잠시의 장막에 가리어진 공백(앞에서 말한 간극)이다. 요컨대 ‘수리수리마하수리’다.

혹자는 이승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다른 생을 꿈꾸는 것은 같은 마음의 표현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즉 1연에서 작동한 것은 은유가 아닌가? 그러나 이 세상을 홍보는 자가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정신적 승리이다. 다른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은 다른 세상을 얻는 일이다. 거기에서는 정신적 승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산문에서 김수영이 릴케의 시구를 인용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인용된 시구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 ▶ 참다운 노래는 다른 입김이다.(다른 세상에 대한 암시)
- ▶ 참다운 입김은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입김이다. 즉 바람은 바람(소망)을 유념하지 않는 바람(다른 세상으로의 이동)이다.

여기까지 와서 제2의 환유는 정신적 차원에서 격상한다. 처음에

는 순수한 탈출만이 문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다른 세상으로의 탈출은 이승에서의 욕망을 이기는 싸움을 거쳐야 한다는 깨달음이 덧붙게 된 것이다. 제3의 환유는 바람(욕망)을 바람(이동)으로 바꾸는 데서 나온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나는 바란다(욕망한다.)
- ▶ 나는 바람이기를 바란다(집착하지 않는 초월이기를 바란다.)

이번엔 순서를 바꾸어 적었다. 진짜 의중을 나중에 적었다는 애기다. 이 환유는 무의식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가는 데 성공하여 시인의 ‘자각’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와서, 무의식의 운행은 하나의 사상을 획득한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의 서술을 다음의 네 명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는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게끔 하는’ 언어적 절차이다.

현실을 움직이는 작업에는, 시인, 독자, 작품의 모든 기표들이 집합적으로 참여한다.

비유는 은유와 환유로 대별할 수 있다.

은유는 약속을 이행하고, 환유는 성찰을 자극한다. 혹은 은유는 의지를 모으고, 환유는 각성을 유도한다.

## 참고문헌

본문에서,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연구자들이 늘 접해 온 주장, 진술, 명제들에 대한 출전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것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너무 많은 문헌에서 빈번히 출현하였고, 공부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거의 각인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Alain de Mijolla (direc), *Dictionnaire Internationale de la Psychanalyse* (M-Z), Paris: Calmann-Lévy, 2002

BARTHES, Roland : "Introduction à l'analyse structurale des récits", Roland Barthes, *Œuvres complètes - Tome 2: 1966-1973*, Paris: Seuil, 1994

BATAILLE, Laurence : *L'ombilic du rêve - d'une partique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1987

BAUDELAIRE, Charles : *Œuvres Complètes I -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Claude Pichois* (coll.: Pléiade), Paris: Gallimard, 1975

샤를 보들레르, 『악의 꽃』, 윤영애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1.06 [원본: 1857]

BECKETT, Samuel : *En attendant Godot*,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52

BONNEFOY, Yves : *Sous le signe de Baudelaire* (coll.: Bibliothèque des idées), Paris: Gallimard, 2011

DEUTSCHER, Guy : *The Unfolding of Language*, Holt Paperbacks, 2006

ELIOT, T. S. :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New York: Knopf, 1921

FREUD, Sigmund : *Œuvres Complètes - IV. 1899-1900, L'interprétation du rêv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3

Groupe  $\mu$  : *Rhétorique générale*, Paris: Larousse, 1970

HUGO; Victor : *La légende des siècles - Texte établie et annotée par Jacques Truchet* (coll.: Pléiade), Paris: Gallimard, 1950

JAKOBSON, Roman :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63

JAKOBSON, Roman :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옮김(coll.: 현대의 문학회론 No. 15), 문학과지성사, 1989

LACAN, Jacques : *Écrits*, Paris: Seuil, 1966

LACAN, Jacques : *Le Séminaire IV: La relation d'objet*, Paris: Seuil, 1994

LACAN, Jacques : *Le Séminaire IX. 1961-1962: L'identification*, Association freudienne internationale, 연도 미상

LACAN, Jacques : *Le Séminai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1964), Paris: Seuil, 1973

MALLARMÉ, Stéphane : *Œ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45

NOUDELNANN, François : *Beckett ou la scène du pire - Étude sur En attendant Godot e Fin de Partie*, Paris: Honoré Champion, 1998

SAUSSURE, Ferdinand de :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hèque, 1974

SHAKESPEARE, William : *Complete Works* - edited by Jonathan Bate and Eric Rasmussen, New York: Random House, 2007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전집』, 이상섭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이영준 (역음), 『김수영 전집 1. 시』, 민음사, 2018

이영준 (역음),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2018

정과리, 「정신분석에서의 은유와 환유」, 정과리,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 - 존재의 변증법 · 4』, 역락, 2005

## 저자약력

### 김태훈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심리학 박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및 석사  
전)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전임강사  
전)오하이오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전임강사  
저서: 『깊은 생각의 비밀』,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등

### 박만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불어불문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1992)  
프랑스정부 학술공로훈장(Ordres des Palmes Académiques) 기사(Chevalier)장 수훈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 한국사전학회 회장,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회장, 프랑스 국립과  
학재단(CNRS) 초빙연구원 역임  
저서: 『설득의 인문학』(도서출판 씨엘), 『프랑스어식 사고법』 등

### 백은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1988)  
대한민국 의사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대한생리학회 회장 역임  
생리학, 신경과학 전공  
88편의 연구논문 발표

##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

런던대학교(LSE) 철학박사 (과학철학 전공)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역임

현)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의원

현) H-Y 과학기술윤리법정정책센터 센터장

저서: 『과학은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휴머니스트, 2019),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공저, 아카넷, 2020), 『과학과 가치』(공저, 이음, 2023)

## 이윤형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심리학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h.d.(2007)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편집위원장,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장

저·역서: 『혁신의 도구』(학지사, 2013), 『인지심리학의 기초』(학지사, 2021),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북멘토, 2022), 『깊은 생각의 비밀』(저널넷, 2024) 등

##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2000.09~2023.08), 현 명예교수

전)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1984.12~200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1993)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문학평론가로 활동

계간 『문학과사회』 편집동인(1988~2004)

저서: 『한국 근대시의 묘상 연구』(2023)를 비롯

한국문학, 한국문화, 디지털 문명, 프랑스 중세 문학 등에 관한 책 다수

## 최원일

현)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 캠퍼스 인지심리학 전공 박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Center for Mind and Brain 박사 후 연구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Institute of Mind and Brain 박사 후 연구원

## 은유는 왜 특별할까?

언어, 문학, 철학, 심리, 뇌과학자가 바라본  
은유의 풍경

1판 1쇄 발행 / 2024년 12월 13일

엮은이 / 고등과학원 감정연구단  
저 자 / 박만규, 김태훈, 백은주, 이상욱, 이윤형, 정명교, 최원일 공저  
펴낸이 / 김재선  
펴낸곳 / 예솔

등록 / 제2002-000080호(2002.3.21)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전화 / 02-3142-1663, 335-1662 · 팩스 / 031-912-1643  
이메일 / yesolpress@empas.com · 홈페이지 / www.yesolpress.com

© 고등과학원, 2024,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8-89-5916-069-3 94000  
978-89-5916-986-3 94000(세트)

이 책의 저작권은 고등과학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예솔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